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00

第19卷 第1號 通卷 21號

救急簡易方卷之三

口瘡입안

宜服和劑方洗心散濟生方赴筵散

화제방애세심산과제성방애부연산은

더고미맛당호니라

口瘡 五倍子우비자 遠志아기 刺楸블취 同

研為粗末用紗羅隔過摻少許於舌上吐出

則已隨愈

어든우비자반량과아기춧물회솥

니 과를호되니라 곧이더의어

는 처져기허우희썩하라고도하

나면현되미조차도호리라

生 自然穿缺口數次涎出而效

상양쫄두드러절로나좁으로두서번양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60年 10月 7日 創立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終身名譽會長：李 德 一(이덕일치과의원)
" 李 漢 水(이한수치과의원)

監 查：金 在 勳(김재훈치과의원)
" 李 時 雨(이시우치과의원)

名譽會長：金 正 均(김정균치과의원)
：李 丙 台(이병태치과의원)
：朴 勝 五(박승오치과의원)

學術誌 編輯委員會

編輯委員長：李 丙 台(이병태치과의원)

編輯委員：裴 珖 植(서울치대)

" 鄭 鎮 亨(단국치대)

" 金 熙 眞(연세치대)

直前會長：任 慶 彬(신라치과의원)

會 長：辛 在 義(신재의치과의원)

副 會 長：許 正 圭(중앙치과의원)

" 邊 榮 男(성신치과의원)

非常任理事：裴 珖 植(서울치대)

" 金 熙 眞(연세치대)

" 李 興 洙(원광치대)

" 鄭 鎮 亨(단국치대)

" 姜 信 益(강릉치대)

" 金 景 哲(경북치대)

" 洪 禮 杓(홍치과의원)

總務理事：金 聖 男(한신치과의원)

學術理事：許 魯 精(허노정치과의원)

財務理事：崔 昌 均(은누리치과의원)

公報理事：金 平 一(김평일치과의원)

企劃理事：洪 景 澤(홍치과의원)

表紙 컷의 설명

컷으로 사용한 「救急簡易方」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이다. 이 판본의 출처와 연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금후의 서지학적(書誌學的) 연구로 판별을 기다릴 뿐이다. <李 漢 水>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00

第19卷 第1號 通卷 21號

救急簡易方卷之三
 口瘡입천
 宜服和劑方洗心散濟生方赴筵散
 化劑방개세심산과제성방애부연산은
 더고미맛당하니라
 口瘡 五倍子우비 遠志아기 桑葉취 同
 研為粗末用紗羅隔過摻少許於舌上吐出
 則已隨愈
 生 自然平嫩口數次涎出而效
 나면현되미조차도하리라
 生 自然平嫩口數次涎出而效
 生 自然平嫩口數次涎出而效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60年 10月 7日 創立

大韓齒科醫史學會誌

제 19권 제 1호 통권 21호 2000

目 次

- 卷頭言(치의학의 미래).....신재의(4)
이덕일 · 이한수 · 김정균 · 이병태 · 박승오(5)

[論 文]

- 韓末 西洋齒科醫學 傳來에 關한 研究.....신재의(7)
- 韓國의 佛牙舍利塔과 外國의 佛牙舍利를 중심으로.....眞 弘(33)
- 中國 구강의학 사략(史略).....李丙台(51)
- 짧은 中國齒學史.....李漢水(57)
- 실크로드의 起點에 관하여.....李漢水(59)
- 일본 奈良時代의 醫學大觀.....金正均(62)
- 치아와 관련된 각 민족의 관습들.....邊榮男(64)
- 서양치의학 도입기의 한반도 그 주변정세허정규(68)

[隨 想]

- 어제와 내일을 앞뒤에 두며..... 金官興(70)
- 創氏改名..... 金熙耿(71)

[其 他]

- 會員動靜(77)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Vol. 19., No. 1. Series 21. 2000

Contents

- President Address.....Shin Jae Eui(4)
Address.....Lee Duk Il, Rhee Han Soo, Kim Jung Kyun,
Lee Byung Tae, Park Seang Oh(5)
- [Articles]
- A Study on the Transmission of Western Dentistry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Shin Jae Eui(7)
- Korean Sārīra Stupa(Seacred Tooth of Buddha) and Foreign
Relics of Buddha..... Sojin Hong(bhiksuni-sa,PhD)(33)
- A Short History of Dentistry(Stomatology) in China.....Lee Byung Tae(51)
- [General Articles]
- Short Chinese Dental History..... Rhee Han Soo(57)
- About the Starting Point of the Silk Road in China.....Rhee Han Soo(59)
- Summary of Japanese Medicine in Nara-Epoch.....Kim Jung Kyun(62)
- Each Nation's Customes Related with Teeth.....Byun Young Nam(64)
- The Situa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t That Date of
Imorting the Occidental DentistryHer Chung Kyo(68)
- [Essay]
- Stray thouhts meeting the new centuryKim Gwan Hung(70)
- During the 2nd World War Koreans have changed their
names for being regarded as Japanese.....Kim Hee Kyung(71)
- [Others]
- Reference materials.....(77)

치의학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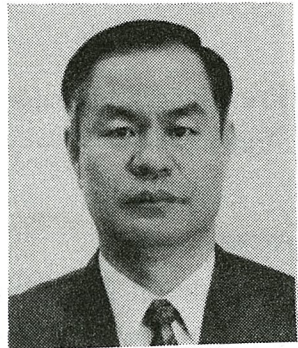
大韓齒科醫史學會

會長 辛 在 義

대한치과의사학회

치의학이 의학으로부터 분리된 이래 기술의 발전·과학의 발전으로 많은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다.

최근에 모 기재상에서 신축 사옥을 짓고 박물관을 하겠다고 한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얼마전 학교에서도 박물관을 설치 하겠다고 하였다. 장소도 마련되고 몇 개의 옛 기구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박물관이라고 부르기에는 흡족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박물관을 위하여 전심으로 헌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 한다.



대한치과의사학회는 일관되게 치과의사학교실의 설치를 주장해 오고 있다. 치과학교실의 설치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의 설치에는 의미가 부여되는 일정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치과의사학교실이 생긴다면 일정한 계획을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인간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 기록하고, 수립되게 될 것이다. 몇 년전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교실이 생겨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의사학교실이 생겼다. 그들은 의사학교실을 왜 만들었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다.

지난 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치과의사학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그러나 그 발표의 내용을 논하기에 앞서 청중수로 미루어 볼 때 매우 썰렁한 발표라는 것이었다. 질을 떠나서 양을 논한다면 학문의 발전에 균형을 기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금년에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학술대회에 몇 연제를 제출하였으나 사정상 채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회원들의 관심사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었다.

대한치과의사학회는 1960년 10월 7일에 창립된 이래 의연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치과의사의 유일한 형이상학을 연구하는 분야로써 물량주의나 상업주의에 물들지 않고 치의학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우리 공유의 큰 기쁨을

종신명예회장 **李 德 一**

우리들 학회의 지나간 나날은 그때엔 비록 고생스러웠으나 이제 창립 40주년을 맞아 돌이켜 보면 모두가 아름다운 큰 추억의 기쁨일 뿐입니다. 보람없는 고난의 학회운영인 것만 같던 그 지난날들이 이제 꽃피는 오늘의 학회의 모습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회원 여러분 과도 진심으로 자축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학회로서 모인 우리들의 공유(共有)의 감격과 학술연구에 의 기쁨과 보람입니다.

학회운영에 있어서 절망적인 것은 없음을 우리는 우리 학회의 성장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일이었을지라도 우리는 노력으로 이 밝은 아침을 맞게 된 것입니다.

참여하신 분께 감사를

종신명예회장 **李 漢 水**

어제만 같은데 벌써 본회가 발족된지 어언 40주년이 됐습니다. 우리 학회가 지금까지 계속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선후배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그동안 학회를 맡어주시고 또 직접 참여해주신 여러분의 존함을 떠올리며 오래오래 잇을 길이 없습니다. 모임에 단 한번이라도 친히 나와주시고 살펴주신 모든 분께 평소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결례를 새삼 부끄러워 합니다. 이제 관용을 빌기는 개인적으로 너무 도리와 예의가 아닌가 합니다.

학회는 이제 새로운 발전기를 맞아 다시 발전을 기약하고 서로 힘내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의 열의에 기대를 겁니다. 회원은 한분이 귀합니다.

창립 40주년의 새 정열

명예회장 **金 正 均**

우리 학회의 창립 40주년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갖가지 후원을 해주신 한분한분을 다시 돌이켜 상기하면서 감사드리는 마음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와 헌신에 힘입어 비로서 우리 학회는 오늘이 있게 됐습니다. 그간의 갖가지 어려움은 선후배 여러분의 사랑이 없으셨으면 참으로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학회지도 대외적으로 부끄러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많고 훌륭한 논문들을 속속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마음 속에 정열이 불타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마음 속 깊이 품은 우리들의 치과의사학에의 정열은 그 누구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치의학 공부 40년만에 새 희망을

명예회장 李 丙 台

1960년대는 필자가 치과대학생·대학원생·인턴·레지던트 시기였다. 1950년에 6·25전쟁이 일어났으니 전후 10년만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참으로 내실(內實)있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치의학의 특성, 의과와는 또 다른 특수·특정분야이기도 하지만 시대적으로 우리말 출판물(교재·교과서·참고서 등)이 거의 없는 시대에 프린트물(物)로 대치하였던 시대에서 치과의사로 성장(生長)하였다. 참으로 열악(劣惡)했던 시대였지만 교수와 스승 여러분들의 열성으로 수업을 잘 했다.

오늘 이 「大韓齒科醫史學會」의 40년 역사와 필자의 치과수업 그리고 치과의사 생활과 그 시기는 비슷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학에서 齒科歷史의식에 별 변화가 없다고 보지만 큰 希望을 건다. 왜냐하면 歷史는 흐르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부합되는 학회를…」

명예회장 朴 勝 五

人生 四十이면 不惑之年이라 했습니다. 우리 학회도 이제 어떤 세파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좌절도 있었지만 치과의사학을 사랑하는 많은 치과 제현들의 격려속에 대학 강좌에서 또는 치과의사협회분과학회로서 분주히 지내오는 동안 어언 21세기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즉 후드·엔진에서 에어터빈시대를 거쳐 레이저 시대에서 의치상 시대에서 임플란트 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놈」이 완성되면 어떤 치과시대가 될것인지 치과의사학 학도로서 조용한 흥분을 느낍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고 인간은 변해도 인간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치과의사학회도 인간성 회복으로 발전된 21세기에 부합되는 학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韓末 西洋齒科醫學 傳來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Transmission of Western Dentistry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신 재 의¹⁾

목 차

1. 머리말	1
2. 조선시대의 치과의학	3
1) 傳統醫書에 나타난 치과의학	3
2) 중국의 西學書에 나타난 치과의학	7
3. 서양인을 통한 치과의학의 전래	10
1) 서양인 의사와 치과의사의 입국.....	10
2) 서양인 의사와 치과의사의 활동.....	12
4. 일본인을 통한 치과의학의 전래	23
1) 일본인 치과의사의 입국	23
2) 일본인 치과의사의 활동	25
5. 맺 음 말.....	32
參考文獻.....	34
英文抄錄.....	39

1. 머리말

1876년 개항 이후 서구의 근대문물이 한국에 전래되었다. 서구 문물의 전래는 서양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각종 서적, 그리고 서양인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본과의 강화도조약 이래 서양 각국들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많은 일본인과 서양인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활동하였다. 이들에 의해 서구의 문물이 전래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양의학과

더불어 서양 치과의학도 전래되었다.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병원이 세워진 것은 1877년부터라 할 수 있다. 재한일본인들을 보호한다는 구실 아래 부산에 濟生醫院이 설립된 것이 그 시초였다. 이후 원산에 生生醫院(1880), 인천에 日本醫院(1883), 서울에 일본공사관 부속의원(1883) 등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서양 각국과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서양인 의사들이 들어왔다. 그 중에는 미국인 기독교 선교 의사들이 많았고, 이들은 선교 활동과 더불어 濟衆院(1885), 施病院(1885)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서양의학이 전래되고 수용되는 과정은 近代 醫學史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밝히는 데에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서양의학의 전래와 수용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¹⁾, 이 과정에서 서양 치과의학이 전래 수용되는 실상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²⁾ 이러한 연구업적들로 인해 치과의학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치과의학 종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주된 관심은 치과의학 기술과 치료에 있었다. 연구의 수준도 개설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서양 치과의학 전래와 수용의 역사적 의미나 성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에 서양 치과의학이 전래 수용되

1) 신재의 치과의원

는 과정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 傳統醫書와 중국에서 들어온 西學書에 나타난 치과의학 지식을 살펴보고, 미국인과 일본인 치과 의사들이 입국하여 활동한 실상을 통해 서양 치과 의학이 전래 수용되는 과정과 그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조선시대의 치과의학

1) 傳統醫書에 나타난 치과의학

한국 전통의서를 대표하는 것은 다음 세 책을 꼽을 수 있다. 하나는 고려시대에 간행된 『鄉藥救急

1) 서양 의학의 한국 전래와 수용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金斗鍾, 『韓國醫學發展에 對한 歐美 및 西南方醫學의 影響』, 韓國研究圖書館, 1960.

金斗鍾, 『韓國醫學史』 全, 探究堂, 1966.

金源模, 『近代韓國外交史年表』, 檀人出版部, 1984.

백락준, 『한국개신교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李萬烈, 「基督教 宣敎 初期의 醫療事業」, 『동방학지』 제46,47,48 합집호, 1985 .pp.245-272.

孫烈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수서원, 1988.

李萬烈, 金亨錫, 金承台, 趙英烈, 「韓末 西洋醫學受容史」, 國史編纂委員會, 1989.

李光麟, 『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閣, 1990.

F. H. 해링튼 저·이광린 역, 『開化期의 韓美關係』, 일조각 1991.

奇昌德, 『韓國近代醫學教育史』, 아카데미아, 1995.

崔濟昌, 『韓美醫學史』, 영림카디널, 1996.

李在樹, 『韓國韓醫學史』, 우리, 1996.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1997.

李忠浩, 『韓國醫師教育史研究』, 國學資料院, 1998.

박형우, 「조선 개항 이후의 서양의학 도입」, 『동방학지』 제104호, 1999. pp.249-289.

이재담, 『의학의 역사』, 위드, 2000

2) 서양 치과의학의 전래와 수용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최진환, 「한국치과계개관」, 『대한치과외과학사연구회지』 1, 1960.

모리스 스미드 저·최진환 옮김, 「치과외과학사」, 대한치과외과학회, 1966.

윤계찬, 「한국치과외과학발달과정의 고찰」 1·2·3, 『치계』 2-9·10·12, 1968.

신재의, 「한국치의학사연구」, 『치원』 4, 1969.

대한치과외과학회사편찬위원회 편, 『대한치과외과학회지』, 1980.

임경빈, 「한국 치의학의 서양식 변화과정에 대한 일고찰」, 『대한치과외과학회지』 7, 1986.

李漢水, 『韓國齒學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기창덕, 『韓國齒科醫學史』, 아카데미아, 1995.

조영수, 「일본인 치과외과학자의 조선진출(1893-1910)」, 『대한치과외과학회지』 17, 1998.

이주연, 「조선시대말과 일제 식민지 시기의 서양식 치과외과학의 도입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3) 최진환, 「향약구급방의 치학적 고찰」, 『대한치과외과학회지』 3, 1962, pp.44-56 ; 李漢水, 앞의 책, pp.113-125 ; 申榮日·朴贊國, 「鄉藥救急方에 관한 醫史學的 考察」, 『大韓原典醫史學會誌』 5, 1991. pp.127-136. ; 기창덕, 앞의 책, pp.109-117 ; 신재의, 앞의 논문, pp.56-57.

方』이다. 이는 고려 大藏都監에서 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조선 태조 17년(1417)에 重刊된 것이 전하고 있다.³⁾ 둘째는 조선 세종 13년(1431)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2년 후인 1433년에 간행된 『鄉藥集成方』이다. 이는 集賢殿 直提學 俞孝通, 典醫監正 盧重禮, 副正 朴允德이 85권 30책으로 완성한 것이다.⁴⁾ 셋째는 『東醫寶鑑』이다. 이는 선조 29년(1596) 太醫 許浚·楊禮壽·金應錫·李命源·鄭禮男·儒醫 鄭碯 등이 편찬을 시작하여 光海君 2년(1610) 허준이 완성하고, 광해군 5년(1613)에 25권 25책으로 訓練都監에서 활자본으로 간행된 것이다. 『동의보감』은 『향약집성방』 등 기존의 전통 의서와 중국 의서를 참조하여 편찬한 것으로 방대한 종합 의서로 평가받고 있다.⁵⁾

이러한 전통의서에 나타난 내용 가운데 치과의학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들 전통의서에서는 공통적으로 口舌과 치아, 그리고 그 주위조직의 병증으로 나누어 치료법을 기술하고 있다. 출혈성 질환은 별도로 전신 질환·諸病 항에 기재되어 있고, 구설·치아·주위조직의 출혈성 질환도 마찬가지이다. 또 소아나 부인의 구설이나 치아의 병증과 치료법은 小兒篇이나 婦人病篇에 기재하였다.

전통의학이나 치과의학에서는 병명 대신 병증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병증은 병명과

구별된다. 이는 한가지 질환에 대하여 현대의학이나 치과의학에서는 분석적으로 원인을 구명하므로 한가지 병명만 있는 것이 보통이나 병증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향약구급방』에서 치과의학과 관련된 것은 「重舌」(상권 17항)·「齒蚶」(상권 18항), 「口脣病」(중권 25항), 「婦人雜方」(하권 1항)·「小兒雜方」(하권 2항)에 기록되었다.⁶⁾ 『鄉藥救急方』에서 치과질환에 사용된 약 처방은 병증에 따라 30여 가지이다. 처방에 사용된 약재는 俗名·藥味·藥毒, 그리고 採取法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齒牙齩蝕의 充填法이 최초로 발견되는데, 이는 구멍에 松脂를 충전하는 것이었다.

『향약집성방』에는 陰陽五行說에 의하여 解剖, 生理, 病理를 설명하고, 구설·입술의 병증과 이에 대한 치료법을 열거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치통을 일으키는 병증을 風·熱·冷과 齒蟲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치료법을 기술한 것이다. 병증을 20여 가지로 분류한 것도 마찬가지이다.⁷⁾ 조선 초기는 고려 의서처럼 중국 의서의 병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향약집성방』보다 더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口舌門과 齒牙門으로 나눈 것이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먼

4) 李漢水, 앞의 책, pp.184-207 ; 鄭勉, 「鄉藥集成方の 編纂에 對한 小考」, 『大韓原典醫史學會誌』 5, 1991. pp.89-97. ; 기창덕, 앞의 책, pp.182-193 ; 신재의, 앞의 논문, pp.62-65.

5) 李漢水, 앞의 책, pp.256-279 ; 기창덕, 앞의 책, pp.182-193 ; 신재의, 앞의 논문, pp.65-67. ;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2000. pp.126-136.

6) 『鄉藥救急方』에서는 口舌 病症을 脣瘡, 脣緊面腫, 重舌, 小兒의 重舌, 木舌, 口腔乾燥, 乾口熱口氣, 舌腫, 舌生瘡爛, 口舌及喉中生瘡爛, 養齒法, 치아 病症을 牙齒痛, 齒痛, 牙痛, 齩齒蟲疼, 齩齒痛, 牙齒被蟲蝕有蟲孔疼痛, 齒根腫痛, 牙齒宜露挺出, 牙齒動搖, 牙齒久不生, 牙齒不生, 小兒食酸齒齩 등으로 구분한다.

7) 『鄉藥集成方』에는 口舌 病症으로 口舌瘡(口瘡, 舌瘡)·重舌·木舌·舌腫強·口吻瘡, 입술의 병증으로 脣瘡·緊脣·脣生腫核·脣口面皴(脣口破裂), 소아의 병증으로 初生兒鵝口·小兒口瘡·小兒燕口生瘡·初生兒重顎重斷·小兒重舌·小兒木舌 등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치통을 일으키는 원인에 따른 병증으로 風·熱·冷과 齒蟲, 치아 자체의 병증으로 齒疳·牙齒蟲孔有蟲·牙齒歷蟲·齒黃黑, 치아 주위의 질환으로 齒齩·齒齩·齒牙風疳·牙齒動搖·牙齒挺出·齒斷腫痛·斷間出血·齒斷宜露, 그외의 병증으로 齒牙不生·齩齒 등을 들고 있다.

저 口舌에 대해서는 생리를 기록하고 구강의 해부학적 설명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치아에 관해서는 치아의 생리와 치아의 명칭을 설명하면서 치아 질환의 병리도 기재하고 있다. 병증의 분류는 『향약집성방』과 유사하나, 세분하여 새로이 기술한 내용도 보인다. 『동의보감』에서는 치통을 원인에 따라 風熱痛, 風冷痛, 熱痛, 寒痛, 毒痰痛, 瘀血痛, 蟲蝕痛 등 7종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병증과 치료법을 기록하고 있다.⁸⁾

『향약구급방』의 편찬으로 향약의 발전은 시작되었고, 『향약집성방』에 이르면 자주성을 표방하기까지 하였다. 그 서문에 “사람들이 모두 자국의 약재는 구하기 쉽고 편리하나 중국에서 온 책은 적고 중국과 藥名이 다르므로 醫藥術을 하는 사람에게 不備한 점이 많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東醫寶鑑』은 향약과 더불어 중국 의약까지 포용하여 실제적이고 서민적인 의서로 발전하게 되었다. 질병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도 『동의보감』이 『향약집성방』보다 앞섰으며, 치아 주위조직의 병증을 매우 간략하게 분류함으로써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도 편리하였다.

이들 전통의서의 가장 큰 공통점과 특징은 치료 방법을 주로 약물치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口舌의 병증에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먹는 약(服) 이외에 상처에 바른다던가(塗), 붙인다던가(貼·付), 놓는다던가(安), 넣는다던가(點), 분말을 뿌린다던가(搽), 펼쳐 붙인다던가(傳), 문질러 흡친

다던가(擦)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口舌의 병증에는 머금었다가 내뱉는(吮) 방법과 양치질을 하는(揩) 방법이 가장 흔히 쓰이고 있다.

구설의 치료법으로는 현대의학에서 보기 드문 貼足法·貼顳法·塗足法·塗臍法·濯足法·化毒法 등이 이용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약재를 발이나 배꼽, 숨구멍 등에 붙이거나 바르는 방법이다. 이는 음양오행설에 따라 일정한 부위에 약재를 사용하여 병소에 자극을 전달하려는 의도였는지는 모르나 그 효과는 알기 어렵다.

구강 연조직 질환의 외과적 치료법은 칼로 피를 뽑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외과적 치료에는 마취와 지혈법이 따르기 마련인데, 마취는 주로 국소마취의 방법이 이용되었고 전신마취는 원시적이었던 것 같다. 顎관절의 탈구와 脣舌成形을 하였다 는 기록도 보인다.

이밖에 擗鼻法, 塞耳法, 取牙蟲法, 熏牙法, 充填法, 拔齒法, 齒牙再植法, 養齒法, 揩齒法, 叩齒法 등이 기록되어 있다. 擗鼻法과 塞耳法은 코나 귀에 해독이나 진통제를 투여하는 방법이고, 取牙蟲法과 熏牙法은 치충을 잡아내는 방법이다. 오늘날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充填法도 보인다. 즉 乾地龍과 麝香, 苡苳子로 충전하는 방법이 『향약집성방』에 기재되어 있다.

물리적인 힘에 의존하지 않고 치아를 빼는 방법도 기록하고 있다. 즉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조금 씹어 아픈 치아에 문지르거나 아픈 치아의 잇몸에 피

8) 『東醫寶鑑』에는 口舌 병증을 口臭, 口糜, 口瘡, 脣腫, 脣瘡, 舌腫, 木舌, 重舌, 舌長, 舌短, 舌上生胎, 舌生芒刺, 小兒口舌病, 噤口, 撮口, 치통을 일으키는 원인에 따른 병증으로 風熱痛, 風冷痛, 熱痛, 寒痛, 毒痰痛, 瘀血痛, 蟲蝕痛, 치아의 병증으로 牙疳, 齒癰, 牙齒齦齒, 齒黃黑, 牙齒動搖, 牙齒脫落, 牙齒漸長, 閉齒, 食酸齒齲, 齒牙不生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9) 順菴 安正福은 肅宗 38년(1712)에 提川 榆院의 外家에서 安極의 아들로 탄생하여 正祖 15년(1871)에 廣州 德谷에서 80년의 생을 마쳤다. 그는 南人으로 學問에 정진하여 29세에 『下學指南』을 저술하였다. 40-50대에는 실학과 역사에 몰두하여 '실학 3부곡' 가운데 하나인 東史綱目을 저술하였는데, 「序文」의 기록으로 보아 66세 때인 1778년에 완성한 것 같다. 이에 비하여 39세에 從士郎 朝奉大夫, 65세에 木川 縣監, 78세에 이르러서야 通政大夫가 되는 등 관운은 遲進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를 내고 貼藥하면 치아가 저절로 빠진다는 것이다. 발치로 인한 출혈에 대한 처방으로 『향약집성방』에 잇몸에 바르는 여러 가지 약재를 추천하고 있다.

齒牙再植法은 단지 치아를 보존하려는 노력이었으며 오늘날의 치아이식과는 다르다. 養齒法으로 拘杞茶나 濃茶로 양치를 한다는 것은 현대의학이 증명한 茶에 弗素가 함유되어 있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과 같다. 叩齒法은 儒醫들의 양생서에 많은 방법이 나타나 있다. 齒狀(치석), 계란 속껍질에 붙은 膜(치태) 같은 것이 붙어 있으면 역시 疳刀로 제거하였다.

이러한 전통치과의학의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증상에 대한 치료로 약물을 사용하여 통증을 회피하려 하였으며, 치아를 보존하려고만 하였다. 齒牙再植法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였다. 발치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결과로 외과적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약구급방』과 『향약집성방』에서 사용된 충전법이 『동의보감』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은 당시 사용되던 재료와 시술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도태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적 사용이 중단된 충전법은 더 이상 보존과 보철 치료의 발전을 계속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齒狀을 疳刀로 제거하는 것은 오늘의 치석제거(스켈링 scaling)와 유사하다. 이는 치아 주위조직 질환의 치료법으로 임상에서 얻은 과학적인 의료 행위일 것이다.

이 같은 전통의서 이외에 조선 후기 사대부의 치과의학 지식을 살펴볼 수 있는 글로써 『女容國傳』이 있다. 이는 영·정조 때 실학자 順菴 安鼎福(1712-1791)⁹⁾이 漢譯한 것으로, 치과 의학을 활용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女容國이라는 제국이 있었다. (중략) 그리고 15국의 신하들을 각각 소개하면 太傅의 벼슬을 하고 있는 朱鉛이 있고, 少傅의 벼슬을 하고 있는 白光이 있으며, 皓齒將軍에 楊樹가 있고, 水軍都督에 關淨이 있고, (중략) 백석산 앞뒤에는 黃染의 군졸들이 곡구산으로부터 赤盾關에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략) 이것을 보고 있던 호치장군 양수가 말하기를 소장은 황염을 토벌하여 백석산성을 평정하겠습니다. 황제는 그 자리에서 허락했다. 명령을 받은 양수는 흰옷을 입고 梨花槍을 들고 一枝兵을 앞세웠는데 일지병의 생김새가 허리는 길고 아래는 뾰족하며 위는 평평하며 기품이 매우 당당하고 늠름했다.¹⁰⁾ 성공에 자신이 있는 일지병인 것이다. 일지병은 먼저 곡구산으로 들어가서 적순관의 좁은 길을 막고 소탕을 시작하니, 성을 유지하지 못한 황염은 패배했다. 황제는 다시 수군 일대를 명하여 양수를 돕게 하였다. 황염은 그 족속을 인솔하고 물 속으로 들어가 모두 자살해 버렸다. 이리하여 백석산도 평정되었다.”¹¹⁾

이는 여자의 화장도구를 의인화하여 얼굴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나라 잘 다스리는데 비유한 해학적인 글이다. 여기서 황염은 치석을 가리키는 것

10) 칫솔의 기원은 길고 오래다. 일찍이 인도에서는 치목을 사용했으며 로마인들은 은으로 만든 잇쑤시계를 사용했고 현재 사용되는 칫솔은 1780년에 영국인 아디스가 고안하였다. 여용국전의 칫솔은 배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들었으며, 한쪽은 뾰족하며 한쪽은 널찍하고 가운데는 길고 잘록하게 만들었다.

11) 이어령, 『한국과 한국인』4, (安鼎福, 『女容國傳』, 『順菴集』, 삼성출판사, 1968. pp.219-225에서 재인용.

12) 최한기(崔漢綺 1803-1877) 호는 惠岡·明南樓·浪東, 서울 南村에서 학문 연구로 일생을 보냈다.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 선각자였다. 최한기에 관한 연구로는 권오영, 『崔漢綺의 學問과 思想研究』, 集文堂, 1999; 권오영 외, 『惠岡 崔漢綺』, 淸溪출판사, 2000; 권오영 외 『崔漢綺의 哲學과 思想』, 철학과 현실, 1999; 여인석·노재훈, 『최한기의 의학사상』, 『의사학』 2, 대한의사학회, 1993; 朴性淳, 『崔漢綺의 『氣測體義』 研究』,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등이 있다.

으로 양수(버드나무 칫솔)로 황염(치석)을 제거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때의 양반들이 치석을 제거함으로써 치석에 의하여 생길 수 있는 치주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2) 중국의 西學書에 나타난 치과의학

조선에 서양 치과의학이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중국의 西學書를 통해서였다. 중국의 서학서들 가운데 서양의학을 소개한 의서들이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조선 후기 일부 인사들의 문집이나 소장도서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의서들의 목록이 보이고 있다.

중국의 西學書를 인용하여 가장 많은 西洋 齒科醫學의 지식을 알려준 것으로는 崔漢綺(1803-1877)의 『明南樓文集』이 있다.¹²⁾ 이는 그가 64세 때인 1866년에 집필한 것이다. 『明南樓文集』 1권에는 「身機踐驗」이 있는데, 여기에 서양의학에 관한 의서들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1839년 중국에 온 영국의사 홉슨(Hobson)이 역술한 解剖에 관한 『全體新論』(1851), 박물에 관한 『博物新編』(1855), 외과에 관한 『西醫略論』(1857), 내과에 관한 『內科新說』(1858), 부인과에 관한 『婦嬰新說』(1858) 이라는 5종의 의서가 그것이다.

이들 의서 가운데 치과의학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西醫略論』에는 구강외과 영역에 속하는 여러 질병의 원인과 수술법이 기재되어 있고, 『婦嬰新說』에는 유치명출과 교환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외에 치아 및 주변 조직의 해부, 생리와 병리, 그리고 치료법으로써 언청이 수술법, 아말감 및 금박 충전법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보철 및 교정학에 관한 기술은 언급되지 않았다.

홉슨이 쓴 의서 5종은 서양의학을 기술하고 있지만, 중국의학을 상당 부분 흡수한 것이었다. 치료의 이론으로 음양오행설을 배제할 뿐, 거의 중국의 의학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 약물의 분류는 중국 의서 『本草綱目』을 언급하기도 하였다.¹³⁾ 동서의 학이 만난 귀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漢譯된 서양 의서들이 전래되었다. 高宗황제의 書閣인 集玉齋에 소장되었던 서목들 중에도 서양 의서들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목에 들어있다. 이를 살펴보면 모두 11종의 서책으로, 해부학에 관한 『全體圖說』(1冊), 각과별 요점을 정리한 『全體通考』(12冊), 서양의학의 요점을 소개한 『西醫略釋』(4卷 4冊), 최신의 상류층의 고급의학인 『儒門醫學』(上·中·下 3卷), 내과의 『內科闡微』(1冊), 중두에 관한 『引痘新書』(1冊), 외과기술에 관한 『裏禁新法』(1冊), 매독과 임질의 요점을 정리한 『花柳指迷』(1冊), 안과에 관한 『西醫眼科撮要』(1冊), 화학적인 약물에 관한 『化學衛生論』(2冊), 위생 요점에 관한 『衛生要旨』(1冊) 등이다.¹⁴⁾

그리고 池錫永(1855-1935)¹⁵⁾의 소장하던 의서 목록 중에도 서양 의서의 이름이 보이는데, 고종황제의 집옥재 소장 의서와는 다른 것들이다. 이들은 각과 모두를 소개한 『西醫全科全書』(6冊), 의학 처방을 널리 모은 『醫方彙編』(3冊), 피부과에 관한 『皮膚新編』(1冊), 소아과에 관한 『兒科撮要』, 화학 입문인 『化學初階』, 산부인과의 해부학 그

13) 馬伯英·高晞·洪中立 著, 鄭遇悅 譯, 『中外醫學文化交流史』, 電波科學社, 1998. 599-607.

여인석·노재훈, 「최한기의 의학사상」, 『의사학』 2, 대한의사학회, 1993, p.67.

14) 金斗鍾, 『韓國醫學發展에 對한 歐美 및 西南方醫學의 影響』, 韓國研究圖書館, 1960. pp.82-83.

15) 池錫永(1855-1935)은 字가 公胤이며, 號는 松村이다. 1876년 제1차 수신사 김기수를 따라 갔던 朴永善에게 「種痘龜鑑」을 얻어 보고, 1879년에 釜山에 가서 日本 濟生醫院에서 種痘法을 배웠다. 1880년에는 제2차

림을 모은 『婦科精蘊圖說』, 중간된 처방을 전부 모은 『增補重印西藥大成』(16冊), 서양 이름 그대로 알려진 것들을 설명한 『藥品中西名目表』 8종이다.¹⁶⁾

중국의 西學畧를 통한 서양 치과의학의 유입은 동서의학이 만난 귀중한 사례였다. 이러한 西學畧들이 조선에 전래되어 근대화를 지향하는 개화파 인사들에 의해 연구되고 정리되었으며, 왕실에 의해서도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서양인을 통한 치과의학의 전래

1) 서양인 의사와 치과의사의 입국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한미 양국간에 국교가 수립되었다. 이때부터 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는데, 이들 중에는 의료 선교사들도 많았다. 1884년 9월 20일에 입국한 알렌(Horace N. Allen, 1858~1932)은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 온 의료 선교사였다. 알렌은 미국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에서 태어나 1883년 오하이오주에 있는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수료하고, 1884년 주한

미국공사관 公醫로 임명되어 중국 상해를 거쳐 내한하였다.

한국에 들어 온 알렌은 왕실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刺傷을 입은 민비의 조카 閔泳翊을 치료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알렌은 왕실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한국정부의 신임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인연과 신임을 기초로 그는 1885년 4월 9일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 廣惠院을 개원하였다.¹⁷⁾

이로써 알렌은 한국에 처음으로 서양의학을 전한 인물이 되었다. 이후 광혜원은 濟衆院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는 미국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력한 기반이 되었다. 알렌은 고종의 총애를 받아 한국정부의 정이품 자헌대부까지 이르렀다. 1890년에는 외교관으로 변신하여 주한 미국공사관의 서기관, 공사대리, 전권공사 등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1905년 3월 공사직에서 해임되어 귀국할 때까지 알렌은 21년간 한국에서 생활하였다.¹⁸⁾

1885년 5월 3일에 입국한 스크랜튼(Scranton, William Benton, 1856-1922)도 역시 의료 선교사

수신사 金弘集을 따라가 일본에서 중두 제조법을 배웠다고 한다. 1883년에 司憲 持平을 거쳐 刑曹參議, 承旨, 東來府使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는 『牛痘新說』을 지었으며, 1899년에 醫學校를 세워 교장으로 봉직하기도 하였다. 1905년 국문연구회를 조직하고 『新訂國文』 6조를 上疏하여 공포케 하였는데, 이는 국문 연구와 보급에 획기적인 정책이 된 것이다.

16) 김두중, 앞의 책, pp.91.

17) 제중원의 개원 날짜는 閔庚培, 『알렌의 宣敎와 近代 韓美外交』(延世大學校 出版部, 1991); 白樂濬, 『한국개신교사』(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연세대학교 백년사편찬위원회 편, 『연세대학교 백년사』 1(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등에는 4월 10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알렌 저·김원모 역, 『알렌의 일기』(단국대학교 출판부, 1991)에는 4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알렌의 일기에 따랐다.

18) 알렌에 대한 연구와 자료로는 金源模, 『알렌 研究』, 『近代韓國外交史年表』, 단국대 출판부, 1984, pp.15-44.; 『한국교회인물사 알렌』, 『한국기독교공보』 1995년 2월25일; F. H. 해링턴 저·이광린 역, 『開化期の 韓美關係』, 일조각 1991; 이만열, 『한말 서양의학수용사』, 국사편찬위원회, 1889; 閔庚培, 『알렌의 宣敎와 近代 韓美外交』, 延世大學校 出版部, 1991; 알렌 저·윤후남 옮김, 『조선체류기』, 예영, 1996 등이 있다.

19) 閔庚培, 앞의 책 pp.175-182.

였다.¹⁹⁾ 그는 1856년 5월 9일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태어나, 뉴욕 시에 있는 내과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였다. 1884년 12월 4일 목사 안수를 받은 그는 조선 선교사로 임명되었고, 이듬해인 1885년 5월 3일 한국에 왔다. 스크랜튼은 감리교 선교부의 간부로 활동하며 성서 번역에 힘썼다. 이러한 선교활동과 함께 스크랜튼은 시병원·감리교회병원·제일병원·保求女館·상동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였고, 1907년 6월에는 감리교 선교부에서 나와 독자적으로 의료 사업을 벌였다.²⁰⁾

헤론(蕙論, John W. Heron, 1856~1890) 또한 의료 선교사로 입국하여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영국 태생의 미국인으로, 1885년 6월 20일 한국에 들어왔다.²¹⁾ 헤론 역시 선교사였지만, 한국에 들어와 의료활동을 하였고, 1887년 9월 알렌의 후임으로 제중원의 책임자가 되었다. 이후 헤론은 정2품 참판까지 관직이 올랐고, 1890년 7월 26일 서울에서 사망함으로써 주한 선교사 가운데 첫 순직자로 이름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와 활동하면서, 서양의학이 한국에 전래되었다. 이들이 의료활동을 하면서, 언청이 수술을 하기도 하였다. 처음으로 치과수술을 한 여자의사는 로제타 홀(Rosetta Sherwood Hall, 1865~?)이다. 1865년 9월 19일 뉴욕 설리번 카운티에서 출생한 로제타 홀은 펜실베이니아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1890년 10월 13일 미국 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파견되었다. 그녀는 동대문 부인병원(현 이화여대 부속병원)을 경영하면서 고려대학교 의과

대학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열기도 하였고, 그 분원을 인천에 창설하여 현재의 인천기독병원과 인천간호보건전문대학에 이르게 하였다.

서양인 치과의사로 한국에 처음와 진료한 사람은 라빈손(Robinson)이다. 라빈손은 1897년에 치과 질환 치료를 위하여 한국에 출장 왔으며, 서울에서 독립신문에 광고를 내고 식자층을 위하여 치과 진료를 한 것으로 추측된다. 1903년에는 출장은 미국 치과의사 소어스(James Souers)는 주치의 분위가 입회한 가운데 고종황제께서 상실된 전치의 보철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 후 1906년 한국에 치과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감리교 선교 치과의사 한(韓大衛, David Edward Hahn, 1874~1923)이 중국에서 들어오게 되었다. 그는 필라델피아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1906년 1월 서울에 와서 치과진료소를 스크랜튼 병원 옆에 개설하였다.²²⁾ 선교 치과의사이며 구강외과의로 한국에 거주한 첫 유럽인인 그는 1년 뒤 감리교 선교 치과의사직을 사임하였다. 평양과 운산 금광까지 진료범위를 넓혔으며, 복음 전파와 애국계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²³⁾

1913년 11월 「치과의사규칙」이 반포되어 1914년 1월부터 조선총독부 면허를 발부 받아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총독부 면허 제3호’로 데이비드 에드워드 한은 면허를 받았다. 아울러 그는 1918년 12월 광고를 내고 있는 것을 보아 1919년경까지도 한국에 머무르면서 치과진료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0) 신재의, 「개화기의 의료활동(2) -스크랜튼의 연례보고서를 중심으로」,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98, pp.5-26.

21) 閔庚培, 앞의 책, pp.182-203.

22) 『대한매일신보』 1906년 1월 7일자에 “치과의사 미국인 데이비드 에드워드 한이 치과의원을 개설했다”는 광고가 있다. 3주일 후인 1월 30일에도 같은 광고가 다시 나왔다.

23) H. B. Hulbert, 『The Korean Review』 vol.6, 1906. pp.78, 160, 315, 439.; D. E. Hahn, 『Dentistry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vol.2:9, July, 1906. pp.165-166.

이와 같이 기독교 의료 선교사들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까지 깊숙이 들어가 교회는 물론 학교와 병원을 개설하여 활동하였다. 그 중에서도 의료활동이 큰 몫을 차지하였다. 이들 의료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에게 청교도정신을 심어주고, 서구 문물 전파하면서 생활상의 변화, 즉 사회 근대화를 이루어 갔던 것이다.

2) 서양인 의사와 치과의사의 활동

갑신정변 당시 자상을 당한 민영익 치료로 민씨 정권의 신임을 얻은 알렌은 그 덕분에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그것이 1885년 4월 9일 개원한 廣惠院이었다. 한국정부가 병원설비를 갖추어 주었고, 그가 서양의술로서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그는 또한 청년들에게 서양의학 및 공중위생학을 가르치기도 하였다.²⁴⁾ 이 병원은 朝鮮王室病院(His Corean Majesty's Hospital)으로 불렸다. 처음에

‘널리 은혜를 베푸는 집’이라는 뜻의 廣惠院으로 개원한 이 병원은 1885년 4월 23일 한국 정부로부터 濟衆院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이때의 국가 의료 제도는 왕과 왕실을 위한 內醫院과 의학교육과 의학행정을 담당하는 典醫監, 대민 진료기관인 惠民署와 疫病의 구료기관인 活人署가 있었다. 1882년 혜민서와 활인서가 혁파된 이후 대민 의료기관이 없는 상태이었는데 제중원의 창설로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 병원은 모든 계층의 환자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자유·평등·박애의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통한 의료활동은 계층의 파괴라는 社會史的 의미와 기독교의 전파라는 宣敎史的 의미도 갖는 것이다.²⁵⁾ 1894년 12월 16일에 내무부 위생국으로 관리가 이전되며 그 관제가 삭제되었다.²⁶⁾

알렌은 자신의 활동에 관련된 것을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 『朝鮮滯留記(Things Korean)』가 바로

24) 이때의 의학생으로는 다음의 12명의 명단이 있다. 朝野新聞 3828호, 1886년 7월 29일 木宜植 金鎮成 禹濟翬 李謙來 金震聲 崔奎星 崔鐘岳 尹鎬 秦學洵 尙淵 高濟濟

25) 제중원에 대한 연구와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H. B. Hulbert, 『The Korean Review』 vol.4, 1904. pp.486-499.

金斗鍾, 『韓國醫學發展에 對한 歐美 및 西南方醫學의 影響』, 韓國研究圖書館, 1960 pp.97-104.

李萬烈, 『基督教 宣敎 初期의 醫療事業』, 『동방학지』 제 46,47,48 합집호, 1985. pp.245-272.

백락준, 『한국개신교사』, 연세대 출판부, 1985, pp.124-129

연세대학교 백년사편찬위원회 편, 『연세대학교 백년사』 1, 연세대 출판부, 1985, pp. 19-34

李光麟, 『濟衆院 研究』, 『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閣, 1990, pp.114-146

알렌 저·김원모역, 『알렌의 일기』,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1

신재의, 『개화기의 의료활동 -알렌의 일기를 중심으로』,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6, 1997, pp.33-57.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1997. pp.75-104.

박형우·여인석, 『한국 근대의학 도입사의 쟁점』, 『연세의사학』 제2권제1호, 1998. pp.115-22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제중원 역사 관련 자료 정리』, 『연세의사학』 제2 권제1호, 1998. pp.88-114.;

김일순, 『제중원에서의 초기 의학교육(1885-1908)』, 『연세의사학』 제2권제2호, 1998. pp.239-260.;

이경록·박윤재·여인석·박형우, 『광혜원의 개원과 제중원으로의 개칭과정』, 『연세의사학』 제2권제4호, 1998. pp.479-570.;

박형우·여인석,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 『연세의사학』 제3권제1호, 1999. pp.3-81.

그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인들의 생활상과 관련되어 재미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의학 노트」 편 가운데 ‘치아’에 관한 아래와 같은 글이 있는데, 이는 서양인이 쓴 최초의 한국인에 대한 치과 기록이다.

“쌀밥 식사는 치아의 성장에 좋은 것 같다. 한국사람은 거의 누구나 훌륭한 교정기와 같이 흰 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아침에 조심스럽게 이를 닦는데 소금을 淸淨劑로 사용하고 칫솔대신 손가락 위에 소금을 놓고 치아에 비벼댄다. (중략) 하루는 어떤 사람이 치아가 몹시 아프다고 불평을 하면서 찾아왔다. 그 사람을 빨리 돌려보내기 위해 아픈 치아를 뽑아 버리자고 권하였다. 그렇게 권하면 환자들은 곧 거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놀랍게도 당장에 동의하는 것이었다. 나의 처방을 수행하기 위해 나는 능력을 다해 한번에 치아 2개를 뽑아 버렸다. 그날 늦게 내가 병원 문을 닫기 전에 그 사람이 온 것을 보고 나는 기가 꺾이고 말았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치아 1개를 썩은 치아와 같이 뽑아 버렸기 때문에 호된 욕을 먹을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아내의 치아 몇 개를 뽑아 달라고 아내를 데리고 온 것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때까지 한국사람으로

그렇게 아프지 않게 한꺼번에 치아를 2개씩이나 뽑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많은 이를 뽑게 되어 오히려 이 뽑는 일이 점점 좋아지게 되었다.”²⁷⁾

“선장이 점심을 마치고 입안을 씻고자 자신의 의치를 빼어내자, 이에 구경꾼들은 기겁을 했다.”²⁸⁾

이들 글을 통해 한국인의 좋은 치아는 쌀밥 때문이며, 한국인은 소금으로 이를 닦는다는 것과 치과 시술로 치아를 拔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식사 후 의치를 닦기 위해 입에서 의치를 빼내는 것을 보고 구경꾼들은 “조용한 은둔의 나라”²⁹⁾에 출몰한 異樣船³⁰⁾과 비교될 만큼 크게 놀랐다는 이야기이다. 놀람이 큰 것과 비례해서 수용도 빨랐다. 중국에서는 300년이 걸린 시행을 단번에 이룬 것이었다.³¹⁾

이후 알렌은 1885년 4월부터 1886년 4월까지, 만 1년간의 보고서에 蟲齒 60례 · 口內炎 55례 · 齒痛 15례, 이외에 口蓋腫瘍 1례 · 重舌 1례 · 下顎骨壞死治療 6례 · 口唇破裂 1례 · 脣裂 30례 · 口腔低에서 분리된 혀 1례 · 口腔閉塞 3례 · 頰部膿瘍 3례 · 齒牙膿瘍 5례 · 口脣潰瘍 2례 · 拔齒 15례의 수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³²⁾ 즉 한국에서의 서양 치과

26) 金亨錫 의 3인, 『韓末 西洋醫學受容史』, 國史編纂委員會, 1989. pp.28-32.

27) Horace N. Allen, 『Things Korean』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pp.201-202; 알렌 저 · 윤후남 옮김, 『조선체류기』, 예영, pp.216-217.; 알렌저 · 신복룡역주, 『조선견문기』, 집문당, pp.181-182.

28) 알렌, 앞의 책, pp.26-27.

29) William Elliot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Cheres Scribner's Sons Publishers, New York, 1885.

30) 송병기 외, 『한국인의 대미인식』, 민음사, 1994. p. 20. 서양 선박들은 그 선체나 帆竹이 한국 선박의 그것과는 완전히 구별되었다. 선체는 마치 태산과 같았고, 범죽은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다. 또 빠르기가 마치 나는 새와 같아서 조선 선박으로는 쫓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이 선박들을 '異樣船', 즉 이상한 모습을 한 배라 불렀다.

31) 馬伯英 · 高晞 · 洪中立 著, 鄭遇悅 譯, 『中外醫學文化交流史』, 電波科學社, 1998. pp.599. 중국에서는 명말에서 중화민국에 이르기까지 첫단계로 지식계는 수용, 중의계는 滙通이었고, 다음으로 보수파는 저항이었고, 마지막으로 대체였다.

32) H. N. Allen and J. W. Heron, 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 Seoul. For the Ending April 10th, 1886, Printed by MEIKLEJOHN and Co., No.26 Water Street, Yokohama, Japan, 1886. ; 박형우 · 여인석,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 『연세의사학』 제3권제1호, 1999. pp.3-81.

〈표 1〉 한말 서양인 의사의 입국과 활동 상황

성 명	입국년월일	입국 사항	의료활동	비 고
알 렌	1884.9.20	선 교	구강외과	제중원 설립
스크랜튼	1884.5.3	선 교	구강외과	시병원 설립
헤 론	1885.6.20	선 교	구강외과	제중원 근무
로제타 홀	1890.10.13	선 교	구강외과	동대문부인병원

의학은 치과의사가 아닌 일반 의사에 의해 시작된 것이었다.

스크랜튼(Scranton, William Benton, 1856-1922)은 1885년 5월 22일부터 그 해 6월 24일까지 북장로회의 알렌과 함께 제중원에서 활동하였다. 제중원을 사임한 1885년 6월 이후부터 그는 병원을 개설하면서 진료하였다.

1886년 6월 15일 고종은 스크랜튼병원을 施病院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왕립 양호원처럼 대우하였다.³³⁾ 그 후 스크랜튼은 감리교 선교부 간부로 성서 번역과 감리교병원, 제일병원, 시병원, 보구여관, 상동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였다. 그리고 1907년 6월부터는 독자적인 의료사업을 하였는데, 그는 1885년 6월 15일부터 시작한 시병원에서 4년 동안에 총 12,209명의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 가운데 치과 질환 진료로는 발치 외에 특히 아구창(구강괴저병)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³⁴⁾

헤론(蕙論, John W. Heron, 1856~1890)이 어머니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면, 그 역시 치과 진료로 턱뼈의 수술과 많은 발치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888년 6월 10일 사랑하는 어머님에게. (중략) 저는 지난 금요일에는 어그러진 지 16일이나 되는 턱뼈를 약 반시간 동안의 노력으로 바로 잡아 고쳐 주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은 수술은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15개의 이를 뽑은 일이 있습니다.”³⁵⁾

1890년대 초에는 캐나다인 여자 의료 선료사가 있었다. 이 여자 의료 선교사가 로제타 홀인데, 그는 여러 치과 질환을 진료하며 발치와 언청이 수술 같은 구강외과 치료도 하였다.

“나의 진찰 카드를 보면 50종 이상의 다양한 지병이 관찰된 것을 볼 수 있다. 연주창·매독·회충·안질·이질·피부병이 가장 많다. 췌야 할 종기와 뽑아야 할 이가 대부분이다. 8명의 환자를 치료하는데 무려 21종의 전문적인 병을 보아주어야 하였다.”³⁶⁾

“김점동(1876-1911)은 특별히 뽑힌 학생으로 시술소에서 약을 짓고 환자들을 보호하고 있었다.”³⁷⁾ 원래는 수술 보조를 싫어했으나 홀 부인의 언청이(구순파열) 수술을 목격한 다음부터 마음이 달라져 김점동

3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한국 초기선교자료집(1884-1890)』, 1998, pp.48-58.

34) 백낙준, 앞의 책, pp.129-132 ; 스크랜튼 W. B., 『미국 북감리회 연례보고서』, 『한국 초기선교자료집(1884-189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pp.42-72.

35) 신재의, 『헤론의 편지』,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8, 1999, pp.107-110.

36) 셔우드 홀 저·김동렬 역, 『닥터 홀의 조선 회상』, 동아일보사, 1984, p.76.

37) 金亨錫 의 3인, 『韓末 西洋醫學受容史』, 國史編纂委員會, 1989. pp.21-24.; 崔濟昌, 『韓美醫學史』, 영림카디널, 1998. pp.33-34.

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의사가 되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굳혔다.”³⁸⁾

이러한 미국인 의사들은 선교 목적으로 입국하여 치통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국소마취제를 사용하여 발치를 하거나 그대로 둔다면 기형으로 일생을 보내여만 하는 자를 위하여 구강외과적인 수술을 행하였다. 이 의사들은 치과외과와는 달리 보철 치료는 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의료 선교사들에 의한 치과 치료가 행해진 후 13년만에 미국인 치과외과사가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때는 대한제국이 선포된 후 독립과 자강이라는 기본 입장이 의학분야에도 나타났다. 위생국의 설치, 종두법, 환경개선과 방역 사업 그리고 의료기관의 설립과 의료인력의 양성이 그것이다. 그때에 최초의 치과외과사는 라빈슨(Robinson)이 입국하였다.³⁹⁾ 라빈슨은 1897년 중국 상해에 주재하며 출장 왔던 것이다.

“누구든지 잇병 있는 이는 상해서 온 齒齲 라빈슨씨를 찾아보고 잇병 고치고, 이 의원은 정동 병커(D. A. Bunker)⁴⁰⁾ 교사 집에 유하더라.”⁴¹⁾

다음 해인 1898년에는 해롤드 슬레이드(Harold Slade)라는 치과외과사가 왔다.

“일본 神戶에서 이 고치는 의원(齒齲) 슬레이드씨가 유람 겸 지금 대한 서울 정동 영국인 앵벌리씨 집에 와서 유하는데, 오래 유숙 아니 하고 잠깐 있다가 갈터이니, 그 동안에 이 고치려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리로 가시오. 이틀을 온통 다시 만들어 박을 사람은 상오 11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보고 조금 고칠 이는 상오 8시 반부터 하오 4시 반까지 본다니 이 고치려 하는 이는 속히들 가시오”⁴²⁾

이로 보아 해롤드 슬레이드는 개인 자격으로 한국에 온 서양인 치과외과사로 정식 치과외과원을 개설하지 않고, 유람 겸 출장 형식으로 친지 집에서 치과진료를 하였다. 진료는 주로 總義齒을 취급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1899년 10월 23일에 또 광고를 내고 있었다. 이 광고에는 11월 3일까지 서소문 이운용씨 집 옆 테목사가 들었던 집에서 진료를 한다고 되어 있고 기간도 명시하였다. 그는 그후 1905년까지 매년 가을(10월경)에 와서 봄(3월경)까지 종로에 있는 韓美電氣會社 2층에서 치과 치료를 한다는 신문광고를 내고 있었다.

1903년 가을에는 일본 神戶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치과외과 소어스(James Souers)가 내한하여 치과 진료를 하였다.⁴³⁾ 고종 황제와 황태자는 당분에 의하여 손상된 치아를 가지고 있었으며,⁴⁴⁾ 황제는 또한 식물 색소의 침착으로 색이 변해 있는 치아를

38) 셔우드 홀, 앞의 책, p.96.

39) 서양 치과외과사로서 최초로 한국에 온 사람은 라빈슨이다. 『독립신문』 1897년 1월 9일자에 그가 내한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종래의 스테이드라는 주장(奇昌德, 앞의 책 p.306)은 정정이 필요하다.

40) 병커(D. A. Bunker, 1853-1932)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이며 교육가로 育英公院에서 영어를 가르쳤으며, 후에 배재학당의 교사로 일하였다.

41) 『독립신문』 1897년 1월 9일자.

42) The Independent : 「Notice」 Vol 3, No. 22, Oct. 18th, 1898.

43) The Korean Daily news : 「Notice」 Vol 1, No. 40, Sep. 2, 1904.

44) 리하르트 분쉬 저·김종대 역,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쉬』, 학고재, 1999, p.195. 1902년 11월 8일 (전략) 황태자는 어색한 태도로 나에게 몸을 돌려 입을 짹 벌이더니 호박구슬(옛)을 입속에서 이리저리 굴렸다. 황제도 역시 입에 호박구슬을 넣고 굴려댔다. 황제와 황태자의 치아가 시커멓게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황태자의 치석을 치료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갖고 있었다.⁴⁵⁾ 미국인 치과의사 소어스는 고종황제의 상실된 치아를 보철하였다.

황제폐하께서 조개를 드시다가 돌을 씹어서서 흔들리던 치아가 부러졌다. 치아는 제거되고 새로운 치아를 소어스 치과의사가 제작하였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그때에 서울에 있었다. 소어스는 미국 치과의사로 동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직업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곤 하였다. 그는 한국인의 저작 기능을 향상시키는 보람된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간혹 불만족인 경우도 있으나 황제를 포함한 대다수가 바람직한 태도로 치료를 받았다. 황제는 소어스 치과의사의 치료에 만족해서 1000엔을 지불하기도 하였다.⁴⁶⁾

또한 고종의 주치의 분쉬의 1903년 11월 8일자 일기이다.⁴⁷⁾

“바로 일주일 전, 그러니까 일요일 밤에 황제의 앞니가 하나 빠져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날 밤 나는 케겔씨 송별연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궁으로 불려갔다. 새벽 2시에 내가 궁궐 앞에 다다랐을 때 손탁 여사댁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전해 받았다. 바로 그 소식이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인 치과의사에게 전보를 보냈고 화요일에야 그가 황제를 진료할 수가 있었다. 그 의사는 사기질 치아를 만들어 금침쇠로 붙였는데, 나는 금침쇠를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치과의사는 황제의 입안에 셋지도 않은 손을 휘저으면서 ‘폐하’ 혹은 ‘황제 폐하’라고 말을 붙였다. 다 만들어진 두 개의 이빨 가운데 하나가 꼭 맞았다. 이빨을 끼워 맞추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황제는 놀라울 정도로 명칭해 보였다. 황제는 일본 천황도 미국인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 의사에게 1,000엔을 지불했다. 그리고 나

〈표 2〉 한말 서양인 치과의사의 활동

성명	진료시기	의료활동	주진료지	비고
라빈슨	1897.1.9.		상해	최초의 미국 치과의사
슬레이드	1898.10.18.	의치	神戶	1905년까지 출장진료
소어스	1903.11.8.		神戶	고종황제의 의치제작
니이	1904.9.6.		橫濱	
한	1906.1.7.	무통발치, 보철	서울	치과의학교 설립계획

45) G. N. 커즌 저·라종일 역, 『100년 전의 여행 100년 후의 교훈』(원제 : 『Problems of the Far East』), 비봉출판사, 1996. p.118. 황제의 이빨은 구장잎(鉤樟나무 잎은 향이 나며 성분은 타피네와 칼폰이다)을 씹은 결과로 색이 변해 있었다. 그는 나와 면접하는 동안 내내 구장잎 한 조각을 씹고 있었다.

46) H. B. Hulbert, 앞의 책 vol.3, 1903. pp.503-504.

47) 趙英烈 외 3인, 『韓末 西洋醫學受容史』, 國史編纂委員會, 1989. pp.218-225.

분쉬(Richard Wunsch, 1869-1911)는 독일 히르슈베르그에서 출생했고 1894년 그라이프스발트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도쿄대학 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벨츠 박사의 주선으로 1901년 11월 고종의 侍醫로서 한국에 와서 4년 가까이 일하면서 민간 의료 봉사에도 관심을 가졌다. 러일전쟁 직후인 1905년 4월 일본으로 건너가 벨츠 박사의 후임 자리를 기다렸으나 여의치 않아 유럽으로 돌아갔다. 1908년 독일 조차지였던 중국 청도로 가서 활동하다가 1911년 장티푸스에 걸려 41세의 나이로 그 곳에서 생을 마쳤다.

48) 리하르트 분쉬, 앞의 책, pp.207-208.

에게 독일에서 치과의사를 데려오라고 제안해 그렇게 하려고 한다.”⁴⁹⁾

그때 한국에 불리어 온 미국인 치과의사 소어스에 의해 행해진 것이 초보적인 보철 시술이었다. 비록 황제라 할지라도 비위생 상태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시술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1904년에 단기간이나마 제물포의 스테워드호텔에서는 일본 橫濱에서 개업중인 치과의사 니이(Daniel B. Nye)가 치과 진료실을 갖추고 출장 형식의 치과 치료를 하기도 하였다.⁴⁹⁾ 그러나 그의 자세한 치과 진료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이들 출장은 미국인 치과의사들은 신문에 광고를 내어 보철 환자를 치료하였다. 이는 그들이 치료한 환자들은 신문을 볼 수 있었던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환자의 대부분이 상류층이었을 것이므로 치료비를 비싸게 책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종 황제의 보철 치료에 1000엔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지불된 것은 이러한 사실은 말해주는 것이다.

1906년 1월에 한국 서울에 와서 최초로 주재하면서 스크랜튼 병원 옆에서 치과진료소를 개설한 치과의사는 한(韓大衛, David Edward Hahn, 1874-1923)이다.⁵⁰⁾ 선교 치과의사이며 구강외과의사인 그는 평양과 오산 금광까지 진료범위를 넓혔으며, 치료비가 비싸다고 말을 듣기도 하였다. 그는 1년 뒤 감리교 선교 치과의사직을 사임하였다. 그는 치과의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세브란스병원의학교가 1909년 7월 한국정부로부터 인가된 직후에 발표하기도 하였다.⁵¹⁾

“醫敎 創立, 미국 치과의사 한대위씨가 경성 남대문 내 자기 사택에 齒醫학교를 병설하고 한국학생을 교육하는데 此학교서는 장차 남문의 제중원과 연합병원 할 터이오 학원의 신건축이 充備되면 此학교는 학원 내에 移附하고 또 학원에는 치과부를 증설한다더라. 韓大衛氏의 學校設立을 賀하노라”⁵²⁾

그러나 일본 통감부의 한국 식민지 보건의료정책에 의해 한국인을 위한 한대위의 치과의학교 설립안은 무산되고 말았다. 일본은 한국인 치과의사를 양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중원의 의학교육에 이어 치의학 교육에 있어서 까지 미국에게 기선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⁵³⁾

서울은 주재하는 치과의사 한(Hahn)이 오히려 축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몇가지 질이 안 좋은 소문이 떠도는데 그것은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는 거리가 멀게 개인적인 관찰로 알려진 것이다. 주재하는 치과의사로서 출장은 치과의사보다 더 짙은 요금을 받았다. 우리는 이러한 부인하는 일이 최대로 알려져 받아드려지기를 바란다. 한은 치과의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려고 심사숙고 하고 있다. 이 책의 다음 출판에는 이 일에 재미 있고 가치 있는 구체적인 것이 대중에게 알려지기를 기대한다.⁵⁴⁾

치통치료, 무통발치, 충치 및 치단치료, 금치호막치, 세자치, 금브래릿, 호막브래릿 등이 치료의 내용이다. 치료한 내용은 그 당시에는 최고급 치료였으나 치료비가 비싸다고 말을 듣기도 하였다.⁵⁵⁾ 그

49) The Korean Daily news : 「Notice」 Vol 1, No. 44, Sep. 6, 1904.

50) 기창덕, 앞의 책, p.307.

51) H.B.Hulbert, 앞의 책 vol. 1906. pp.315.

52) 「大韓每日申報」 1909년 10월 30일자 「醫敎創立」.

53) 이주연, 「우리나라의 서양식 치과치료 도입에 관한 연구1」, 「연세의사학」 제3권제2호, 1999. pp.148.

54) H. B. Hulbert, 「The Korean Review」 vol.6, 1906. pp.315.

러나 그가 1년 뒤 감리교 선교 치과의사직을 사임하며 치과의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의 무산은 그 자신에게도 일부분이나마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었다. 그후 그는 복음 전파와 애국계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서양 치과의학은 치통으로 고생하는 한국인에게 국소마취제를 사용하여 치료하므로써 통증을 제거하였으며, 특히 무통발치는 서양의학에 신뢰감을 더하게 하였다.

義齒을 보고 놀란 한국인들에게 꿈에서나 ‘이 빠진데 박씨 박기’를 원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출장으로 한국에 온 미국인 치과의사의 의치의 제작은 고종황제의 의치를 금접쇠로 만들기도 하였다.

이들은 모든 계층을 진료함으로써 자유·평등·박애의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고, 그에 의한 사회적 변화까지 이루어 갔다. 또한 이들은 높은 벼슬과 신임을 바탕으로 의사의 신분 상승을 가져오게 하였다. 제중원은 최초의 근대적 병원이며 의학과 치과의학 전래의 중요 기관이 되었다.

4. 일본인을 통한 치과의학의 전래

1) 일본인 치과의사의 입국

1876년 체결된 강화도조약으로 일본과 국교가 수립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들어 왔다. 조선에서의 개한 일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1893년 6월경 인천에 거주하는 일본인 수는 약 1천명이었다. 특히 일제가 임오군란·갑신정변 등 정치적 변

란을 침략의 계기로 악용하고, 1894년 청일전쟁을 통해 한국 내에서의 정치·경제·군사적 침략을 강화함에 따라 재한 일본인수는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1894년 1월의 통계에 의하면 인천(제물포)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4,000명을 육박하고 있다. 이는 아래 <표 3>과 같이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90%에 해당하며 인천 거주인 전체(조선인 추정치 포함)의 35%에 해당되는 것이다.

나아가 러일전쟁 직후인 1904년 2월 「한일의정서」를 강제 체결하면서, 일제는 한국주차군의 사령부를 용산에 두고 전국 주요 도시와 요새지를 완전 장악하여 갔다. 그리하여 1905년 10월경에는 2개 사단 약 2만명 병력이 한국에 주둔하였는데, 이는 일본군 전체 병력의 11.7%나 되는 것이었다.⁵⁶⁾ 이 시기인 1905년 9월 일제의 ‘한국주차군’ 사령부에 촉탁 치과의사가 최초로 배치되기도 하였다.

<표 4>에서 보면 일본인수는 1906년에 통감부가 설치된후 영사관이 이사청으로 바뀌며 81,754명에서 1910년에 171,543명으로 약 2배의 증가를 보인다. 같은 시기 외국인수는 약 3배, 의료종사자수는 약 10배의 증가를 보였다. 일본은 한국침략·한국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征韓論, 脫亞論, 大아시아主義로 무장되어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의료체계가 한국에 도입 되었다.⁵⁷⁾ 이 의료체계는 한국인을 위한 자주적인 근대 의료 활동이 좌절되게 했고 일본의 치과의학의 수준 이하로 수준이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즉 이때의 병의원수는 37개에서 125개로 약 3.5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06년 목포에서는 일본인 남자 1,172명과 여자 848명으로

55) 京城府, 『京城府史』 1-3, 京城府, 1934. pp.696-697.

1900년의 일개월간의 하숙비가 20원에서 30원 할 때에 쌀은 한 되에 16전에서 28전이었고 일본인사의 진단료는 일회에 5원이었으나 영국이나 미국의 의사는 5원에서 10원을 받았다. 의사의 왕진료는 일본인 의사는 60전에서 1원을 받았으나 구미 의사는 5원에서 10원을 요구하며 교통비는 별도로 요구 하기도 했다.

56) 柳漢喆, 「日帝 ‘韓國駐劄軍’의 韓國 侵略過程과 組織」,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집, 1992, pp.132-168.

57) 旗田 巍, 『日本人의 韓國觀』, 李基東 譯, 一潮閣, 1997. p.17-43.

〈표 3〉 개항장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1897년 1월 현재)

	제물포 거주	부산거주	원산거주
일본인	3,904	5,508	1,299
중국인	404	34	39
영국인	15	10	2
독일인	12	2	3
미국인	7	7	8
프랑스인	7	1	2
노르웨이인	3		1
그리스인	3		
이탈리아인	1	1	
포르투갈인	1		
덴마크인		1	1
러시아인			2
합계	4,357	5,564	1,357
조선인 추정치	6,756	33,000*	15,000

출전 : I. B. 비숍 저·신복룡 역,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p.441.

총 2,020명 거류민 중에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사 11명, 산파 1명, 약포 7명, 간호부 1명으로 모두 20명이었다. 약 100명을 한 사람의 의료인이 담당하는 비율이었다.⁵⁸⁾

1910년에는 125개 병의원 가운데 한국인이 14개, 일본인이 102개, 외국인이 9개를 소유하였다. 의사는 1,738명 가운데 한국인이 1,344명, 일본인이 368명, 외국인이 26명이었다. 그밖에 산파, 간호부, 약제사, 약중상, 제약자가 3,476명이었다. 즉 한국인 1,344명의 의사는 대부분이 병의원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⁵⁹⁾

2) 일본인 치과의사의 활동

1876년 강화도체결 후 개항장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의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이들 재한 일본인들을 위하여 일본 해군 군의인 야노 노리사무(矢野義徹)가 부산에 개설한 것이 濟生醫院이다. 제생병원은 1877년 2월 11일 설립된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최초의 병원이다.⁶⁰⁾ 이는 재한 일본인을 위해 설립

〈표 4〉 한말 연도별 한국인·일본인·외국인·의료종사자수와 병원수

년도	한국인	일본인	외국인	의료종사자	병의원수
1906	9,781,671	81,754	4,290	503	37
1907	9,781,671	98,001	8,418	610	46
1908	9,781,671	126,168	10,727	855	82
1909	12,934,282	146,147	10,427	1,075	82
1910	13,128,780	171,543	12,694	5,214	125

출전 : 『통감부통계연보』와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서 작성

58) 靑柳南冥, 『南韓之實業』, 嵩山堂, 東京: 1906, pp.116-124.

59) 조선총독부, 『1910년도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12, p.59, p.503.

60) 未發刊文書; 『釜山府史原稿』 6, 민족문화, 1982. pp. 107-113, 130-132, 314-316, 421. 金承台 외 3인, 『韓末西洋醫學受容史』, 國史編纂委員會, 1989. pp.79-84.

신재의, 『釜山 日本 濟生醫院에 대한 資料』,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8, 1999, pp.103-106

한 것이지만, 진료는 한국인에게도 개방되었다. 이 때는 일반의학과 치의학의 뚜렷한 구분이 없었으며, 외과의 한 부분으로 치과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⁶¹⁾ 1883년 4월에 육군 군의 고이케(小池正直)가 제생의원 원장으로 부임하였고, 그는 『鷄林醫事』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 책에 의하면 “2년간에 1,665명의 환자 중 齲齒환자가 2명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충치가 없다”고⁶²⁾ 하였다. 제생의원의 告示에는 진료 수가가 기록되어 있어 일정한 수입 이상이 되는 사람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⁶³⁾

치과의원도 일본인이 처음 설립하게 되었다. 처음 개업한 치과의사는 노다 오요지(野田應治, 1871-1930)이다.⁶⁴⁾ 1893년 6월경 인천에 거주하는 일본인 수는 약 1천명이었고, 그는 이들을 대상으로 개업한 것이다. 이듬해 그는 개업 장소를 서울로 옮겼다. 당시 서울 인구는 약 20만 명이었고,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수는 약 5백 명이었다. 노다 치과의원 주위는 모두 한국인 주택이었다. 더욱이

노다 치과의원만이 2층 건물이었기에, 한국인들의 투석(投石) 대상이 되었다. 특히 그가 개업한 시기가 일제가 한국 내정에 적극 개입하여 갑오왜란을 일으켜 김홍집 내각을 세우고, 친일 개화정책을 수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따라서 병원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워 몇 달만에 일본인 거주지인 진고개(泥岬)로 다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노다 오요지는 치과 진료를 처음 시작하였으므로 병원에서 취급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는 진료소 입구에 진열장을 마련하고 치과에서 취급되는 각종 보철물을 전시하였다. 치과 치료와 관련한 그림이나 실물을 전시함으로써 환자들의 이해를 돕게 되고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치과 의학을 이해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해박는집’이라는 간판에는 總義齒의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 되기도 하였다.

노다 오요지는 1896년 親衛隊 兵卒募集 때에 신

61) 일본에서는 1875년 2월 10일 醫制의 의무조례에 따라 「醫術試業規則」이 나왔고, 10월 2일 이 규칙에 따라 근대 일본 최초의 치과개업 면허를 오하다 히데노스케(小幡英之助)가 받아 치과 분림이 이루어지지 시작하였다. 그리고 1888년 東京齒科專門學院이 최초로 생겼는데, 이 학원은 기록상 일본 최초의 서양 치의학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이는 共立齒科醫學院으로 개명되었다가 폐교되었다. 그후 다시 日本齒科醫專門學院이 발족하였는데, 그 시기는 1900년대로 들어섰을 때이다.

62) 기창덕, 앞의 책, p.264.

63) 石幡 貞, 『朝鮮 歸好餘錄』, 日就社, 1888, pp.3-5. 제생의원 原則 三條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치료는 매일 아침 10시에 시작하고 12시에 휴진하며, 오후 1시에 재개하여 오후 3시에 완전히 끝낸다. 단, 이달 11일부터 개원하여 매 7일마다 1일씩 휴진 한다.

제2조 藥價는 매 1일마다 한국인은 모름지기 한국돈 3분에서 20분까지를 납입하여야 하고, 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빈부의 차가 있으니 극빈하여 이것을 감당기 어려울 때에는 돈이 생겼을 때 납부하여도 좋다. 일본인은 매일 꼭 금 3전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매월 15일은 痘術을 施種한다. 수가는 필요없다.

1877년(명치10년) 2월 10일

주한국국 부산항 제생의원장 야노 노리사무(久野義徹)

64) 大澤義誠, 『朝鮮齒科界變遷物語』,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 1960, pp.80-81. 노다 오요지(野田應治, 1871-1930)는 한국에는 정규의 서양 치과의학 교육을 받은 의사가 없음을 알고 치과의사가 되길 결심하였다. 1891년 일본 유일의 치과학교인 高山齒科醫學院(現 東京齒大)에 입학하고, 1893년 5월 일본 내무성 치과기술 개업 시험에 합격하여 정규 치과의사 면허장을 받고 인천으로 다시 왔다.

체 검사 요원으로 구강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한국인들의 구강 상태는 양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치아를 습관적으로 잘 닦은 까닭에 충치는 극히 적었다. 중류 이하의 사람이라도 식후에는 습관적으로 충치를 닦았다. 한국인들은 소금을 이용하여 치아를 닦았다. 당시 한국인 응모자 1백 명 가운데 충치를 가진 자는 단지 17명 뿐이었다. 그리고 치아가 1~2개 손실된 사람이 11명, 매독으로 치아가 이상이 있는 자가 3명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은 18~30세의 청장년층이었다.

노다 오요지는 환자의 대부분에게 발치를 하였다. 그래서 보철을 해야 했는데, 한국인은 금으로써 보철하는 일을 기피하였기 때문에 대개 義齒의 크라스프는 백금을 사용했다. 의치를 장착한 사람도 의치가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였다. 그는 총의치·국부의치·금관·가교의치와 같은 보철, 치수 치료·충전 등 보존 분야, 발치와 같은 구강외과도 진료하고 있었다. 총의치는 고무상의 치를 제작하고 있었고, 보존치료에서는 아말감충전도 있었지만 금을 사용할 때는 금박충전을 하였으며, 마취는 푸로카인으로 시술 직전에 직접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이 국소마취제에 들어 있는 혈관 축소제의 작용으로 “푸로카인 쇼크”로 생명의 위험을 받을 때도 있었다.

노다 오요지는 1904년 露日戰爭이 일어나자 일본 육군의 허락을 받아 自費로 종군하였다. 그 기간은 약 1년이었고, 치료한 환자 수는 5천명에 이르렀

다. 1909년부터 그는 일본인 초등학교 학생 구강 검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교사와 학부형 및 학생에게는 구강 위생 강연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였다. 이로써 서울에서 일본인 학생들에게 學校 齒科保健사업이 실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15년 일본인으로 조직하고 있던 경성치과의사회 회장이 되었다.⁶⁵⁾

일본인들이 치과진료 활동은 노다 오요지에 이어 계속되어, 1897년경 후카에(深江尙弟)가 부산에서 개업을 하였다.⁶⁶⁾ 그리고 1902년에는 입치업자 고바야시(小林)가 처음으로 충무로에서 개업하였는데, 백금 혹은 금으로 하는 보철이 주요 업무였다. 그 다음이 미나미치(水道)로 1904년에 목포에서 개업하였다.

일제는 러일전쟁 직후인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여 한국을 사실상 반(半)식민지 국가로 만들어 갔다. 즉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지방에는 각지 영사관을 理事廳으로 개편하여 지방행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여 갔다. 자주적인 근대의료체계는 무너지고 이사청령으로 지방별로 「入齒 齒拔 口中療治 營業者 취체규칙」을 제정하고, 이 규칙으로 지방경찰서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도 치과에서 조력한 경력증명서만으로 입치영업을 허가하였다.⁶⁷⁾

종합병원의 치과에도 입치업자들이 진료를 하였을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식민지 동화정책으로 慈惠醫院이 설립되고 그 과반수에 치과부가 있었

65) 大澤義誠, 앞의 논문, pp.76-91.

66) 深江尙弟: 「朝鮮國釜山通信」 『齒科學會報』 77號, 1897. pp.51-53.

67) 기창덕, 앞의 책, p.312.

68) 金承台 외 3인, 『韓末 西洋醫學受容史』, 國史編纂委員會, 1989. pp.120-129.;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1997. pp.363-373.

慈惠醫院은 을회 3년(1909) 법률 제25호 「자혜의원특별회계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청주와 전주의 자혜의원은 그해 12월, 함흥자혜의원은 다음해 1월에 개원 하게 되었다. 을회 4년(1910) 7월 21일에는 전국 13도에 자혜의원을 설치하였다. 일본의 현역 육군의 군의관이 일하였고, 후에 도립병원으로 이어졌다.

〈표 5〉 한말 일본인 치과의사의 활동

성명	입국연월일	개업연월일	활동사항	비고
野田心治	1887	1893.6.30	발치, 의치	자비중군 최초 개업치과의사
深江尙弟	1897	1897		부산에서 개업
重城養二	1904	1904		최초의 병원치과의사
飯塚徹	1905	1907.2	순종진료	重城養二후임
樞崎東陽	1905.9.10	1906.6	伊藤博文架工齒	한국주차군 동인의원
注連内堅石	1906.6	1909		한국주차군 동인의원
中村安子	1909	1909		여자치과의사

다.⁶⁹⁾ 1911년 대구자혜의원 치과부에 동경치과 출신인 가네코 히데시(金子英志)가 왔다. 그는 여러 자혜의원 치과부 가운데 유일한 유자격자였다. 이때까지는 거의 무자격자가 외과의 일부로 낮은 수준의 진료하고 있었다. 또 입치업자의 수가 치과의사의 수배에 달하였다. 이렇게 입치업자의 허가가 무제한이었고, 법적으로도 관대하여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입치업자들이 영리 목적으로 입치업을 함으로써, 입치업자와 치과의사를 동일시하고 치과진료를 상행위로 간주하는 잘못을 초래하기도 한 것이다.⁶⁹⁾

한국인도 입치업을 개설하게 되었다. 일본인들은 치과진료를 시작한 후부터 한국인에게도 진료를 개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수로 한국인을 고용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한국인 중에는 일본인으로부터 서양 치과의술을 배운 자가 생겼다.⁷⁰⁾ 한국인으로는 崔承龍이 1907년 서울 종로에서 처음 개설하였고, 뒤를 이어 安重秀·金漢杓·金敬執·申正休

등이 서울에서 ‘치술원’ ‘이해박는집’ 등의 간판을 걸고 치과진료, 간단한 보철물을 제작하는 입치업을 하였다. 순종에 장례식 때에 보여지고 있는 ‘이해박는집’ 사진은 전통치과의학에서는 할 수 없었던 보철을 서양치과의학이 전래된 이후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진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육군의 한국주차군 사령부에 촉탁 치과의사가 최초로 배치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그가 1905년 9월 부임한 나라사끼 도요오(樞崎東陽)이다.

그는 부임 3일만에 진료를 시작했다. 오전에는 병사 20명 내외를, 오후에는 사령관·참모장·각 부대장·장교를 진료한 것이다. 어느 날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架工齒도 만들었고, 각국 주재 공사들과 한국 대관들을 치료하는 등 매우 분주했다. 1906년에 사임한 그는 그해 6월 서울 남산(南

69) 大澤義誠, 앞의 책, pp.79-80.

70) 殷仲基, 「한말의 치과업계에 대하여」,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 1960, pp.70-71.

71) 樞崎東陽, 「한국치과의계의 추억」,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 1960, pp.72-75. 이민들은 앞을 다투며 도래하였다. 일본인의 가옥 건축은 하루 3백 채라는 형편이었다. 1906년 2월에 평양을 갔다. 평양은 참으로 황량한 모습이였다. 개업한 치과의사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 해 4월 중순 경성으로 귀임하였고, 육군을 곧 사직하고 개선하는 군사령관의 일행을 따라 동경으로 돌아왔다.

山, 現 會賢洞 三街)에서 개업하였다. 그의 후임으로는 시메우치 겐세키(注連内堅石)가 왔는데, 그 또한 1909년 사임하고 개업하였다.⁷¹⁾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병원을 매입해서 운영하기도 하였다. 한성병원이 그러한 경우이다. 한성병원은 1895년에 일본인 세와키(瀬脇壽雄)가 설립했던 것을 1897년 6월 일본 해군에서 매입해 운영한 것이다. 이 병원은 1904년 경성일본인거류민단에 이관되면서 단립(團立) 한성병원으로 개편되었다. 이때 齒科部도 외과 소속으로서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최초 병원 치과의 시작이다. 초대 치과 책임자는 시게시로 야스지(重城養二, 1872~?)였다. 그는 외과 과장의 지도와 감독 아래 진료를 담당하였다.

그후 공립 종합병원으로 운영되면서 치과부장으로 치과의사 이즈카 오사무(飯塚徹)가 왔다.⁷²⁾ 1905년 그는 사임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1907년 2월 서울에 다시 와서 치과의원을 개원하였다. 이즈카 오사무는 純宗皇帝의 치과 질환을 치료하였다. 純宗實錄에 의하면, 순종은 1910년 12월 7일에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⁷³⁾ 하는데 이즈카가 맡았던 것 같다. 1910년 한성병원이 대한의원으로, 다시 조선총독부의원이라 개칭되었는데, 齒科부에 부임한 사람은 와타나베 사다스케(渡邊正亮)였다.⁷⁴⁾

일본인 단체에서 설립한 병원도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자의 전위 단체 東亞同文公司의 동조 단체인 東亞同文醫會가 있었는데, 이 단체가 亞細亞醫會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同仁會를 조직하였다. 중국 및 기타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하여 의학·약학, 그리고 여기에 부수되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아시아 諸國 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병고를 구제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이들 나라의 문화에 공헌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⁷⁵⁾

이 동인회 산하 용산 동인의원에는 외과 소속으로 치과부가 있었다.⁷⁶⁾ 그 초대 치과 담당자는 나라사키 도요오(樞崎東陽)였다. 1910년 전후의 치과 담당자는 非常勤이던 시메우치 겐세키(注連内堅石)였고, 이 때에는 그의 감독 아래 무자격자이던 사노 후미오(佐野史郎)가 진료했다.

일본인 여자가 치과 병원을 개업한 경우도 있었다. 1909년에 나카무라 야스코(中村安子)가 그였다. 그는 미국 펜실바니아 치과대학을 졸업한 여자 치과의사였다.⁷⁷⁾ 1909년 전후 일본인으로 개업한 치과의사는 나카무라 야스코를 포함하여 노다 오요지·나라사키 도요오·시메우치 겐세키·이즈카 오사무 등 5명이었다. 이들 5인의 일본인 치과의사들은 1912년 1월 16일 경성치과의사회를 조직하여 벌써부터 자신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시작한

72) 京城府, 『京城府史』 1-3, 京城府, 1934. pp.750.

73) 『純宗實錄』 1910년 12월 7일(음력 경술 11월 6일) 齒科醫飯塚徹入診以齒部靡寧治療也.

74) 京城府, 『京城府史』 1-3, 京城府, 1934. pp.115, 318, 322, 324, 636, 637, 722, 748-750, 772, 794, 806, 1027.; 金承台 외 3인, 『韓末 西洋醫學受容史』, 國史編纂委員會, 1989. pp.100-103.;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 1997. pp.338-363. ; 李忠浩, 『韓國醫師教育史研究』, 國學資料院, 1998. pp.61-77.

75) 金承台 외 3인, 『韓末 西洋醫學受容史』, 國史編纂委員會, 1989. pp. 103-107, 116-120. ; 李忠浩, 『韓國醫師教育史研究』, 國學資料院, 1998. pp.39-46.

76) 京城府, 『京城府史』 1-3, 京城府, 1934. pp.1038.

77) 樞崎東陽, 앞의 논문 p.74.

78) 李漢水, 『한국치과의사연대표』,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 1960, p.116.

79) 旗田 巍, 『日本人의 韓國觀』, 李基東 譯, 一潮閣, 1997. p.17-43.

것이다.⁷⁸⁾

일본인 치과의사는 침략의 앞잡이로 재한 일본인과 일본군의 치료를 위해 입국하였다. 일본은 한국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태에서 일본의 의료체계가 한국에 도입되었다.⁷⁹⁾ 이러한 일본의 의료체계가 한국인의 자주적인 근대 의료 활동이 좌절되고 일본의 치과의학의 수준 이하로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수준 높은 의료는 지배층인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으며, 일부 한국인에게 제공된 의료는 시혜의 성격이 강했으며, 경찰과 헌병을 앞세운 방역 활동은 일반인의 일상을 감시와 탄압의 성격이 강했다.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입국할 시기에는 이미 많은 수의 入齒業者도 함께 입국해 있었다. 이들은 학문적인 연마 없이 간단한 기공만을 배워 영리를 목적으로 입치업을 해서 치과진료를 격하시키며, 또한 상행위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을 초래하게도 하였다. 이 시기 拔牙은 일반화되어 ‘푸로카인 쇼크’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부산에서 재한 일본인들을 위해 설립된 제생의원은 치과의학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 한국 최초의 개업 치과의사는 노다 오요지였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서양 치과의학이 한국에 전래되는 과정을 중국·일본·서양 의사와 치과의사의 입국과 그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의서는 『鄉藥救急方』·『鄉藥集成方』·『東醫寶鑑』이고, 여기에는 치과 치료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전통 치과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음양오행설에 의거하였다. 질병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은 『동의보감』이 『향약집성방』보다 앞섰고, 치아 주위조직의 병증을 매우 간략하게 분류하여 실제 임상에도 적용하기에 편리하였다.

전통 치과의학의 치료법은 증상에 따라 약물을

복용케 하고, 치아와 그 주위조직에 고통을 피하려 했으며, 치아 그 자체의 보존만을 하려 하였다. 발치를 해야 할 경우까지도 약물을 사용하며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지 않으려 했다. 다만 심한 화농성 질환에만 칼로 피를 뽑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과적 시술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充填法은 『향약구급방』과 『향약집성방』에서 사용되던 것이 『동의보감』에서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사용되던 재료와 시술의 불완전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도태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전통의서의 처방과 약재는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서학서를 통한 서양 치과의학의 유입은 동서의학이 만난 귀중한 사례였다. 즉 중국의 西學書들이 유입되어 근대화를 지향하는 개화파 인사들에 의해 鄉藥과 같이 연구되고 정리되었으며, 왕실에서도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인 일반 의사와 치과의사는 기독교 선교의 한 과정으로 입국하였다. 이 시기는 일반 의사와 치과의사가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의사들은 국소마취제를 이용하여 無痛 拔牙하고, 평생을 기형으로 불편하게 살 수 밖에 없는 환자들에게 구강외과적 시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하였다. 이들은 국왕을 비롯한 천민까지 모든 계층을 진료함으로써 자유·평등·박애의 기독교 사상을 전파하고, 그에 의한 사회적 변화까지 이루어 갔다. 또한 이들은 높은 벼슬과 신임을 바탕으로 의사의 신분 상승을 가져오게 하였다. 제중원은 최초의 근대적 병원이며 의학과 치과의학 전래의 중요 기관이 되었다. 데이비드 에드워드 한에 의해 계획된 치과학교 설립안은 식민지 보건 의료정책의 한계와 일부 자신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무산되었다.

일본인 치과의사는 재한 일본인과 일본군의 치료를 위해 입국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의료체계가 한국에 도입되었다. 일본의 의료체계가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다. 일부 한국인에게 제공된 의료

는 시혜의 성격이 강했으며, 경찰과 헌병을 앞세운 방역 활동은 일반인의 일상을 감시와 탄압의 성격을 띠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의료체제로 인해 한국인의 자주적인 근대 의료활동은 좌절되었고, 일본인의 치과의학 수준도 일본의 그것과 비교해 수준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입국할 시기에는 이미 많은 수의 入齒業者도 함께 입국해 있었다. 이들은 학문적인 연마 없이 간단한 기공만을 배워 영리를 목적으로 입치업을 해서 치과진료를 격하시켰다. 또한 상행위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拔牙은 일반화되어 ‘푸로카인 쇼크’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부산에서 재한 일본인들을 위해 설립한 제생의원은 치과 의학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 한국 최초의 개업 치과의사는 노다 오요지였다.

서양 치과의학이 들어온 후 전통 치과의학은 빛을 잃었다. 무통 발치, 구강외과 수술, 거의 완전한 충치과 의치 등 보철 치료는 전통 치과 의학을 일시적으로 학문의 길에서 제외시켰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치과 의학을 포함한 의학이 생명을 탐구함을 목표로 한다면, 그 목표를 추구하는 길에서 전통 치과 의학의 여러 특징도 서양 치과 의학과 함께 조사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 길에서 전통 의학과 서양 의학의 상호 보완점을 발견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參 考 文 獻

1. 資料

『독립신문』

『統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韓每日申報』

京城府, 『京城府史』 1-3, 京城府, 1934.

未發刊文書, 『釜山府史原稿』 6, 민족문화, 1982.

大邱府, 『大邱府史』, 大邱府, 1943.

仁川府, 『仁川府史』, 仁川府, 1933.

全州府, 『全州府史』, 全州府, 1943.

群山府, 『群山府史』, 群山府, 1935.

木浦誌編纂會, 『木浦誌』, 木浦, 1934.

古莊仁太郎, 『平壤全誌』, 平壤商業會議所, 1927.

高尾新石衛門, 『元山發展史』, 啓文社, 1916.

『順菴集』

『鄉藥救急方』, 日本政府宮內廳所藏 原本 撮影

『鄉藥集成方』, 杏林書院, 1942

『東醫寶鑑』, 奎章閣 所藏本

국사편찬위원회, 『純宗實錄』, 1956.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196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초기선교자료집』 (1884-1890), 1998.

리하르트 분쉬 저·김중대 역, 『고종의 독일인의 사 분쉬』, 학교재, 1999.

알렌 저·김원모 역, 『알렌의 일기』,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1.

Horace N. Allen, 『Things Korean』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pp.201-202; 알렌 저·윤후남 옮김, 『조선체류기』, 예영.; 알렌저·신복룡역주, 『조선견문기』, 집문당.

서우드 홀 저·김동렬 역, 『닥터 홀의 조선 회상』, 동아일보사, 1984.

G. N. Curzon 저·나종일 역, 『100년 전의 여행 100년 후의 교훈』, 비봉 출판사, 1996.

H. B. Hulbert, 『The Korean Review』 vol.1-6, 1901-1906.

『The Korea Mission Field』

2. 著書

강만길, 『고쳐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94.

權五榮, 『崔漢綺의 學問과 思想 研究』, 集文堂, 1999.

- 권오영 의 『惠岡 崔漢綺』, 淸溪출판사, 2000.
- 奇昌德, 『韓國齒科醫學史』, 아카데미아, 1995.
- 奇昌德, 『韓國近代醫學教育史』, 아카데미아, 1995.
- 金斗鍾, 『韓國醫學發展에 對한 歐美 및 西南方醫學의 影響』, 韓國研究圖書館, 1960.
- 『韓國醫學史 全』, 探究堂, 1966.
- 김승태,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반성』, 다산글방, 1994.
- 金源模, 『近代韓美關係史』, 철학과 현실사, 1992.
- 대한치과의사협회사 편찬위원회 편,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 閔庚培, 『알렌의 宣敎와 近代 韓美外交』, 延世大學校 出版部, 1991.
- 미국 국무부 편·한철호 역, 『미국의 대한 정책 (1834~1950)』,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 白樂濬, 『한국개신교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 孫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수서원, 1988.
- 宋炳基, 『近代韓中關係史研究』, 檀大出版部, 1987.
- 宋炳基 외, 『한국인의 대미인식』, 민음사, 1994.
- 연세대학교 백년사편찬위원회 편, 『연세대학교백년사』 1,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 윤경로, 『한국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 역민사, 1992.
- 李光麟, 『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閣, 1990.
- 李光麟, 『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1990.
- 李能和, 『朝鮮醫藥發達史』, 韓國學研究所, 1978.
- 李萬烈, 金亨錫, 金承台, 趙英烈, 『韓末 西洋醫學受容史』, 國史編纂委員會, 1989.
- 李在樹, 『韓國韓醫學史』, 우리, 1996.
- 李漢水, 『韓國齒學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 崔濟昌, 『韓美醫學史』, 영림카디널, 1996.
- 崔漢綺, 『明南樓叢書』, 대동문화연구원, 1971.
-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편, 『한국근대사강의』, 한울, 1997.
- 모리스 스미드 저·최진환 옮김, 『치과의학사』, 대한치과의사학회, 1966.
- 石幡 貞, 『朝鮮 歸好餘錄』, 日就社, 1888.
- 馬伯英·高晞·洪中立 著, 鄭遇悅 譯, 『中外醫學文化交流史』, 電波科學社, 1998.
- 靑柳南冥, 『南韓之實業』, 嵩山堂, 東京, 1906.
- E. M. 번즈·R. 러너·S. 미첨·손세호 역, 『서양 문명의 역사』 IV, 소나무, 1997.
- F. H. 해링튼 저·이광린 역, 『開化期の 韓美關係』, 일조각, 1991.
- I. B. 비숍 저·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2000.
- H. B. 헬버트·신복룡 역주, 『대한제국멸망사』, 집문당, 1999.
- H. N. Allen and J. W. Heron, 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 Seoul. For the Ending April 10th, 1886, Printed by MEIKLEJOHN and Co., No.26 Water Street, Yokohama, Japan, 1886.
- J. D. 버날 저·김성연 역, 『과학의 역사』 3, 한울, 1995.
- J. S. 게일 저·신복룡 역주, 『전환기의 조선』, 집문당, 1999.
- 새뮤얼 헌팅턴 저·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7.
- W. 프랑케 저·김원모 역, 『東西文化交流史』, 단대출판부, 1996.

3. 論文

- 김일순, 「제중원에서 초기 의학교육(1885-1908)」, 『연세의사학』 제2권 제2호, 1998.
- 朴性淳, 「崔漢綺의 『氣測體義』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박형우, 「조선 개항 이후의 서양의학 도입」, 『동방학지』 제104호, 1999.

- 박형우·여인석, 「한국 근대의학 도입사의 쟁점」, 『연세의사학』 제2권제1호, 1998.
- 박형우·여인석,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 『연세의사학』 제3권제1호, 1999.
- 申榮日·朴贊國, 「鄉藥救急方에 관한 醫史學的 考察」, 『大韓原典醫史學 會誌』 5, 1991.
- 신재의, 「한국치의학사연구」, 『치원』 4, 1969.
- 신재의, 「치과계의 단체활동」 1-4,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983-1986.
- 신재의, 「여용국전 연구」,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3, 1991.
- 신재의, 「개화기의 의료활동, 알렌의 일기를 중심으로」, 『대한치과의사학 회지』 16, 1997.
- 신재의, 「개화기의 의료활동(2), 스크랜톤의 연례 보고서」, 『대한치과의사학 회지』 17, 1998.
- 신재의, 「釜山 日本 濟生醫院에 대한 資料」,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8, 1999.
- 신재의, 「헤론의 편지」,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8, 1999.
- 여인석·노재훈, 「최한기의 의학사상」, 『의사학』 2, 대한의사학회, 1993.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제중원 역사 관련 자료 정리」, 『연세의사 학』 제2권제1호, 1998.
- 이경록·박윤재·여인석·박형우, 「광혜원의 개원과 제중원으로의 개칭과정」, 『연세의사학』 제2권제4호, 1998.
- 柳漢喆, 「日帝 '韓國駐劄軍'의 韓國 侵略過程과 組織」, 『한국독립운동사연 구』 제6집, 1992.
- 윤계찬, 「한국치과의학발달과정의 고찰」, 1·2·3, 『치계』 2-9·10·12, 1968.
- 殷仲基, 「한말의 치과업계에 대하여」,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 1960.
- 이만열, 「基督教 宣敎 初期의 醫療事業」, 『동방학지』 제46,47,48 합집호, 1985.
- 이주연, 「조선시대말과 일제 식민지 시기의 서양식 치과의료의 도입에 관 한 고찰」,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2.
- 임경빈, 「한국 치의학의 서양식 변화과정에 대한 일찰」, 『대한치과의사학 회지』 7, 1986.
- 鄭勉, 「鄉藥集成方의 編纂에 對한 小考」, 『大韓原典醫史學會誌』 5, 1991. 조영수, 「일본인 치과의사의 조선진출(1893-1910)」,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7, 1998.
- 최진환, 「한국치과계개관」,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 1960.
- 大澤義誠, 「朝鮮齒科界 變遷物語」,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 1960.
- 檜崎東陽, 「한국치과의계의 추억」,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 1960.

- ABSTRACT -

A Study on the Transmission of Western Dentistry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Shin Jai-eui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how western dentistry was introduced in Korea. In order to do this, dental knowledge in Korean traditional medical books and western learning books from China was reviewed. This article also mentions how western dentistry was introduced in Korea through Japanese and American dentists who came to practice in Korea. The process of introduction of western dentistry is examined mainly in terms of immigration of Chinese, Japanese and western dentists and their activities in Korea.

The most representative traditional medical books of Korea are 『hyangyaikgugupbang』/ 『hyangyaikgipsungbang』 and 『dongeuibogam』. These books contains information regarding dental treatment.

Traditional dentistry based the cause of diseases on the theory of principles of the Um and Yang(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and the five elements. Each disease was named after the symptoms unlike modern dentistry where the names of the diseas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aus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explaining the cause of the diseases is more sound in 『dongeuibogam』 than in 『hyangyaikgipsungbang』. Although it classified periodontal diseases simply, it was more convenient to apply in clinical practice.

In traditional dental treatment, patients took medicine depending on the symptom. The target of treatment is the whole body and mind rather than the localized affected part. Uniform treatment for every patient was avoided. Even when tooth extraction was needed, medication was used rather than using mechanical force. The only exception is drawing blood with a knife in suppurative wounds. As a result, little achievements were made in the surgical field. Since filling methods used in 『hyangyaikgugupbang』 and 『hyangyaikgipsungbang』 are not mentioned in 『dongeuibogam』, it is suggested that due to the defectiveness of the material and the procedure, they gradually stoped being used. There probably weren't much chance for operative dentistry and prosthodontics to develop since mechanical force wasn't used and filling methods died out due to ineffectiveness. Medicine was used in specific parts of the body to stimulate the lesion. The parts where the medicine was applied were associated with the lesion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principles of Um and Yang and the five elements. However, it is hard to find out if they were actually effective. Prescription and medication used in traditional medical books needs further study and clinical application.

Dentistry through western learning books from China is a great example of a cross between western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Western learning books from China were studied and sorted out by pioneers who pursued modernization. They were probably also used by the royal family.

American medical doctors and dentists came to Korea as missionaries. Since there was no division of medical doctor and dentist at the time, doctors used local anesthetics for painless extraction. They also did oral surgery for patients with deformities so that they have a worthy normal life. They treated not only the royal family and upper class people but also low-class people such as butchers. They led social changes with the Christian ideals of life, liberty, equality, and fraternity. In addition, since they became high-ranking officials and were trusted by the royal family, the social status of doctors was elevated. Jejungwon was the first hospital, and it became the key institution in the introduction of medicine and dentistry. The futile proposal for founding a dental school by David Edward Han shows the limitations of colonial health and medical policy.

Japanese dentists came to Korea as a part of the invasion. With the immigration of Japanese dentists, many low grade-dentist came along. The profit-driven practice of low grade-dentist degraded dental treatment. This led to the misconception that dental treatment is commercial business. Extraction became wide-spread, and problems such as 'procaine shock' were revealed. Jesaing clinic became the institution which was acknowledged in dentistry. The first dental practitioner in Korea was Noda oogi.

Koreans were first amazed by dentures, and their dream of 'replanting' tooth after extraction came true. American dentist who came to Korea on business made dentures for King Kojong using gold clasp.

Since the introduction of western dentistry traditional Korean dentistry was little known in the world. Painless extraction, oral surgery, almost perfect filling, and prosthodontic treatment such as dentures may have momentarily excluded traditional dentistry from the path of learning. However, if medicine including dentistry has the goal of studying life, then the way for such pursuit can be found in many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Korean dentistry.

韓國의 佛牙舍利塔과 外國의 佛牙舍利를 中心으로*

眞 弘**

목 차

- I. 序 言
- II. 부처님 佛牙舍利가 奉安된 聖刹 乾鳳寺
- III. 外國의 佛牙舍利를 중심으로
- IV. 舍利에 관하여
- V. 結 語

I. 序 言

金剛山 南麓의 한 가다 이 길게 뻗어내린 향로봉 북단에 해발 9백10미터의 乾鳳山이 있다. 그 중 허리격인 건봉령 동편 기슭에 乾鳳寺가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해 예부터 이 사찰은 金剛山 乾鳳寺라 불리었다. 정상에 오르면 해금강과 비로봉, 낙타봉 등의 금강산 절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乾鳳寺는 주위 환경도 수려하지만 세계에서 희귀한 부처님 佛牙舍利가 奉安된 聖刹이라는 점에서 더욱 유명하다. 乾鳳寺는 活人寶劍의 도량으로 泗溟 大師 惟政이 義僧軍의 근거지로 삼았던 명찰이고, 佛牙舍利의 봉안은 사명 대사의 활약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현재 乾鳳寺는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폐허가 되었고 흩어진 몇 개의 石物만이 옛 영화를 간직한 채 외롭게 서 있다. 군사작전지역에 포함되어 참배객의 왕래가 제한되어 복원불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1965년 옛 터에 軍法堂用으로 26평의 대웅

전만 지어 佛牙舍利를 봉안하였다고는 하나, 실제적인 宗務는 간성읍에 마련한 포교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담한 佛牙塔 寶宮이 지어지고 우람한 大雄殿, 기타의 殿閣이 계속 지어지고 있다.

창건 이래 萬日 念佛會, 사명 대사의 의병봉기와 佛牙舍利 봉안, 만해 한용운의 乾鳳寺誌 저술, 일제하 鳳明學敎 설립 등의 역사를 지녀온 乾鳳寺는 護國佛敎의 도량이며 일제하 민족정신을 계도해온 교육 도량으로서 敎界의 관심과 불자들의 시주로 복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乾鳳寺와 사명 대사의 인연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적비 하나 세우지 않는 우리의 문화적 무신경은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행적을 밝아 그 정신을 새겨보는 해외 성지순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역사와 맥을 함께 해 왔던 우리의 성지를 우선 돌아볼 줄 아는 불자들의 지혜가 깨어나야 한다. 乾鳳寺의 복원은 한 사찰에 대한 佛事의 의미를 넘어 우리 역사에 있어 불교가 차지했던 비중을 확인하는 귀중한 일이다. 더욱이 불자들에게 호국의 불교정신을 선양하고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기도 한다.

그 외에 印度, 中國에서의 佛牙舍利에 대한 신앙과 그 역사를 예증하고 日本의 舍利禮文과 舍利塔의 語源을 살펴서 독자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여 고찰해 보려 한다.

*이 논문은 《明星스님 古稀紀念論文集》(불광출판사 2000.9.15 발행) 791쪽부터 827까지 게재된 것을 저자 眞弘스님의 허락을 받아 전재하였다.

** 靑龍寺 스님, 台灣 文化大學 哲學科 文學博士

II. 부처님 佛牙舍利가 奉安된 聖刹 乾鳳寺

1. 由來

位置는 江原道 高城郡 梧峯面 冷泉里 휴전선 아래 乾鳳山 기슭에 위치하며,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북단의 사찰이다.

신라 제23代 法興王 7년(520) 阿道 화상이 창건하여 처음에는 圓覺寺라 이름하였던 것을 고려 제 31代 공민왕 7년(1358)에 懶翁 황상이 중수하고 乾鳳寺라 개칭하였다. 고려 太祖 3년(920) 도선 선사가 왕명으로 중수했고, 朝鮮 世祖는 學悅 대사에게 이 곳에 御室閣을 짓게 하여 5일간을 이 절에서 머물러 관람한 후 전답을 하사하고 요역을 면하게 하였다. 그 후 역대 제왕이 원당으로 삼았다.¹⁾

朝鮮祖 제14대 宣祖 39년(1906)에 다시 중수하였으며, 高宗 때 큰 화재로 전소된 후 다시 766間の 건물을 세웠고²⁾ 1941년 寺法을 정하여 전국 4대사찰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6·25때 다시 불타고 목조건물은 不二門 하나만 남았으며, 10년 전만 해도 갈 수 없는 군사 분계선 안에 있었으므로 휴전선 아래 신안리 마을에 다시 건립하여 포교당으로 사용했었다. 乾鳳寺에는 9층탑을 비롯한 7基의 탑과 48基의 浮屠, 31基의 碑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모두 남아 있는 것은 浮屠郡 金堂址 등의 建物址뿐이다.

한 때, 31본산의 하나로 꼽았던 대가람이었으나,

지금은 강원도 관기관의 협조와 佛牙와 善緣이 있는 전국의 善男善女의 신심으로 佛牙寶宮이 舍利塔이 있는 곳에 아담하게 새로 건립되어 있고, 그 아래에 큰 대웅전도 신설하고 그 외에 많은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중이다.

2. 佛牙舍利塔 乾鳳寺

乾鳳寺는 한국의 名山 金剛山의 佛蹟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곳이며, 속칭 금강산 8만 9암자의 제일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국토가 兩分되기 전까지만 해도 금강산으로 들어가려는 雲水僧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乾鳳寺는 한동안은 民統線 안에 위치해 있어 인적이 드문 지 오래 되었다.

乾鳳寺는 太白山脈의 靈峰 금강산과 설악산의 중간 지점인 강원도에 자리잡고 있다. 李大蓮스님이 萬海 禪師에게 위촉하여 편찬한 『乾鳳寺及乾鳳寺末寺事蹟』에 비교적 소상히 적혀 있다. 이에 의하면 景德王 17년(758)에는 發徵 和尚이 중건하고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念佛萬日會를 創設한 곳이기도 하다. 이 때에 發徵이 貞信, 良順 등 31인과 함께 만일기도를 하니 香徒 1820人이 스스로 의복과 음식을 시주하며 염불하는 사람의 시중을 들었다고 한다. 만일기도를 끝낸 31인은 阿彌陀佛의 加被를 입어 가부좌한 채로 육신만 남기고 淨土에 往生하니³⁾ 乾鳳寺 東北方 11km 지점 燒身臺에 1915년에 세워진 기념승천부도가 지금도 善男善女들의

1) 朝鮮 世祖가 乾鳳寺를 願堂으로 정해 御室閣을 세우고 田畝를 下賜하고 親制親筆의 同參文을 하사했다. 睿宗元年己丑 成宗元年庚寅 明宗七年壬子 宣朝三十五年壬申 孝宗元年庚寅 肅宗七年癸亥 등 願堂을 定하거나 佛像을 改金하고 佛堂을 建築하며 下賜品을 내리고 國齋를 設하였다. 景宗四年甲辰, 英祖二年丙午, 朝鮮英祖三十四年甲戌에 貞聖王后가 釋迦像을 造成하고 八相殿을 세우고 願堂을 定하였다. 朝鮮 英祖가 肅宗의 御製折檻圖와 御筆書를 下賜하여 御室閣에 奉安하고 徭役을 免하게 하였다. 그 뒤에도 純祖王妃金氏, 憲宗의 純元王妃 大王大妃 趙氏 등이 金品과 寺中佛具를 下賜하였으며 高宗도 乾鳳寺를 願堂으로 定하였다. 乾鳳寺及乾鳳寺末寺事蹟 p.1-133 參照.

2) 朝鮮高宗 十五年戊寅四月三日에 山火로 因하여 寺庵三千一百十參間이 全燒하였다. 이때 鶴林 和尚이 火를 무릅쓰고 八相殿의 三尊佛像과 烏銅香爐와 折檻圖 등을 救出했다고 한다. 乾鳳寺及乾鳳寺 末寺事蹟 p.8 參照.

3) 上揭書, p.1 參照

신앙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절의 위쪽 古鎮嶺을 올라서 남쪽을 내려다 보면 큰 巖山에 천연의 石鳳이 있다. 道誥法師가 高麗太祖의 명을 받아 圓覺寺를 重修하고 西鳳寺라 改稱하니 寺의 서쪽의 자연석 위에 鳳形의 모양으로 앉아 있는 이 바위에서 西鳳寺라는 명명이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⁴⁾

이 곳이 바로 韓國에서 第一希有한 佛牙舍利가 봉안된 聖刹이며 佛齒牙의 塔을 공양하는 牙塔이 있다. 우리 나라는 朝鮮 宣祖 三十八年(乙巳) 泗溟이 日本에 使行했다가 佛의 齒牙와 佛舍利 등을 奉還하여 乾鳳寺에 所藏했다고 한다. 옛날에 慈藏法師가 唐나라에 가서 佛의 齒牙⁵⁾와 舍利 등을 奉來하여 通道寺와 月精寺 등 各寺에 分奉했었는데 壬辰亂에 倭兵이 通道寺에 侵入하여 불의 齒牙와 舍利를 가져갔는데 이것을 泗溟이 奉還하였다고 한다.

乾鳳寺 釋迦女來齒相立塔碑銘並序에는 이것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聞夫於過去世 慈藏法師 躬入西國 而得釋迦如來頂骨齒牙舍利及金襴袈裟若干 壯之於梁山通度寺未知其幾千年之由來矣 中間倭來取去 舉國失望 泗溟大禪師一唯政 奉使于日本 還取齒相一十二枚藏之於 乾鳳寺之樂西庵 人皆珍玩者..⁶⁾

듣건대 過去世에 慈藏法師가 몸소 西國에 들어가서 釋迦如來頂骨齒牙舍利와 金襴가사를 가지고 와서 梁山 通度寺에 所藏했었다. 그 몇 천년의 유래를 알지 못하겠는가. 中間에 倭兵이 와서 가져가므로 온 나라가 실망 하였는데 泗溟 大禪師 唯政이

사행으로 日本에 갔다가 齒相一十二枚를 찾아 가지고 와서 乾鳳寺의 樂西庵에 所藏하니, 이 보배를 보는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리고 이 碑 末後에는 비록 釋道가 옛적에 滅道했으나 또한 만세에 深遠하고 장구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是我大覺 人天之師 示滅西天 建塔切利 八萬周國 有緣東土 寶牙奉之 有麟之覺 以鮮山門 所立卓爾 人皆敬之.

우리의 大覺이시며 人天의 스승이신 부처님은 西天에 示滅하여 八萬四天寶塔을 세웠는데 綠이 東土에 있어 寶牙를 봉안하니 상서로움을 朝鮮의 山門에 나투시옵소서.

이것은 蓬萊山春坡二世 雲坡門人 月峯 禪師가 짓고 쓴 것으로서 皇明崇禎紀元後一十年太歲丙午 六月일에 세운 것이다.

大韓光武丙午에 세운 金剛山乾鳳寺釋迦如來靈牙塔奉安碑에서는 正一品大匡輔國崇祿大夫原任議政府議政奎章閣學士勳一等海平尹容善이 撰하고 正二品正憲大夫議政府前贊政 潘南朴箕陽 이 書하고 아울러 篆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唐貞觀十二戊戌 新羅僧慈藏入唐清涼山 奉釋迦頂舍利齒牙袈裟數珠而還藏于五臺驚棲獅子葛來四山 本朝壬辰之亂 日本人以存寶持去 其後甲辰 僧泗溟御名入日本 遍尋而奉還 分藏于諸寺 而靈牙十二枚 藏杆城之乾鳳寺 蓋寺卽泗溟之師信默卓錫之所

4) 上揭書, p.2 參照

5) 『三國遺事』 卷 第3, 「前後所將舍利」條

慈藏法師所將佛頭骨佛牙舍利百粒, 佛所著緋羅今襴袈裟一領. 其舍利分爲存三. 一分在皇龍塔. 一分在代和塔, 一分并袈裟在通道寺戒壇. 其餘未詳所在...

6) 上揭書, p.27 參照

爲關東最勝之區也 肅宗癸亥春 內下金銀盒綵袱 命建塔而藏之碑于其傍.⁷⁾

唐貞觀十二年戊戌에 新羅僧 慈藏이 唐나라 淸涼山에 들어가 釋迦頂骨舍利와 齒牙 袈裟 數珠를 받들어 모시고 돌아와서 五臺(五臺山 寂滅寶宮) 驚棲(通度寺) 獅子(法興寺) 四山에 所藏했는데 本朝 壬辰亂에 日本人이 보배로 여겨 가지고 갔다. 그 후 甲辰에 泗溟 大師가 御命으로 日本에 들어가 찾아서 모시고 돌아왔다. 그것을 諸寺에 나누어서 간직하게 하였는데 靈牙 十二枚는 杆城의 乾鳳寺에 所藏하게 되었다. 이 寺刹은 泗溟 大師의 師 信默 등이 주석한 곳이며 關東의 가장 수승한 곳이다. 肅宗 癸亥年 봄에 內下께서 金銀으로 만든 盒과 彩色袱을 내리시고 塔을 세우라 명하시고 所藏하게 하였다. 靈牙碑는 그 傍邊에 세웠다.

위 碑文에서는 慈藏 法師가 唐나라에서 봉안해 온 부처님 佛牙 舍利를 通度寺와 月精寺 등에 봉안했다. 그런데 壬辰亂에 日本人이 가져간 것을 泗溟 大師가 찾아 가지고 와서 乾鳳寺에 모셨다. 肅宗 때에 金銀盒을 만들어 靈牙를 모시고 塔을 建築하고 그 옆에 碑를 세웠다고 했다. 그런데 高宗 十五年(戊寅)에 火災가 있어 碑가 燃燒되어서 二十七年(甲辰)에 碑를 세웠다고 써 있다.

그리고 朝鮮 景宗 四年 甲辰에 住持스님 彩寶 大師가 九層塔을 建造하여 佛의 齒牙를 奉安하니 明聖 王后가 千金을 下賜하였다고 한다. 佛牙를 모셨다는 기록은 아래와 같다.

高麗時代에는 위와는 관계가 없는 佛牙와 舍利供養이 韓國佛敎略史(權相老 著)에 나온다. 睿宗 十五(1120) 庚子年에 佛骨을 禁中으로 맞이하여 들었다. 처음에 王字之를 宋나라에 사신으로 보내었다가 돌아올 때 宋나라 皇帝가 金函에다가 佛牙와 佛

頭骨을 담아서 下賜하였다 外帝釋院에 奉置하였다가 이때에 와서 禁中의 山呼亭에 移安하였다. 仁宗 七年(1129) 己酉年에 여름철인 四月에 佛骨을 大安寺에 맞이하여 人德宮에 安置하였다고 하였다.

仁宗 八年(1130)은 庚戌이다. 佛骨을 重華殿에 공양하였다는 기록⁸⁾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高麗時代에는 佛牙供養儀式이 중국이나 斯里랑카같이 宮中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朝鮮 英祖 二年丙午에 釋迦如來齒相塔碑를 세웠다.

朝鮮 高宗 二十八年 辛卯에 梵雲 和尚이 佛의 齒牙를 天安 廣德寺 스님에게 얻어서 八相殿에 奉安했다.

大韓光武 十年丙午에 魚山廳 梵音契가 主務가 되어 釋迦靈牙塔奉安碑를 세웠다.

지금도 이 佛舍利塔이 절 왼편 언덕 위에 남아 있다. 조선 말엽에 이르기까지 乾鳳寺는 總 三千여 칸으로 그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었으나 高宗 十五年(1878)에 山火로 인하여 모든 건물과 문화재가 전소돼 버렸다.

하지만, 이듬해 碧梧侑聰(都化主)은 乾鳳寺 重建의 大佛事를 주관하기 위하여 五糾正所(開運寺, 中興寺, 奉恩寺, 奉先寺, 龍珠寺)를 두고 8도의 化主를 받았다. 觀音殿과 萬日會를 비롯하여 大雄殿, 御室閣, 四聖殿, 冥府殿, 梵鍾閣, 香爐殿, 普眼院, 樂西庵, 白華庵, 白蓮庵을 차례로 重建하니 모두 6백 40여칸이 되었다. 乾鳳寺는 1912年 禪敎 兩宗의 大本山이 됨으로써 白潭寺, 神興寺, 洛山寺, 禾岩寺, 靈穴寺, 明珠寺, 壽陀寺, 烏啼庵, 深谷寺 등을 末寺로 두게 되었다.

乾鳳寺는 특히 근세에 들어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민족사상과 계몽교육에도 힘썼다. 1906년에는 鳳鳴學敎를 설립했다. 1921년에는 鳳林學敎를 세우기도 했다. 또 1927년에는 佛敎專門講院

7) 上掲書, p.41 參照

8) 『韓國佛敎略史』, 權相老 著 釋性法 編譯(望月寺), p.183-184 參照.

을 설립하고 公費生 30명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이 곳은 泗溟, 惠能, 信默, 상미, 도을 스님 등 고승들이 주석한 곳으로도 유명하지만, 근세에 들어 鶴林, 龍城을 비롯하여 雲城, 大蓮, 萬海 스님이 거주하던 곳이기도 하다. 乾鳳寺에 속한 암자만 해도 普琳庵, 白華庵, 鳳岩庵, 極樂庵, 白蓮庵, 般若庵 등 곳곳에 120여 칸의 암자가 자리잡고 있었다.

乾鳳寺에 속한 토지도 社寺地 7천여 평, 밭 50만 평, 논 16만평 등 70여 만평과 임야 1천8백여 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논 14만평을 소작 경영하고 있어 토지세로 1년에 쌀 6백 가마를 거두어 들일 뿐이다. 그 밖의 토지와 임야는 군작 전지역에 속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지금은 寶宮 法堂 등 많은 건물이 새로 들어섰다.

乾鳳寺에는 사명 대사의 유품인 鍍金願佛烏銅香爐, 鐵杖을 비롯하여 1천7백근 大鐘, 朝鮮 肅宗의 下賜品인 折攬圖, 碑磔茶盤과 순조 때 왕대비 김씨의 하사품인 烏銅香爐 등 보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소실되고 없다.

塔만 해도 8기, 浮屠가 48기, 碑가 31기, 眞影이 44점 등 무수한 문화재가 남아 있었으나 6·25때 북한군 2개 사단의 거점이었던 이곳을 유엔군의 합포사격으로 인하여 건물과 문화재가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지금 乾鳳寺에 남아 있는 것은 1만2천평의 건봉사지가 지방기념물 51호로 되어 있고, 1947년 세워진 不二門이 지방유형문화재 44호로 지정되어 6·25의 병화 중에도 홀로 의연하게 버티고 있어 회한의 정을 더해주고 있다.

이곳에는 또 능파교와 십바라밀을 상징한 조각이 새겨진 두 개의 돌기둥, 그리고 大方廣佛華嚴經이라고 새겨진 돌기둥 한 개가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다. 이 곳은 최근 관동대 고적답사반이 답사를 마치고, 기록에 전해 내려오는 碑 31개 가운데 11개가 현존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乾鳳寺는 가장 번창했던 1878년 火災 직전까지 3천여 칸에 이르는 거대한 가람이었다고 한다. 어

찌나 도량이 크던지 같은 방에서 함께 잔 客僧들이 다음날 서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우스개 소리가 전해질 정도이다.

乾鳳寺는 泗溟 大師 惟政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1594년 유정은 7백여 명의 승려가 修行精進하던 乾鳳寺를 江原地域 승군의 보루로 삼았다. 乾鳳寺址 大雄殿 앞터는 당시의 의승들이 武術을 연마했던 곳이라고 한다.

朝鮮時代 崇儒抑佛의 역경 속에서 각종 신분적 불이익을 받던 僧團이 의병활동을 전개한 것은 중생을 위하여 身命을 버리는 보살도의 실천으로 이를 護國佛敎라고 한다. 國難을 당하여 義僧軍이 일어나 적을 물리치는 전선에 참여한 것은 유학자들이 비판하듯 불교가 對社會的으로 무력한 집단이 아님을 實證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泗溟 大師가 의병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국난을 극복한 일은 조선불교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승병대장 겸 스승 西山 大師로부터 물려받은 팔도도총섭의 자격으로 日本의 가등청정과 회담하였던 유정은 1604년 서산 대사의 부음을 받고 妙香山으로 가던 중 왕명을 받고 日本에 사신으로 간다. 日本에 건너 간 유정은 덕천가강과 화친조약을 맺고 임란 때 끌려 간 동포 3천여 명을 소환하여 돌아왔다.

이 때, 佛牙舍利를 되찾아 모시고 귀국하여 이를 乾鳳寺에 모셨다. 佛牙舍利는 원래 新羅 慈藏 律師가 唐나라로부터 얻은 것으로 통도사와 월정사에 봉안하였던 것인데 임란 때 왜군이 탈취해 간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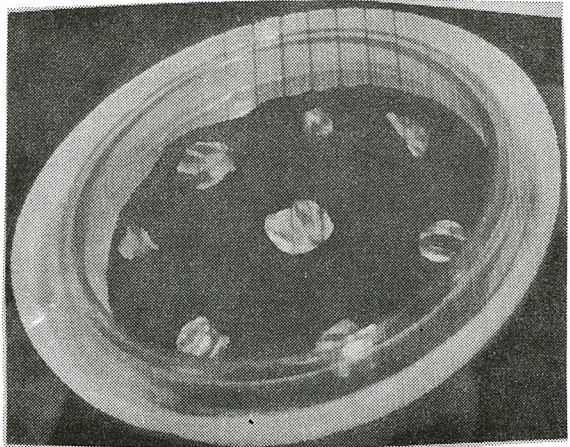
乾鳳寺 옛터를 감싸며 흐르는 계곡를 가로지른 능파교를 넘으면 八相殿地域이다. 1930년 촬영된 건봉사 전경사진을 보면, 乾鳳寺는 大雄殿地域, 八相殿地域, 極樂殿地域, 樂西庵地域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규모면에서 전국 4대 가람 중의 하나였다고 전해지는 말에 수긍이 간다. 乾鳳寺는 八相殿에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八相圖를 두지 아니하고 佛牙舍利를 모신 塔과 碑를 세웠다. 惟政의 行狀과 佛牙舍利가 乾鳳寺에 봉안된 유래

가 적힌 「釋迦如來齒相立塔碑」는 세동강이 난 채 방치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헌병이 自國에 치욕스러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파괴하였기 때문이다.

乾鳳寺는 해방 이후 북한 치하에 있을 때 泗溟大師의 유품과 肅宗의 下賜品, 순조 대비의 下賜品 등 國寶 6점을 유실당하였다. 더욱이 6·25를 겪으면서 본사 건물 및 범종을 비롯한 불법선양 법구가 전부 소실되는 비운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乾鳳寺의 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근대에는 佛牙舍利를 도난당하는 일까지 있었다. 어느날 舍利塔의 이끼가 벗겨져 있고, 그 주변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열려진 舍利塔에는 있어야 할 佛牙舍利가 없었다. 당시는 민통선이 북상조정되기 이전이라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했을 뿐만 왕래하는 모든 이들은 군부대의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다. 聖物이 보존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이었는데도 도굴을 방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乾鳳寺는 물론 본사인 神興寺에서는 佛牙舍利가 海外로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神興寺로 전화가 걸려 왔다. 전화의 내용에 의하면, 스님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불자가 한약을 지어 신림동 모 여관에 맡겨 놓았으니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佛牙舍利的 도난으로 경황이 없었지만 예감이 이상해 가보니 한약재 속에 佛牙舍利와 한 통의 편지가 있었다.

편지 내용인즉, 4명의 도굴꾼들은 佛牙舍利를 도출한 후 매일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한다. 부처님이 현몽하시어 佛牙舍利를 다시 모시라고 엄하게 꾸짖으시더라는 것이다. 며칠을 계속 모두 같은 꿈을 꾸고 그들 가족마저 그 꿈을 꾸게 되자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의 엄청난 죄업을 깨닫고 佛牙舍利를 되돌려드릴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부처님이 친히 어리석은 중생을 꾸짖는 이적을 보이심으로써 佛牙舍利는 무사히 乾鳳寺에 다시 모셔지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일단락 되는가 했으나 佛牙舍利 소유권을 둘러싸고 政府와 乾鳳寺간에



법정 투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소유권 확인소송에서 乾鳳寺가 승소하여 佛牙舍利는 乾鳳寺에 이운, 봉안되었다. 1989년 2월의 일이었다. 그 이후 佛牙舍利는 乾鳳寺址 옆 大雄殿 안에서 유리벽을 통해 친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 지은 전각에서 親見할 수 있다.

3. 탑이 서야 할 位置

경전상에서 말하는 塔은 伽藍建築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印度에서부터 탑을 건립한 이래로 塔에 대한 配置에는 일정한 規制가 있다. 『摩訶僧祇律』卷三十三에 記載한 것에 의거하면, 伽藍 안에 탑을 세우지 못하는 곳은 南方과 西方이며 탑은 東方 혹은 北方에 두어야 한다. 한편 僧房은 반대이니, 南方이나 西方에 지어야 한다. 乾鳳寺 佛牙塔은 北方面에 있다.

4. 탑을 세우는 功德

모든 經典과 古來의 各種 敎說에 의하면 모두 塔을 세우면 지대한 功德이 있다고 說하고 있다. 『無量壽經』卷下에서는 塔을 일으키고 佛像을 세우면 往生淨土의 因行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밖에 譬喻經에서는 十種造塔의 수승한 과보를 들고 있다.

- (1) 邊國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 (2) 貧困을 받지 아니하고
- (3) 愚癡邪見의 毒을 받지 아니하고
- (4) 十六大國의 王位에 오르며
- (5) 壽命이 長遠하고
- (6) 金剛那羅延力을 얻을 수 있고
- (7) 비할 수 없는 廣大한 福덕을 얻을 수 있으며
- (8) 諸佛菩薩의 自비를 입으며
- (9) 三明⁹⁾, 六通¹⁰⁾, 八解脫¹¹⁾을 구족하고
- (10) 十方淨土에 往生하는 것을 얻는다 하였다. 이 밖에도 『造塔功德經』, 『造塔延命經』 등에서 수명이 연장되고, 하늘에 나며(生天), 五無間罪를 멸하고 成佛한다.

『右繞佛塔功德經』에서 塔을 도는 것(또는 旋塔이라 칭하기도 한다)을 提示하고 있는데, 八難을 멸리할 수 있으며, 妙色相을 구족하고 福과 命과 財寶를 얻으며 내지 天人師 등을 얻는다고 한다. 『提謂經』에서는 또한 塔을 돌면 아래와 같은 五功德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 (1) 後世에 端正하고 좋은 얼굴을 얻으며
- (2) 좋은 音聲을 얻고

- (3) 天上에 나며
- (4) 王侯家에 태어남을 얻으며
- (5) 涅槃道를 얻는다

그런데 塔을 도는 데도 일정한 형식이 있는데, 塔을 돌 때에는 一律적으로 오른쪽으로 도는 것이 표준이다. 또한 塔을 돌 때에는 반드시 고개를 숙여 땅을 보고 잘못하여 地上의 곤충을 밟지 아니해야 한다. 左右로 돌아보지 아니해야 하며, 塔 앞의 땅에 침을 뱉지 말아야 하며, 中間에 서서 사람과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밖에도 塔을 만들고 塔을 도는 데 限定하지 아니하고, 무릇 修塔, 掃塔, 禮塔등이 모두 廣大한 공덕을 얻는다고 하였다.¹²⁾

5. 人生祈願의 反映

塔을 세우고 佛像을 모시고 聖物을 具備하는 것은 당시 百姓의 人生에 대한 祈願을 反映하고 있으며 동시에 塔은 그 시대의 佛敎美術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新羅 高麗時代에 佛敎文化가 사회 전반에 퍼져 民間생활 저변 깊숙이 들어 갔으

- 9) 三明 : 梵語로는 Tisro vidyāh 파리어로는 Tisso vijja. 아라한의 지혜에 갖추어 있는 自在하고 妙한 作用. 知慧가 分明히 對境을 아는 것을 明이라 한다. 6神通 중의 宿命論. 天眼通, 漏盡通에 해당하는 宿命明, 天眼明, 漏盡明이다. ① 宿命明 : 구족하게는 宿在隨念, 智作證明. 자기와 남의 지난 세상에 생활하던 상태를 아는 것. ② 天眼明 : 구족하게는 天眼智作證明. 또는 死生智作證明이라 하니, 자기나 다른 이의 다음 세상의 생활상태를 아는 것. ③ 漏盡明 : 漏盡智作證明이라고도 하니, 지금 세상의 고통을 알아 煩惱를 끊는 知慧. 부처님에 대하여는 三達이라 하니.
- 10) 六通 : 六種神通力. 六神通이라고도 한다. 天眼通, 天耳通, 他心通, 宿命通 神足通, 漏盡通이며, 不思議한 功德作用이다.
- 11) 八解脫 : 또는 八背捨. 8種의 觀念. 이 觀念에 의하여 五欲의 境界를 등지고, 그 貧하여 고집하는 마음을 버림으로 背捨라 하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三界의 번뇌를 끊고 阿羅漢果를 중득하므로 解脫이라고 한다. ① 內有色想觀 外色解脫 : 안으로 色欲을 貧하는 생각이 있으므로, 이 貧心을 없애기 위하여 밖의 부정인 퍼렇게 어혈든(靑瘀)빛 등을 觀하여 貧心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② 內無色想觀 外色 : 안으로 色欲을 貧내는 생각이 이미 없어졌으나, 이것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하여 밖의 부정인 퍼렇게 어혈든 빛 등을 觀하여 貧心을 다시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 ③ 淨解脫身作證具足住 : 깨끗한 色을 觀하여 貧心을 일으키지 못하게 함을 淨解脫. 이 淨解脫을 몸 안에 證得하여 具足圓滿하며, 定에 들어 있음을 身作證具足住라 한다. ④ 空無邊處解脫 ⑤ 識無邊處解脫 ⑥ 無所有處解脫 ⑦ 非想非非想處解脫 이 넷은 각각 능히 그 아랫자리의 貧心을 버림으로 解脫이라 한다. ⑧ 滅受想定解脫身作證具足住 : 이것은 滅盡定이니, 滅盡定은 受, 想 등의 마음을 끊어하여 길이 無心에 머무르므로 解脫이라 한다.

며, 사람 사람이 무릇 宗教신앙에서 祈求하고 願望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신앙과 美의 觀照가 一致할 때에 美의 感覺이 생겼으며, 崇敬하고 歸依하는 마음이 增大하게 되고 가장 위대한 佛敎藝術이 이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각 계층의 사람이 追求하는 것은 現世의 이익이며, 現世의 이익을 추구해도 얻지 못하면 다만 來世를 等待했던 것이다. 당시 王室이나 農民 社會人이 憧憬한 人生祈願은, 넓고 넓은 明朗한 미래에 대한 熱烈한 愛情에 무르녹게 퍼졌으며, 이 마음을 반영하듯 塔이나 佛像을 造成하였으므로 보는 자로 하여금 바로 一種의 永遠美의 享受를 느끼게 한다. 이것이 즉 그들의 理想美이다. 그러므로 佛敎미술의 理想形成을 빌려서 말하고 싶어 했으며, 불교미술 속에 그들의 생활을 반영하고자 했다. 이러한 不朽의 藝術形象은 그 안에 필경에는 大地에 充滿한 모든 중생의 想像과 願望이었다.

만약 이러한 認識이 없었다면 우리는 실제로 더욱 한층 깊이 宗教藝術의 內涵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悠久한 佛敎美術의 傳統이 卓越한 것은 아울러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恒久한 時間과 廣大한 空間을 경과하여 온 民族의 손으로 만들어서 창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III. 外國의 佛牙舍利를 中心으로

1. 中國의 佛牙舍利

舍利를 梵語로 Sarira라 하며 身骨遺身, 靈骨이라 번역한다. 한량 없는 6바라밀 공덕으로 생기며,

戒·定·慧로써 薰修하여 생기는 것으로 매우 얻기 어렵고, 제일 가는 복전이 된다.

舍利에는 全身舍利, 碎身舍利, 生身舍利, 法身舍利, 佛牙舍利 등의 구별이 있다.¹³⁾ 全身舍利는 다보불과 같이 全身이 그대로 사리인 것이며, 碎身舍利는 석가불의 사리와 같이 몸에서 나온 낱알로 된 것이며, 生身舍利는 여래가 멸도한 후에 全身舍利나 碎身舍利를 남겨 두어 人과 天이 공양하게 하는 것이다. 法身舍利는 大乘, 小乘의 一切經典이다. 본래는 身骨이나 주검을 모두 사시라 하였는데, 후세에는 화장한 뒤에 나온 작은 구슬모양으로 된 것만을 舍利라 한다.¹⁴⁾

佛牙舍利는 즉 석가모니의 齒牙이다. 傳에 의거하면 世尊의 荼毘를 한 후 전신이 다 化해서 細粒의 사리가 나왔다. 오직 그 부분 중에서 齒牙가 손상되지 아니해서 佛牙舍利라고 칭한다(梵, Dantadhātu). 『大般涅槃經』 後分 券下에 기재된 것에 의거하면 세존을 다비할 때에 大悲力이 있어, 金剛體가 부서지면서 細末의 사리가 나왔는데, 오직 四牙가 부서지지 아니하고 남았다고 한다. 帝釋天이 부처님의턱과 口上에서 牙舍利를 취하여 天上에 돌아가서 塔을 일으키고 공양하였다고 전한다. 그 밖에 『觀虛空藏菩薩經』에 기록된 것을 보면, 切利天城의 北 駕御國 중에 佛牙塔이 있다고 하였다.

高僧 『法顯傳』에는 獅子國(스리랑카)條에 기재하되, 왕사성 중에 佛牙精舍가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一枚 佛牙가 烏菟國(今 印度 北部)에 전해졌다고 한다. 南朝僧 法獻이 劉宋 元徽 三年(475)에 西城에 가서 經을 가지고 于闐國에 이르러서, 烏菟國에서 전해 내려오는 佛牙一枚 및 舍利 五十

12) 『長阿含』 卷四 遊行經, 『增一阿含經』 卷十九, 『起世經』 卷二, 『大乘本生心地觀經』 卷一, 『佛所行讚』 卷五, 『八大人覺塔名號經』, 四分律 卷五十二, 『華嚴經探玄記』 卷八, 『瑜伽論記』 卷二十一, 『大唐西城記』 卷二, 『梁高僧傳』 卷一 『釋迦方志』, 『廣弘明集』 卷十五, 卷十七, 『洛陽伽藍記』 卷一, 『玄應音義』 卷七 등 參考.

13) 『金廣明經』

14) 이운허 지음, 『佛敎辭典』, 동국역경원. p.359 參照.

粒을 얻었다고 한다.¹⁵⁾ 귀국한 후 南齊 王都 建業(南京)에 住하면서 佛牙를 密藏하고 供養禮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永明 七年(489)에 文宣王이 꿈에 感夢을 받고서, 비로서 이 일이 모든 道俗人에게 전해지고, 그 후에 佛牙는 定琳寺에서 공양하고 받들었다. 梁武帝 普通 三年(522) 佛牙를 도적맞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었다. 隋代에 이르러 佛牙가 陝西 長安에 출현하여 크게 공양하여 받들었다. 唐末 五代時에 전란이 자주 일어나서 드디어 佛牙는 전전하여 北方 遼의 燕京(北京)에 이르게 되었다. 遼史 道宗記에 기록된 것을 보면, 道宗 咸雍 七年(1071)에 즉 北宗 神宗 熙寧 四年에 佛牙를 靈光寺 招仙塔에 奉安하였다. 淸 光緒 二六年(1900) 8國 연합군이 北京에 쳐들어와서 寺, 塔이 戰火에 허물어지게 되었다. 이 전란 후에 僧衆이 發掘清理하는 중, 塔基 中서 佛牙가 든 石函을 찾아 내었는데, 函內에 다시 하나의 沈香木盒이 있었으며 盒 위에 ‘釋迦牟尼佛靈牙舍利, 天會 七年 四 月 二十二日記, 善慧書’ 등의 文字가 새겨져 있었다. ‘天會’는 五代 十國중 北漢(951-979)의 年號이다. 1964년 그 때 당시 불교단체가 寺塔이 있었던 옛땅에 佛牙舍利塔을 重建하고 佛牙를 공양하여 받들었다.

그 밖에 『宋高僧傳』에 또한 道宣이 佛牙를 感得하게 된 것을 적고 있다.¹⁶⁾

“西明寺에서 밤에 길을 걸어 가다가, 앞계단에서 발을 삐끗하였는데, 누가 부축을 하여, 허공을 밟았으나 아무 해가 없었다. 누군가 하여 돌아보니 소년이었다. 道宣이 문득 분되, ‘어떤 사람인데, 한 밤중에 여기에 있는가? 소년이 말하되, ‘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즉 毘沙門天王의 아들 那吒입니다. 護法하기 위하여 和尚을 옹호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道宣이 말하되, ‘貧道가 수행하는데 일 없이

太子만 번거롭게 한다. 태자는 威信自在하니 西域에 佛事 지을만한 어떤 것이 있는지 원하건대 가져왔으면 하네.’ 太子가 말하되, ‘某가 佛牙가 있는데 보배를 손 안에 간직한 지 이미 오래이나, 頭目を 버리는 것과 같아 감히 奉獻하지 못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별안간에 道宣에게 주었다.”

道宣 感得한 佛牙는 위에 기록한 佛牙와 兩者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혹은 아무런 하등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아니하며, 자료를 제시한 것도 자세하지 아니하다. 이 佛牙는 그 후 河南 開封의 相國寺 灌頂院에 받들어 모셨는데 宋 太宗이 일찍이 幸臨하여 예배하고, 아울러 烈火로 가열하여 시험하여 보았는데 光彩가 더욱 현현하게 나타나므로 太宗이 佛牙讚을 짓고 아울러 灌頂院을 改稱하여 法華院이라 하였다. 그후 宋 眞宗이 이 佛牙舍利를 맞아들여 開寶寺 塔 아래에 모시고 공양하였으며, 또 하나의 佛牙讚을 지었다. 治平 二年(1065)에 英宗이 佛牙讚碑를 造立하였다. 崇寧 三年(1104)에 徽宗이 宮中 안으로 맞아들여 공양드리고 또한 다시 讚을 지었으며, 그 후로 또한 역대로 조정에서 崇信하는 바가 되었다.

2. 스리랑카의 佛牙舍利

이 밖에 스리랑카 Kandy(坎底) 시의 마라갈와사(Malagawa寺)에 소장되어 있는 佛牙舍利는 스리랑카의 국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찰을 佛牙寺라고도 한다. 스리랑카 불교계에서는 매년 八月一日에 十二天이라고 하는 佛牙節을 거행한다. 매년 저녁 8시에서 11시까지 거행하는데 아주 성대한 佛牙遊行이다. 佛牙史(巴 Dathāvamsa)에 기록된 것에 의거하면, 이 佛牙는 4세기경에 印度의 羯陵伽國(巴 Kalinga) 으로부터 스리랑카에 들어오

15) 『梁高僧傳』 卷十三, 『法怨珠林』 卷十二 등 參照.

16) 『宋高僧傳』 卷十四(大正, 五〇卷, p.791上).

면서 최고의 예경을 받게 되었다. 14세기 초에 남인도 塔米爾人(Tamil)이 침입하여 佛牙를 劫取해 갔다. 파라카 마바하 왕 三世(parakkamabāhu III) 때에 和平方式로 佛牙를 도로 맞아들였다. 그 후에 스리랑카는 전란이 그치지 아니하여, 佛牙도 따라서 옮겨 가며 密藏하게 되었다.

1505년 포르투갈 사람이 섬에 들어와서 불교 신앙을 극력 박해하였으므로, 王都 또한 輾轉하여 坎底市로 옮겨졌다. 그리하여 佛牙寺를 건립하고 佛牙를 봉안하고 공양하였다. 1560년 포르투갈 사람이 佛牙를 가지고 印度 柯亞(Goa)지방으로 가서 불에 태워 버렸으나, 수년 후에 佛牙는 다시 출현하였다. 혹 불살라 버린 佛牙는 가짜였다고 한다.

義淨의 『西域求法高僧傳』 卷上 기록하기를 明遠法師가 일찍이 獅子洲(스리랑카)에 이르러서 비밀히 佛牙를 가지고 귀국하려 하였으나, 마침내 스리랑카 사람에게 발각되어서 능욕을 당하고, 스리랑카 사람은 佛牙에 대한 防守를 더욱 엄밀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 明本 『大唐西域記僧伽羅國附記』 및 스리랑카 佛敎史(C. Dipayaksom)에는 明의 사신 鄭和 일찍이 스리랑카에 이르러서 佛牙를 취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古代 스리랑카 사람은 佛牙를 Dātha-dhātu라고 칭하였으며, 지금은 Dalalda라고 칭하고 있다.¹⁷⁾

3. 佛牙史

佛牙史를 巴利名으로 Dāthāvamsa, Dantadhātuvamsa라고 한다. 무릇 五章이 있다. 스리랑카 僧達摩揭諦가 12세기에 지었다. 南傳上座部佛敎三藏經典外의 著作이다. 揭諦는 파라카 마바하왕 1세(巴 paraMtamabāhu I)의 청으로 스리랑카의 문학의 編年史「大史」(巴 Mahāvamsa) 및 佛敎傳說編을

근거로 하여 쓰여졌다. 기재하기는 印度 羯陵伽國(Kaling)의 佛牙城 王子 陀多와 왕비 稀摩梨가 佛陀의 在邊聖牙 一枚를 密藏해 가지고 도망하여 스리랑카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에서 佛牙와 관계 있는 역사가 적혀 있다. 우수한 巴利文歷史를 詩로 쓰고 있다. 佛牙가 스리랑카에 이르렀을 때 바로 吉祥雲色王(巴 Siri-Meghavanna, 362~389 在位)의 재위시였으며 佛牙는 최고의 예경을 받게 되고, 국가의 至寶로 지정되었다. 역대국왕이 즉위하기 이전에 모두 반드시 먼저 佛牙를 공양하는 취득권을 얻어야 비로소 人民의 擁護를 받았으므로 항상 政治紛糾가 일어났다. 이전에도 인도에서 많은 王子들이 佛牙를 爭奪하려는 전쟁이 일어났다.¹⁸⁾

4. 佛牙寺

佛牙寺의 色利名은 Daladā Maligāva이다. 지금 스리랑카의 坎底市(Kandy)의 馬拉葛瓦寺(Malagawa)이며. 모든 건축의 규모가 크고 웅장하며, 사원은 약 6미터의 一座의 臺基上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주위에 사원을 보호하는 河가 있다. 上下兩層으로 나누어 있고 마루로 된 堂이 연결되어 있으며 기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主殿으로 佛殿이 있고 鼓殿이 있고 長廳, 大寶庫, 誦經廳 등이 있다. 핵심은 양층의 內宮이며 그중에 黃金蓮臺의 위에 佛陀의 牙齒가 供奉되어 있다. 그러므로 佛牙寺라고 칭한다. 이 佛牙는 원래는 인도 羯陵伽國所在이며 4세기 경에 스리랑카에 이르렀으며, 처음에는 王都 아누라다푸라성(Anurādhapura)의 塔園寺에 두었다가 14세기경에 本寺에 이주해 왔다. 혹은 4세기에 吉祥雲色王(Sire-Meghavanna)이 왕궁의 옆에 새로 佛牙精舍를 짓고 聖牙 공양하였다고 한다. 이 밖에 현재 널리 佛牙節을 중시하여 행

17) 『出三藏記集』 卷二, 卷三, 『法怨雜錄原始集目錄』 卷九 參照.

18) 『佛光大辭典』 三卷, p.2616 參照.

19) 上揭書, p.2616-2617 參照.

사를 봉행하고 있는데, 이 本寺가 중심이 되어 성대한 遊行儀式을 거행하고 있다.¹⁹⁾

5. 佛牙舍利塔

佛牙舍利塔은 北京 西山 八大處의 第二處인 靈光寺 옛터에 위치하고 있다. 釋迦牟尼佛 入滅후에 二顆의 聖牙가 있었는데 一顆는 獅子國(현재 스리랑카)에 전해졌다고 하며, 一顆는 오장국(인도 북부 蘇瓦特河流域)에 전해지고 후에 于闐國에 전해졌다고 한다. 5세기에 南朝僧 法獻이 서역에 가서 于闐國에 이르렀을 때, 佛牙를 齊나라 수도 南京(建業)에 가지고 왔다. 隋가 天下를 통일하고 佛牙는 또 長安에 이르게 되었는데, 五代時에 中原이 戰亂이 있어 또 輾轉하여 遼의 燕京(北京)에 이르게 되었다. 遼의 道宗 咸雍 七年(1701)에 佛牙舍利를 北京 靈光師 招仙塔(8세기)의 舍利塔 중에 供奉하였다.

그런 후 이 塔은 淸 德宗 光緒 二十六年(1900) 義和團 사건 때에 八國 연합군이 砲擊하여 황폐하게 되었고, 후에 보수 수리하고 건축하여 옛모습을 회복하였다. 舊塔의 基臺 중에서 深香木盒이 나와서 佛牙가 內藏되어 있어, 드디어 새로 건립한 舍利塔에 이송하고 七寶金塔의 蓮座上에 供奉하였다. 佛牙舍利塔은 金碧輝煌한 八角形 十三層 密檐磚塔으로 塔高가 51미터이며 西山 산록에 우뚝 서 있어 北京 교외의 명승지 중 하나가 되고 있다. 塔內 第一層에 『金剛般若經』이 새겨진 銅版이 나오는데 전해 오기로는 元代의 書法家 趙孟頫가 쓴 글씨라고 한다.²⁰⁾

6. 佛牙節

佛牙節은 현재 스리랑카에서 불교법회로서 성대하게 거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매년 八月에 坎

底市(Kandy)에 있는 佛牙寺와 印度敎寺院이 연합하여 佛牙遊行을 거행하고 있는데 언제나 저녁 8시에 시작하여 11시에 절로 돌아간다. 八月 一日부터 十二일에 이르기까지 十二天을 지나가는 시간 이므로 Handy에서 遊行하는 가장 盛大한 法會라고 칭한다. 佛牙史에 기록된 것에 의거하면, 이 顆의 佛牙舍利는 第一國寶이며 佛陀를 대표하는 佛牙로서 중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4세기경에 南印度 Kalinga國에서 獅子國(스리랑카의 古名)으로 密傳해 이르렀다고 한다. 처음에는 王都 아누라다푸보라 성의 塔園寺에 안치하고 매년 三月에 一次 佛牙遊行儀式을 거행하고 佛牙를 無畏山寺에 보내서 공양하고 90일이 되면 塔園寺에 보내왔다. 요즘에 행하는 것은 간략해져서 옛날과 같지 아니하다. 14세기에 王都가 坎底에 천도하면서 佛牙 또한 새로 건축한 佛牙寺에 옮겨 와서 供奉받게 되었다.

현행하는 의식은 서기 1775년부터 시작한 것인데, 그 때에 吉祥이라 칭하는 獅子王의 재위기간에 거행했던 것으로, 遊行隊는 다섯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聖佛牙隊, 保護神像隊, 毘濕奴神像隊, 戰爭神像隊, 女神像隊(大梵天神의 妻) 등을 包括하고 있다. 淸 一일은 兩項으로 비교적 특수한 의식을 거행하는데, 一은 전쟁신이 호송해서 佛牙寺 부근의 마하메리 항하에 이르러서 劍을 씻는다. 一은 遊行隊伍가 印度敎의 伽那提婆拘波羅神廟에 이르면, 세계 인류를 위해서 平和를 祈求한다. 신도들은 이 명절의 경사스런 기간에는 온 힘을 다하여 사원과 僧衆에게 보시하고 공덕을 구한다.²¹⁾

佛牙는 근본 塔園寺에 안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초에 이르러서 서방세력이 스리랑카에 들어온 후 스리랑카 왕조는 즉 中部山地 坎底市에 천도하고 佛牙도 여기에 이주하고, 새로 佛牙寺를 건립하고 고양하였다. 아울러 매년 八月 一日로부터 융숭하게 佛牙遊行祭典을 거행한다. 그러므로 坎

20) 前掲書, p.2617 參照.

21) 『佛國記』, 『大唐西城記』 卷十一--『僧伽羅國條』, 『南傳佛敎史』(淨海)

底遊行盛會라고 칭한다. 지금은 세계의 중요한 節慶으로 되어 있어 찾아오는 순례자들이 많다.

IV. 舍利에 관하여

1. 舍利

舍利를 梵語로는 Sarīra, 巴利語로는 Sarīra라고 한다. 이것은 즉 死屍라고 하며, 遺骨의 뜻이 있다. 또는 實利, 設利羅, 室利羅라고 하며, 意譯으로는 體, 身, 身骨, 遺骨이라고 한다. 보통 불타의 유골을 가리키고 佛骨, 佛舍利라 칭한다. 이후에는 고승이 死後에 화장하여 남겨진 骨頭를 말한다 『金光明經』 卷四 「捨身品」 에는, "舍利는 戒定慧를 熏修한 공덕으로 생기며, 얻기가 매우 어려우며, 최상의 복전이 된다."²²⁾고 하였다. 또 佛舍利를 안치한 보탑을 舍利塔이라고 하고 佛舍利를 奉安한 병을 舍利瓶이라 하고 佛舍利를 공양하는 법회를 舍利會라 칭한다. 『長阿含經』 卷四 「遊行經」, 『菩薩妻胎經』 卷三 「常無常品」, 『法華經』 「提婆達多品」 에는 全身舍利와 碎身舍利的 說이 있다. 이외에도 유골 전부를 收入하여 一塔을 세운 것을 全身舍利라 하였다. 全身舍利와 碎身舍利說의 기원은 인도에서 리그베다 시기에 행했던 토장과 화장의 二法으로서, 토장유체를 全身舍利라 칭하고, 화장 후의 遺骨을 碎身舍利라고 칭한다. 『浴佛功德經』 에서는 사리를 둘로 나누고 있다. ① 生身舍利 : 身骨舍利라 칭하며, 즉 佛의 遺骨이다. ② 法身舍利 : 法頌舍利라 칭하며, 佛이 남겨 놓은 教法, 戒律을 舍利에 비유한 것이다.

『法苑珠林』 卷四十에서는 사리를 셋으로 나누고 있다. ① 骨舍利이며 그 색은 白色이다. ② 髮舍利로서 褐色이다. ③은 肉舍利로서 赤色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舍利는 骨片이므로 그 형상의

大小가 같지 않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佛의 유골은 三分을 하여서 諸天과 龍王 및 인간이 나누어 가졌는데 帝釋天은 佛의 牙舍利를 얻어 天上에 들어가 공양하였다고 한다. 佛舍利를 禮拜하는 것 이외에도 阿難, 目連, 舍利佛 등 불제자의 舍利를 예배하기도 한다. 대개 遺骨舍利를 예배하는 취지는 佛이 成道한 菩提樹, 金剛寶座, 佛이 지나간 자취 등을 영원히 예배하기 위해서이며, '佛을 만나 法을 듣는' 因緣을 맺어 속히 菩提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 佛이 入滅한 후, 諸王이 干戈 兵기를 가지고 힘으로 佛舍利를 취하고자 하므로, 佛舍利를 八國에 분배하여 八國이 다 舍利를 가지고 돌아가서 각기 塔供養을 일으키었다고 한다. 佛舍利를 八國에 분배한 사적에 관해서는 모든 경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여기에서는 생략한다.²³⁾

八分舍利 후, 阿育王 時에 이르러서 羅摩伽國 이외에 七塔을 세웠다고 하며 그 舍利가 많기로는 八萬四千 개의 보배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八萬千 보배를 세웠다고 한다. 巴利文 大史에 기록한 것을 보면, 阿育王의 아들 摩睺陀가 스리랑카에 이르러 弘敎하니, 天愛帝須王이 阿育王을 향하여 사리를 청구하여, 지극한 장엄의식을 행해서 맞아들였다.

그밖에 『高僧 法顯傳』 「獅子國」條에 기재하기는 이 나라 국왕성중에 佛齒精舍가 있다 하였으며, 『大唐西域記』 卷十一에도 같은 기록이 있는데, 僧伽波羅國 왕국의 옆에 佛牙精舍가 있다고 하였다

서역지방에서는 佛舍利를 공양하는 것이 성행하였다고 『法顯傳』 에 기록하고 있으며, 那竭國 내 성중에 佛의 頂骨精舍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西域記』 卷一 「迦畢試國」條에서는 이 나라의 용왕이 탑을 세워 如來의 骨肉舍利를 供奉하였다고 한다.

王城 西北의 大河 남쪽 언덕에 舊王伽藍이 있는

22) 『大正藏』, 一六卷 p.354 上

23) 『長阿含經』 卷四 「旅行經」 記載 參照.

데 그 중에 如來頂骨 一片을 봉안하였다고 하며, 또 『西域記』 卷十二에 기재하기는, 唐 玄奘이 귀국할 때에 如來舍利 150粒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한다. 한편 『宋高僧傳』 卷一에는 當代 義淨이 귀국할 때에 舍利 300粒을 가지고 돌아와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성으로 사리를 얻고자 기도하여 얻었다는 기록이 대단히 많이 있다. 『出三藏記集』 卷十三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는, 康僧會가 江東에 이르러서 吳王 孫權을 알현했는데 王이 불법의 영험한 일을 질문하므로, 이에 三七日 기도를 청하여 사리를 感得하였다. 왕명으로 力士를 시켜 철퇴로 쳐서 부서지게 하였으나, 터럭 끝만큼도 이상이 없어 왕이 크게 탄복하고 드디어 建初寺를 건립하였다고 적고 있다. 또한 『廣弘明集』 卷十七, 『集神州三寶感通錄』 卷上, 『法苑珠林』 卷三八 同卷四十등에도 晋代, 劉宋 이후의 사리에 관한 神異와 舍利塔을 세운 사적을 많이 적고 있다. 이러한 類는 지성으로 사리를 구하여 얻었다는 이야기이고, 佛의 眞身舍利와는 같지 아니하다

『法苑珠林』 卷三八에 기재한 것과, 『廣弘明集』 卷十五에 열거된 19座의 舍利塔 중, 岐陽 法門寺에 있는 것은 北周 武帝 滅佛(574) 때에 훼손되었다. 후에 唐 顯慶 四年(659)에 塔을 중건하기 위하여 塔 基단을 열었는데, 사리 八粒을 얻었다. 다음 愍帝 東都 大內(宮闕)에 청함을 입어 공양을 받고, 龍朔 二年(662)에 사찰로 돌아갔다. 憲宗 元和 十四年(819)에 다시 궁중에 초청받게 되었는데, 그때에 韓愈[한퇴지]가 『佛骨表』를 올려서 막았다. 한퇴지는 "말하자면 佛은 오랑캐의 사람이고, 그 마른 골은 궁중에 들어올 수 없으며, 모든 물이나 불처럼 근절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帝가 노하

여 한퇴지를 벽지인 潮州刺史로 내려가게 하고, 愍帝로 張仲素에게 『佛骨碑』를 짓게 하였다.

『大智度論』 卷五九에는, 芥子와 같은 작은 사리를 공양하여도 이 공덕 또한 無量無邊하다고 하였다.²⁴⁾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곳에 많은 舍利가 있지만 몇 개의 예만을 들어 보려 한다. 7세기 신라 공예예술의 정수를 보여 주는 감은사지 동쪽 석탑(국보 제112호)에서 발견된 金동사리함이다. 이 金동사리함은 96년 4월 25일 탑을 해체하던 중 三층석탑 윗면 舍利孔에서 심하게 파손되고 흙과 부식층이 두 겹 겹 덮인 채 발견된 것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 보존과학실이 이번에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복원된 金동사리함은 크게 바깥을 감싼 外函과 안쪽의 舍利器로 구성되어 있다. 外函의 겉면에는 허리가 가늘고 몸을 비트는 등 生동감과 유연성을 강조한 사천왕상을 배치하고 있으며 사리기는 전각형으로 사각연화대좌 위에 연꽃이 조각된 보주형 塔신을 안치하고 있다. 또 주위에 사천왕상과 尊상, 사자상을 비롯한 여러 부재를 장식해 화려함을 보이고 있다.

사리 54과가 담긴 이 金동사리함은 이번에 처음 공개한 것으로 제작기법이나 유물 형태로 볼 때 7세기 신라 공예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불교조각사와 공예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리함은 바깥함의 도금막 두께가 0.5~0.7cm이며, 金製風鐸이고 아울러 外函의 도금막은 두께가 17cm로 균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라의 도금기술이 대단히 뛰어났음을 보여 준다.

그 밖에 明帝가 佛舍利를 韓國에 구한 기록도 있다. 世宗 元年(1419) 己亥年에 明나라 皇帝가 興

24) 『雜阿含經』 卷二二, 『佛般泥洹經』 卷下, 『佛本行集經』 卷七 「八王分舍利品」, 『大品般若經』 卷十 「法稱品」, 『寶篋印陀羅尼經』, 『無垢淨光陀羅尼經』, 『十誦律』, 卷六十 「五百比丘結集三藏法品」, 『法華經玄贊』 卷三, 『俱舍論光記』 卷八, 『四分律行事鈔 資持記』 卷下 四之一, 『光弘明集』 卷一, 『洛陽伽藍記』 卷五, 『慧琳音義』 卷二七.

天寺에 所藏되었던 佛舍利를 구하였으므로 金漸이 上言하기를, “竺僧 丘臣이 말하기를, 石塔에 所藏된 佛사리 四枚는 新羅時代부터 代代로 寶藏한 것이며 또한 靈異함이 있으니, 바라옵건대 얻어서 山門을 留鎖할까 합니다.” 하니 王이 말하기를 “石塔의 舍利는 天子가 아는 것인데, 어찌 이것을 靈異한 보물이라 하여 숨겨 두고, 獻上하지 아니하고 天子를 속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나라에는 이러한 것이 비록 없다고 할지라도 災怪는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니 그대는 의심하지 말라”²⁵⁾ 하였다는 기록이다. 이 기록을 유추해 보건대 臣下 金漸은 舍利는 靈異한 寶物이니 山門을 留鎖해야 한다고 上言하는데 世宗은 明天子를 속일 수 없다는 答화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朝鮮은 崇儒抑佛政策이었으므로 世宗은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 생각되며, 明나라 주원장은 승려 출신이므로 사리를 구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舍利를 보냈는지는 기록이 분명하지 않다.

위의 책에 達摩波羅가 舍利를 傳한 기록이 있다.

癸丑年(1913) 八月에 南印度의 錫蘭島(스리랑카) 高僧 達摩波羅가 日本에서 건너와 關皇寺[曹溪寺]에서 三日間을 講演하고 純金函 佛舍利 一個를 朝鮮 僧侶代表인 金綿潭에게 전달하였다는 기록²⁶⁾이 있다.

2. 舍利會

사리에 대하여 강의하는 것을 舍利會라 칭한다. 즉 佛의 遺骨을 공양하는 법회이며, 유적을 강의하는 것으로 佛足을 돌로 만드는 등 석존 유적을敬仰하는 講會이다. 全稱하면, 舍利供養會이다. 佛舍利를 공양하고 그 공덕을 찬탄하는 법회이며, 또한 舍利懺法이라고도 말한다. 인도에서는 옛부터 사리를 崇敬하고, 공양도 병행하였다. 『長阿含經』 卷

四 「遊行經」에는 석존 열반 후 대중이 香花 伎樂에 등으로 全身舍利를 공양하였다고 하였다. 또 『大品般若經』 卷下 「法稱品」, 『大悲經』 卷二 「舍利品」 등에도 불사리 공양의 諸功德을 기재하면서, 이와같이 하면 天上, 人間 중에 복락을 얻은 것과 같고 涅槃의 果 등을 얻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

『廣弘明集』 卷17, 『法苑珠林』 卷40에서는, 중국 당대 이전에 사리탑을 만들고 공양을 올린 일을 기록하고 있다. 唐 顯經 五年(660) 이후에는 여러 번 岐陽 法門寺의 佛舍利를 궁중에 맞아들여 공양하였다. 그 후 역대가 다 사리를 공양하는 의식을 거행하였으며, 清代에 이르러서 繼僧이 『舍利懺法』 一卷을 지었으며, 弘贊이 『禮舍利塔儀式』 一卷을 써서 세상에 전하였다.

일본에서는 처음에 司馬達 등이 사리를 얻은 일을 기록하고 있고, 계속해서 鑑眞, 空海, 圓行, 圓仁 등이 중국에 가서 佛舍利를 청하여 가지고 왔다. 당초제사, 동사, 연역사, 범류사, 약사사, 중존사 등에서 年例의 행사로서 사리공양을 행하고 있으므로 舍利會, 舍利講이라고 칭하며, 혹은 舍利報恩會라 한다. 眞言宗에서는 釋迦牟尼如來 入滅日 2月15日의 前夜에 四座法會를 수행하고 있다. 사리강은 涅槃講, 羅漢講, 遺蹟講, 舍利講 등과 함께 四座講式 중의 하나에 드는 중요행사이다.²⁷⁾ 涅槃講은 佛이 입멸한 상에 대한 최후의 공양으로 공경하여 받드는 것이고, 羅漢講은 16아라한이 佛의 칙명을 받아서 遺法을 護持하는 것을 찬탄하는 것이고, 遺蹟講은 如來의 八相成道에 대한 유적을 생각하여 연모하는 사상이 생긴 것이며, 舍利講은 佛의 遺身인 사리의 공덕을 찬송하는 것이다. 眞言宗에서는 이 四座法會를 涅槃會에 充당하고 있으나 근래에는 많이 생략하고 있으며, 다만 涅槃講과 혹은 舍利講만 행하고 있다.

25) 『韓國佛教略史』 權相老 著 釋性法 編譯(望月寺). p.261-261 參照.

27) 『蓮華面經』 卷上, 『分別善惡報應經』, 卷下, 『人智度論』 卷59, 『興禪護國論』 卷3. 『今昔物語』 卷12.

3. 日本의 舍利禮文

불타의 사리를 예찬하는 것을 가리키고, 佛의 원력으로 중생이 해탈을 하고 平等大智를 얻는 것을 예찬한 글이다. 『諸廻向清規式』 卷5에 있는 것을 들어 보면,

“萬德圓滿한 釋迦如來 自心舍利에 일심정례하고, 本地發心한 法界塔에 우리들이 예경하며, 이로써 나에게 現身하여, 나에게 들어오며, 내가 또 그 속에 들어가 佛의 加持로써 내가 보리를 얻으며, 佛의 위신력으로써 중생을 이익케 하여지이다. 또한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행을 수행하여 圓寂에 같이 들어가며, 이와 같은 평등한 大智를 얻기를 원하므로 이제 頂禮를 하나이다.”²⁸⁾

舍利禮文은, 日本 眞言宗과 禪宗에서 전승하고 있으며,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현재 또한 장례 중에 舍利禮文을 독송하는 儀例로 거행하고 있다.²⁹⁾

4. 舍利塔의 語源

塔은 梵語로는 stūpā이고, 音譯으로는 藪斗婆, 數斗波, 蘇偷婆, 素覩라 하고 간략하게 말해서 塔波, 偷波, 兜波, 佛凶, 浮凶, 浮層, 佛塔이라고 한다. 意譯하면, 高顯處, 功德聚, 方墳, 圓塚, 大塚, 墳陵, 塔廟, 廟, 歸宗, 大聚, 聚相, 靈廟가 된다. 또한 ‘頂’ ‘堆土’의 뜻이 있다.

원래는 불타의 사리등물을 봉안하려고 甄으로 만든 건축물이다. 그러나 후세에 이르러서 佛陀足跡, 祖師 高僧의 遺骨 등을 안치하려고 흙덩이, 石, 甄,

木 등으로 건축해 놓은 것이며, 목적은 供養禮拜하기 위해서이다. 응당 불타 舍利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塔에 구별이 있다. 무릇 불타의 사리가 있는 것은 塔이라 하고, 불타의 사리가 없는 것은 支提로[梵 caity]라고 칭한다. 이것에 준한다면, 불타 舍利가 안치되어 있는 쿠시나가라, 마갈타 등 八塔은 塔이며, 그 밖의 카필라성 佛生處, 붓다가야의 菩提樹下의 成道處, 녹야원의 轉法輪處塔, 기원정사의 대신통처탑, 곡역성변 삼도보개처탑, 기사굴산 대승경처탑, 암마위림 유마현칠처탑, 사라림중 열반처탑 등 八大靈塔은 즉 다 支提에 속한다.

造塔의 기원과 관계가 있는 것은 불타시대로 멀리 소급해 올라 가면, 수달 장자가 일찍이 불타의 모발과 손톱을 구해 가지고 탑을 세우고 공양하였다고 한다.³⁰⁾ 또 파사익왕이 불타를 본받고자 가섭 불탑을 건립하고 예배공양하였다고 한다.³¹⁾ 불타가 入滅한 후에는 파파국, 인차라국, 라마가국 등 八國에 香姓波門이 佛陀 사리를 八分하여 나누어 주었으며, 八國은 각자 모시고 가서 탑을 세우고 공양하였다. 이것이 탑을 세우게 된 효시이다. 이 밖에도 불타 입멸한 후 200년경에는 마갈타국에 군림한 阿育王이 일찍이 그의 영토 각지에 八萬四千寶塔을 건립하였다.³²⁾

탑은 세계 각지에 저명한 건축으로 된 것이 지극히 많으며 종류도 아주 많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우리 나라는 華嚴寺의 舍利塔과 전라북도 金山寺의 舍利탑이 유명한데 新羅末期의 石造建築으로 되어 있다. 이 탑들은 二重方壇의 위에 세워졌는데, 壇의 四面에 天人의 조각이 있고, 네 모퉁이에는 獸形이 있으며, 塔身은 砲彈狀으로 나타났고, 위에는 九龍頭가 있으며, 아울러 冠은

28) 『大正藏』 81卷 p.686 下

29) 『淨土苾芻寶庫』 卷下, 『特寶通賢』 卷下 「涅槃」條, 『舍利例文鈔』 一卷

30) 『十誦律』 卷56 所載

31) 『摩訶僧祇律』 卷33

32) 『阿育王傳』 卷一, 『善見律毘波沙』 卷一

蓮花와 寶珠로 장엄하여서 지극히 壯麗하다.

대개 탑의 안에 納藏된 것으로 구별하여 말하자면, 탑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1) 舍利塔 : 불탑이라 칭한다. 本義는 佛身을 다비한 후 結成된 舍利를 안치하기 위해서 세운 탑이다.
- (2) 髮塔 : 佛陀의 모발을 供養하기 위해서 세운 탑이다.
- (3) 爪塔 : 佛陀의 指甲[손톱] 足趾를 공양하기 위하여 세운 탑이다.(須達 長子가 佛陀의 모발과 손톱을 구하여 탑을 세우고 공양한 것이 髮塔, 爪塔을 건립하게 된 濫觴이 되었다.)
- (4) 牙塔 : 佛牙를 공양하기 위하여 세운 탑이다.
- (5) 眞身塔 : 高僧의 眞身[肉身]을 공양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저명한 유적으로는 宋산에 있는 정장 법사의 眞身塔으로, 唐代에 法門寺에 건립한 것이다. 後晋 때에 건립한 摩騰 大師 眞身塔도 있다.
- (6) 灰身塔 : 高僧 다비 후 그 遺燼을 수습하여 탑을 세우고 안장해 놓은 것이다.
- (7) 碎身塔 : 전신 혹은 遺燼을 안치한 탑이며, 단지 다비 후의 遺燼의 일부분을 納藏해 놓기도 한다. 다만 日月潭의 慈恩塔은 玄奘 大師의 碎身塔이다.
- (8) 普通塔 : 普同塔이라고도 칭하며, 衆僧 유골을 一處에 收納하는 것이다.
- (9) 三界滿靈塔 : 所有하고 있는 有緣無緣의 遺骨을 합동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 (10) 瓶塔 : 오곡이 풍성하게 풍년이 들게 祈求하기 위해서 그 중에 벼, 곡식을 收藏하는 탑이다.
- (11) 一字一石塔 : 하나하나 小石위에 『法華經』 등 경문 중의 一字를 새겨서 땅속에 파묻고 그 위에 탑을 건립하는 것이다.

『觀虛空藏經』에는 또한 佛陀의 毛髮塔, 衣塔, 鉢塔, 牙塔 등의 四塔이 忉利天上에 세워졌다고 전

한다. 소위 ‘帝釋四塔’이다.

이 외에도 『法華經』 卷4 「법사품」에는 탑 중에 경전을 안치하는 것을 기재하고 있다. 아울러 경전은 여래의 법신이므로 또한 마땅히 탑을 일으켜서 공양해야 한다고 하였다.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장경탑은 南天鐵塔이며 『金光頂經』이 안장되어 있다.

중국 房山 雲居山寺의 南塔 중에 180개의 大經碑와 4,080개의 小經碑를 埋納하고 있다. 上에 기록한 각종 納藏物 외에도 또한 塔內 혹은 塔身에 불타의 八相成道의 도상을 조각하고 있는 것도 있다. 棲霞寺 사리탑 기반에 조각한 八相成道의 조각은 저명한 遺例이다.

十塔의 說에 관해서는, 東晋 때 법현이 번역한 3권본 『大般涅槃經』 卷下에서는 佛이 열반에 든 후 八王이 이미 사리를 얻어 가지고 기뻐하여 머리에 이고 본국에 돌아가서 탑을 세웠다고 한다.

바라문과 모든 力士들도 쫓아 와서 얻어 가려고 하여 사리병에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탑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이 10처에 탑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十誦律』 卷60에는 罽越국 중에 八處에 舍利塔이 있었다고 하며, 第九處에는 瓶塔이 있었고, 第十處에는 炭塔이 있었다고 한다. 『阿育王經』 卷6에도 또한 十塔의 說이 있다.

그러나 『般泥洹經』 卷下 및 『藏阿舍經』 卷5에는 十一塔의 說이 있다. 前者는 第九는 瓶塔이고, 第十은 定塔이고, 第十一은 灰塔이라 하였다. 後者는 즉 소위 第九는 瓶塔이고, 第十은 灰塔이고, 第十一은 生時의 髮塔이라고 하였다. 上에 기록한 舍利 八塔의 위치는 抱尸國, 波波國, 遮羅國, 羅摩伽國, 毘留提國, 迦維羅國, 毘舍離國, 摩伽陀國이다. 소위 十塔이라고 하는 것은 頂塔, 牙塔, 齒塔, 髮塔, 爪塔, 衣塔, 鉢塔, 錫塔, 瓶塔, 輿塔이다. 그러나 의거할 수 있는 자료는 상세하지 아니하다.

5. 骨壺

사리병이라고 하며 舍利壺이라고도 한다. 유해

를 화장한 후 遺骨을 저장하는 容器이다. 옛날에는 금속, 도자기, 石類 등으로 만들었다. 후세에는 흔히 나무를 파서 만들었다. 佛陀가 入滅한 후 金瓶에 佛舍利를 담아서 鳩夷國 正殿에 안치하였다. 얼마 후에 변경의 八國이 모두 發兵하여 찾아 내었다. 香姓 婆羅門이 경영하여 八分으로 나누어 주어, 八國이 각자 舍利瓶에 담아 가지고 돌아갔다.³⁴⁾ 당시 八國 중의 하나인 가비라위국이 얻은 舍利瓶을 1898년 1월 네팔의 필보라와(piprawa)에서 파내었다. 그 밖에 신강거고(古 구자국) 지방의 폐탑 중에서도 목제 骨壺 一個를 얻었다. 直徑이 약 20cm이고, 높이가 약 16cm이며, 밖은 금박을 붙였으며, 안에는 白骨 및 寶玉이 있었다.

骨壺는 보통 墓表 아래에 매장하거나 혹은 殿堂의 一角에 안치하고 있다. 韓國은 일찍이 經尙北道 尙州에서 金銅舍利壺가 發現되었는데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圓筒形으로 되었으며, 병뚜껑에는 獅子鈕가 있고, 瓶身에는 四天王像이 陰核되어 있다. 높이는 약 11cm이며 直徑이 7cm이다.

V. 結 語

犍陀羅 以前の 印度文化는 波羅門, 吠陀文化의 結合品이며, 窣堵波(佛塔)의 최고 오래된 型式은 베다의 墳墓에서 찾아볼 수 있다.

佛敎 初期에는 弟子들이 遺骨을 供奉하기 위하여 塔八座를 건립하였다. 阿育王 시대에 와서 塔 중에서 舍利를 取出하여 나누어 가지고 八萬四千佛塔을 건립하였다.

기원전 2세기에는 菩提葉, 法輪, 足印 등이 供奉 대상이 되었으며, 支提堂의 基壇上에 佛傳故事를 조각한 후에 비로소 佛像이 생기게 된 것이다.

우리나아세어 後來에 佛塔을 세우는 것은 또한 이 觀念을 이어 받은 것이다.

다른 宗教美術과 마찬가지로 불교예술 역시 신

앙과 예배를 위한 造形을 그 임무로 삼고 있다. 그 起源과 발달은 불타의 聖蹟地나 신앙의 터전인 寺院을 중심으로 삼고 예배의 대상인 塔과 佛像 등의 造成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인도에 있어서는 교조인 석가모니의 行蹟과 관련되어 유서 깊은 땅이 신성시됨으로써 그와 같은 성지를 중심으로 불교미술이 크게 발달되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지 약 506년 정도 경과한 뒤 처음에는 불교도들이 불상을 보고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할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불상이 조성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인도 全域은 물론이고 마침 전도의 같이 열린 서역, 중국, 우리 나라 등지로까지 세계 전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이후 아시아 세계 전 지역에 걸쳐 수많은 불상들이 조성되었는데, 몇cm에서 100여 미터가 넘는 대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걸작들이다.

우리 나라의 고대문화는 4세기 후반 불교의 전개와 함께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존하는 고대문화유산은 대부분 불교를 내용으로 하는 예술작품에 국한되었고, 그것도 耐久性이 강한 金石에 제한되어 있다.

대체로 불교미술은 그 예배대상인 佛塔과 불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특히 우리 나라 고대인들의 예술적 천재성이 이들 塔像을 만나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 중에서도 건축의 분야에 속하는 佛塔의 경우, 우리의 山河 到處에서 생산되는 花崗石을 主材로 하여 뛰어난 조형작품을 이룩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한국의 佛塔은 石塔으로 그 대표를 삼을 수 있으므로 우리 나라는 '石塔의 나라'라는 아름다운 칭호를 듣고 있다. 전국적으로 석탑과 불상은 많이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 하나뿐인 佛牙舍利와 舍利塔이 乾鳳寺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우리의 佛牙舍

34) 『長阿含經』 卷四「遊行經」, 『佛般泥洹經』 卷下, 『勅修百文清規』 卷六.

利를 살펴보고, 外國에서 얼마나 佛牙舍利를 공경하는지 고찰해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의 佛牙舍利와 外國의 佛牙舍利 信仰과 舍利塔의 語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外國은 우리보다 더 한층 佛牙舍利를 공경하는 法會가 많은데 우리는 그저 찬경하는 데 그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本人은 1993년(佛紀

2537년) 癸酉年 仲秋佳節에 佛牙寶宮 重建上樑文³⁵⁾을 지은 善緣이 있다. 필자가 이 論文을 쓰면서 發願하는 佛牙舍利의 수승한 인연으로 國泰民安과 風調雨順을 希望하고, 影響으로 대중이 向上되고 向善하며, 社會風氣가 改善되어 民心이 淨火되기를 바라며, 家內의 安락과 번영을 원하는 것이다.

35) 乾鳳寺寶宮 重建 上樑文

恭惟 毘盧金剛山之南麓 嶽然而峙立乃是天功之福地西方有鳳石爲乾鳳 尉然而深濶認爲地上之勝區
 惠顧乾鳳寺 肇建於羅朝阿道和尚 按遺文斯兄重建於麗代道詵法師 有古跡可考
 嗚呼 凡天道循環 星霜累換馴致曲護之失其宜由時運往復 風雨侵凌每恨營葺之靡能會
 噫 理之無際可信於古然發徵祖師 茲設精進阿彌陀事之興發可見乎斯由變悠災 掃塵庚寅六二五
 事與時會 是以 保守仍舊泗溟的 信默卓錫之所 乃涓穀旦
 功自誠來 葺治圖新玄素的 金剛護法之堂 將舉棟樑
 日是至矣 寶宮皆革登降之瞻眺是國之美 頗增壯麗
 人來應焉 棟宇益廣禪教之相資是智慧長 乃得功德
 遂乃 踊躍天龍八部 獅子相響 雲行雨施山明秀麗
 歡呼三寶人衆 仁澤光被 還到人生上品下生
 大筆弘書未盡錄 以頌其美皆圓滿 茲綴單詞
 憶念往劫無量數 此高幢讚宜永傳 幫助兒偉
 兒郎偉拋樑東 日光照耀無邊界 燄目於能觀察 莊嚴其身萬世榮
 兒郎偉拋樑南 該羅法界一心源 毘盧峰中結祥雲 天長地遠利群生
 兒郎偉拋樑西 勝地金剛有乾鳳 承天體道塵佛不染 鳳鳥善觀顯神通
 兒郎偉拋樑北 發微舊地彌陀念 肉身騰空三十一 三世莊嚴未曾有
 兒郎偉拋樑上 佛光慧月難思議 教化衆生無遺量 知慧自在不思議
 兒郎偉拋樑下 以佛解脫甘露雨 滅際衆生諸渴愛 惠施池井涓泉流
 兒郎偉拋樑後 佛光增輝獨明耀 三界滅惑 百劫人間
 寺勢益日永怯昌 六趣證道 永鎮山門

山中秩 往持 玄素

大衆

木手

佛紀 二千五百三十七年(西紀 一九九三年) 癸酉 仲秋佳節

文學博士 承後 蘇真弘 撰

중국 구강의학 사략(史略)*

이 병 태**

중화(中華)와 한족(漢族)의 역사 시작

중국 역사는 아득히 먼 옛날 전설 속의 삼황오제(三皇五帝)로 부터 시작한다.

삼황은 복희(伏羲)·신농(神農)·황제(黃帝)이다. 복희는 가장 오래된 책으로 보는 《역경(易經)》의 괘(卦)만들었고, 신농은 농경(農耕)과 약초(藥草)로 치료하는 법을 알아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을 썼으며, 황제는 《황제내경(黃帝內經)》을 편찬한 예법(禮法)과 의학(醫學)의 창시자이다.

그리고 그 전설 속에 5제(五帝)와 하(夏)·은(殷) 왕조가 있었다. 이런 전설들이 차차 역사시대로 편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기전 12세기초 은나라 말기부터 역사시대로 들어가 주(周) 춘추(春秋) 전국(戰國) 진(秦) 한(漢) 삼국(三國) 진(晉) 남북조(南北朝) 수(隋) 당(唐) 오대(五代) 송(宋)[요(遼)·금(金)] 원(元) 명(明) 청(淸)을 거쳐 중국(中國)에 이르고 있다.

중국(中國)이란

중국이라는 국호는 1911년 10월 10일(음력 8월 19일) 손중산이 대총통으로 취임하면서 성립한 중화민국(中華民國)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56개(漢族과 55개 소수민족)민족을 통합하고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 성립하면서 우리와 맞닿게 되었다.

폐쇄된 채 외교가 없던 한 시절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中共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평통외교가 벌어져 시작하면서 중국이 국제 운동 대회에 참가하면서 선수들 단체복에 中國이라고 쓰면서 자연스럽게 국호로 자리잡게 되었다.

오늘날 중국은 러시아·우즈베크스탄·몽골·우리나라 등 12개국과 접해있고 면적은 우리나라의 43.5배이고 3,400개의 섬을 가지고 있다.

인구도 13억이라는 엄청난 국가이다.

행정은 4개 직할시(北京 上海 天津 重慶), 22개 성(省), 5개 자치구(몽골·닝화회족·신강위구르·광서장족·서장(티벳))로 되어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아주 밀접한 나라이다. 지금도 동북삼성(吉林省 黑龍江省 遼寧省)은 우리 민족이 살고 있으며 특히 길림성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가 있어 중국과 국교수립 후에는 왕래가 잦아졌다.

최근 100년간은 동방의 치의학과 모든 문화 문명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동양적인 것이 잊혀지거나 묻혀지고 있는 시기였다. 이러한 때에 중국을 마음놓고 연구하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알고 주체(主體)를 재인식하는데 크나큰 다행이다.

중국 구강의학 사략(史略)*

중국 전통의학 중에 구강의학은 충치·치주병·구강의상과 화농성질환을 연구하고 치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이다. 긴역사 과정 중 구강과는

* 이 내용은 주대성(周大成)저 《중국구강의학사고(中國口腔醫學史考)》(1991)의 239~243쪽을 번역·정리한 것이다.

** 명예회장, 이병태치과의원

명칭도 많이 변해 내려왔다. 구치과, 이목구치과, 구치인후과 그리고 민국시대***에 아과[牙科, 야커]라고 하였고, 구강과[口腔科, 귀창커] 명칭은 해방**** 후 1950년대 이후부터 점차 사용하기 시작했다.

은(殷)나라 때 여러 가지 갑골문자(圖 질구(疾口), 질설(疾舌), 질언(疾言), 질치(疾齒), 치우(齒齣) 등)가 생겨났다.

한(漢)나라 초에 중국 제일 처음으로 우치 증례를 기재하였다. 한 나라 말 장중경(張仲景)이 쓴 《구치론(口齒論)》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고 없어졌다.

수(隋), 당(唐) 시대의 의료기관 태의서에는 5개의 전공분야가 있는데, 이목구치(耳目口齒)가 한 개 과로 되어 있고 의학박사인 교수와 조교가 지도하였다.

송(宋)나라 때 처음으로 태의서를 세우고, 후에 태의국으로 바꾸어 아홉 개 과를 두었는데 구치인후(口齒咽喉)가 하나의 과로 되었다. 원(元)나라 때에는 의학을 13개 과로 나누었는데, 구치과 혹은 구치인후과가 여전히 있었다.

중국 역대의 구강의학 저작(著作)이 그 수는 10여 종이나 되지만, 그 대부분이 이미 유실되었고,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유일한 구강의학 전문서는 명(明)나라 때 설기(薛己)가 저술한 《구치류요(口齒類要)》이다.

한 나라 때에 것으로 출토된 《오십이병방(五十二病方)》중, 이미, 구강질환의 치료인 <치맥(齒脈)>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 치맥을 보면, 느릅나무 껍질과 월계수 등 몇 가지 약물을 사용하여 아치(牙齒)를 충전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중국 최초의 치아 충전술이다.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은 치과 치료용 약물을 조제한 내용이다.

장중경(張仲景, 약 150~229)의 저작 《금궤요략

(金匱要略)》에 이렇게 나와있다. ‘웅황(雄黃)과 두루미냉이 이 두 종류를 가루로 내서 그슬러 녹인 돼지 지방과 함께 화나무 가지 끝으로 찍어서 네 다섯 개의 약을 때운다.’ 이것은 치아 치료약을 조제하는 방법이다. 미국의 스푸너(Spooner, 1836)보다 1500년 이상 빠르고, 현재 세계 많은 국가가 아직도 이 조제약 삼산화비소(arsenic trioxide)을 치아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구강의학 방면에 크게 기여한 것 중 하나이다.

위(魏) 시대의 혜강(懼康, 223~262)은 《양생론(養生論)》을 썼다. 그 중 ‘머리에 있는 이[珮, 슬]는 검고, 사향노루는 잿을 먹으니 향이 난다, 목에 위험한 것은 흑이고, 산서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이는 누렇다.’는 상황은, 산서지방에서 마시는 물에 비교적 많은 불소가 들어 있어 치아의 만성불소중독증을 일으킨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불소중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황아(黃牙)”인데 과거에는 반유(斑釉, mottled enamel)라고 불렀던 것이다. 반유는 반점치(斑點齒)와 같은 말인데 다만 법랑질 속의 얼룩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불소와는 관계없는 뜻이었다. 그래서 현재는 불아증(dental fluorosis)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의 Eager(1901)보다 1,600년 넘게 빠른 것이다. 이것 또한 중국 구강의학 사상(史上) 중요한 발견이다.

먼 옛날 진(秦) 나라 때 벌써 언청이 수술법이 있었다. 그러나 진(晉)대에 와서야 문자로 기술할 수가 있었고, 액체식품의 필요성과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주의사항을 발표하게 되었다.

《진서(晉書)》에 이를 뽑다가 죽는 예(拔牙致死症例, 발아치사증례)가 나와 있다. 이렇게 쓰여 있다. ‘원치아오(溫嶠) 선생은 이에 병이 있어 뽑아야 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중풍에 걸려 죽게 되었다. 시년사십이(時年四十二).’ 이 시

*** 中華民國

**** 中華人民共和國

대에 이미 이를 뽑는 것과 전신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

수 나라 때의 《제병원후론(諸病源候論)》에 ‘발치후유증(拔齒候)’이 들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혈기가 부족한 사람을 발치하면 피가 멈추지 않고, 저장을 못하고 있으니 어지럽고 답답하다.’ 이것은 이를 뽑은 후의 출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미 지식의 진보가 있었다.

의사(醫事)제도 방면을 보면, 당 나라의 태의서(太醫署)는 실제상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생긴 의학교이다. 네 개의 계열 중 5개 과로 누었다. 그 중 이목구치(오관)<耳目口齒(五官)>가 한 개의 과이다. 학생 수는 총 학생수의 10%이다. 수업은 4년제이고, 매 학과마다 박사가 학생을 가르키는데 그 밑에 조교, 의사, 의공(醫工) 등이 도와 가르쳤다.

당 나라의 소경(蘇敬) 저 《신수본초(新修本草)》(659)에 이미 수는 합금을 이용해 이를 충전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백석(白錫)과 은박(銀箔) 그리고 수은(水銀)을 합성하면, 응고된 은과 같아 탈락한 이를 보충할 수 있다.’ 영국인 벨(Bell)이 최초로 수은합금을 사용한 것이 1862년이니, 아직 150년도 되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는 1,350년 전에 이미 수은을 합성하여 이를 충전하는데 사용했다. 이것도 중국 구강의학 방면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발명이다.

손사막(孫思邈) 저서 《천금요방(千金要方)》에 하악관절이 탈골되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술자가 손가락으로 턱을 잡아 당긴 후에 점차 밀면 들어가서 회복된다. 이 때 손가락으로 밀어낼 때 물려서 상처를 입기 쉽다.’ 《천금요방(千金翼方)》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나무로 술자의 손을 보호하는 것을 만들어 깨물려서 입는 상처를 방지하는 방법이 기술되었다.

당 나라 때 이후, 아통(牙痛)치료에 혼아법이 계속 사용되어왔다. 《천금요방》에 ‘검은 산양의 기름과 칩뿌리를 같은 양으로 섞어서 쇠술에 넣고 태워서 연기가 나면 흘겁 천으로 머리를 뒤집어 쓰게

해 입으로 들어가게 한다.’ 하였다. 왕도(王燾)의 《외태비요(外台秘要)》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칩뿌리 세홉을 준비한다. 그리고 7문 짜리 옆전을 빨강계 달구어 입이 작은 병 속에 담아, 사람의 입에 물게 한다. 병 속 있는 그 동전 위에 칩뿌리를 조금 얹어 놓는다. 그러면 소리를 내며 타는데 이 때 물을 조금씩 여러 번 뿌린다. 곧 기체가 나오면 그 것을 혼치에 사용한다. 차갑게 식으면 다시 해서 세 홉의 약을 다 쓴다.’ 고 하였다. 조선의 《동의보감(東醫寶鑑)》과 일본의 《의심방(醫心方)》에도 이 혼아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용기구는 동일하지 않다. 청 나라의 태의원(太醫院)에서 이미 은으로 된 혼구를 제조하였다. 큰 약을 통에 넣고 은 호수에 연결시켜 치통부위에 눌러 물게 함으로써 약의 증기를 얻게 하였다.

이 것이 아주 교묘한 방법이다. 또한 구강의료기구의 발전을 볼 수 있다. 은제 혼아 기구는 지금 까지 고궁(故宮) 태의원에 보존되어 있다. 맹선(孟詵)은 그의 저서 《식료본초(食療本草)》에서 이렇게 지적하였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없어지고 이(齒)에 해롭다.’ 이것은 설탕을 먹으면 이에 해롭다는 현재 충치의 원인과 같고 실제적 상황과도 일치한다.

둔황 모까오쿠(敦煌莫高窟, 둔황막고굴) 제196 동굴의 이 닳는 그림인 《계치도(揩齒圖)》와 입을 행구는 그림인 《수구도(漱口圖)》는 옛날 중국의 구강위생과 관계가 있는 두 폭의 벽화이다. 구강의학 사적(史的) 관점에서 관찰한다면 참고 가치가 매우 높다.

요 나라 때에는 구강의학 방면에도 가치 있는 연구 내용이 있다. 과거에는 이를 깨끗하게 하는데 손가락, 치목 혹은 치포(齒布) 등을 사용했다. 그러나 요 나라 때에는 오직 칫솔만 있었다.

1956년에 《중국구강의학사고(中國口腔醫學史考)》 저자 주대성(周大成)박사가 북경에 있는 고궁 박물관을 참관할 때, 빼로 된 두 개의 칫솔 자루를 보았다. 전시품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열하성

대영자춘 요 임금의 사위 위국왕(衛國王)의 묘지에서 출토된 것이다. 그 형태는 현재의 칫솔과 형태가 매우 닮았다. 솔 머리 부분의 털 심는 부분이 두 줄이고 여덟 개의 털 심는 구멍이 있다. 이것은 요 시대에는 이미 두 줄로 털 심는 칫솔이 있었던 것이며 그 가능성이 높다. 이 묘지는 1953년에 발견되어 1954년에 출토되었다. 이 묘는 서기 959(요 응력 9)년 목종(穆宗) 시대의 묘지로 밝혀졌다. 지금 약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과거에는 줄곧 털 심는 칫솔이 송 대에 발명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현재 우리는 먼 옛날 요 대에 이미 매우 합리적인 칫솔을 제조할 능력이 충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의 털 심는 칫솔은 17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출현했다. 중국에 비해 대략 700년도 넘게 늦은 시기이다. 이 것 또한 중국이 구강위생 방면에 미친 중요한 공헌 중의 하나이다.

1976년, 내몽골 저성현(穰城縣)의 일궁(一肯) 공사가 요 시대의 묘를 하나 발견했고 묘비를 완벽하게 출토했다. 거기에는 조부 등연정(鄧延正)의 구강의료 사적(事跡)이 적혀있다. ‘조부 연정은 음양오행(陰陽五行)과 복서(卜筮) 등 술수(術數)로 사람의 길흉을 따지는데 능했으며, 의술도 뛰어났다. 궁궐로 불러 들어가 황태후의 치아 질병을 진료하였는데 성공적이었다. 그 뒤 황태후의 수행원이 되어 성대한 힘과 부하를 소유하였고 연못이 있는 집에서 살 수 있었다. 그는 병에 걸린 가난하고 천박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치료해 주었다. 공적이 쌓여 절도사에 이르렀으며 공신이 되어 우천우위상장군(右千牛衛上將軍)이 되었다....’ 이 비문에서 보면 다음을 알 수 있다. 요 성종(聖宗, 983~1030) 때에 등연정은 황태후의 치아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였다. 그는 가난하고 고독한 자들에게 충실했고 잘 보살피 주었다. 그러므로 발전할 만한 연구를 하지 못해 남긴 자료가 많지 않다. 그러나 구강역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귀중한 것이다.

송(宋)나라 때의 구강의학은 당(唐) 대의 기술을 토대로 매우 발전하였다. 《성혜방(聖惠方)》 중의

‘치아 치료는 이가 빠진 곳에 구리로 튼튼히 끝을 고정하는 것이다.’ 등은 모두 중국에서 10세기 경에 실시한 치아재식술이다. 외국의 제일 빠른 재식술은 프랑스의 Fauchard(1722)가 했는데 대략 중국에서 보다 700년 가량 늦은 것이다.

의치에 관한 문헌은 현재까지는 조사에 따르면 송 대의 것이 최초의 것이다. 육유(陸游, 1125~1210)가 쓴 《세만유흥(歲晚幽興)》시 중에 나와 있다. ‘묘지를 점치고 관을 짜고 운반하는 데에는 내가 가장 능하나, 수염을 염색하고 이를 심는 것을 사람들은 비웃는다.’ 그리고 ‘요즈음 빠진 이를 해놓는 의사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는 구절이 있다.

육유보다 10년 뒤의 루약(樓澁, 1137~1213)의 저서 《공괴집(攻酪集)》의 <증종아진안상문(贈種牙陳安上文)>에 이렇게 나와 있다. ‘진생술은 천하의 묘한 것이다. 치아에 질병이 있는 것은 평범한 것이다. 재주의 손을 들어, 새롭게 바뀌 사람으로 하여금 가지런한 이빨을 보존하여 편리하게 사용한다.’

그 때는 이미 의치 수복은 비교적 흔한 시기였다. 유럽은 18세기에 들어 인아(人牙)·하마아(河馬牙)·상아(象牙)·우골(牛骨) 등으로 의치를 완성하였다. 대략 송(宋)보다 700년 넘게 늦은 시기이다.

송 대에는 칫솔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미 보편적이었다. 온혁(溫革)의 저서 《쇄쇄록(櫛碎錄)》과 주수중(周守中)의 저술 《양생류찬(養生類纂)》에 기재 되어 있다. ‘일찍 일어나 칫솔질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들뜬 뿌리와 흔들리는 이를 없애주고 오래된 잇몸염증을 없애준다. 대개 칫솔은 전부 말꼬리로 만들었다.’ 진자명(陳自明) 저 《부인대전량방(婦人大全良方)》(1237) 산후장호법 항목에는 이렇게 나와있다. ‘혀를 긁으면 안된다. 심기(心氣)에 해를 준다. 그리고 칫솔질을 하면 안된다. 피의 역류를 가져온다.’ 1332년 일본에서 중국으로 유학온 도원선사(道元禪師)는 중국 승려들이 소빨

로 만든 손잡이에 말꼬리가 칫솔로 된 것으로 칫솔질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불결한 기구이다.’ 라고 했다. 이 견해는 고대에 버드나무가지로 이를 닦는 것을 근거로한 견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칫솔질의 반대 논술을 볼 때, 당시의 칫솔질 방법은 올바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그 시대의 칫솔을 이해할 수 있다.

소동파(蘇東坡, 1037~1101)의 《동파집권70(東坡集卷70)》 중, 차를 마시면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나에게 한가지 방법이 있다. 늘 자신이 아끼는 것이다. 매번 식사가 끝나면 즉시 항상 진한 차로 애치질(함수·양치질)을 하면 답답한 기름기가 나갈뿐 아니라, 또한 비위(脾胃)도 모른다. 모든 고기는 이 사이에 낀다. 차로 양치질을 하면, 어렵지 않게 빠져나간다. 까다롭지 않고, 게다가 편리한 양치질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는 견고하고 조밀하게 된다. 잠병(蠶病)은 중하급차를 마셔도 된다. 잠병(蠶病)은 스스로 계속 있지 못하고 며칠 사이에 그칠 것이다. 또한 이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이치에 맞는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므로 상술하여 말한다. 원풍(元豐)6(1083)년 8월 23일.’ 현대 구강의학의 발전에 따라, 차잎 속에는 불소 함유량이 비교적 높은 것이 실증되었다. 일찌기 소동파는 차(茶)를 마시는 것이 충치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1253년 엄화용(嚴和用)이 쓴 《제생방(濟生方)》에 구강종양[內疔瘡, 내감창]을 절제하는 방법이 기술 되어 있다. ‘종양의 뿌리를 칼로 절단하여 뽑아낸다. 가열한 기구로 7,8분 지지면 지혈된다.’ 이러한 락철(烙鐵)지혈법은 당 나라 때에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됐다.

원(元)나라의 음선대의(飲膳大醫) 홀사혜(忽思慧, 1330)가 쓴 《음선정요(飲膳正要)》에 잠자기 전에 이를 닦고 소금을 이용하는 칫솔질을 서술하였다. ‘아침에 이를 닦는 것 보다 밤에 이를 닦는 것이 낫다. 그러면 치질(齒疾)이 없다.’ 당 나라 때

소금을 이용해 이를 닦으면 구강질환을 예방한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소금으로 치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제창했던 것이다.

명(明)나라 때에는 말꼬리 칫솔 이외에 또 종려털로 만든 칫솔도 출현했다. 고렴재(高濂在)의 《준생팔전(遵生八箋)》(1498)에는 ‘종려털로 만든 칫솔로 이를 닦지 말라. 치아가 상한다.’ 청(淸)대 조정동(曹庭棟)이 쓴 《로로항언(老老恒言)》(1699)에서, ‘좋은 칫솔을 사용하지 않으면 잇몸과 치아에도 해를 끼친다.’ 칫솔은 식물 종려나 말갈기로 제조한 것인데 그 것들은 모두 은(疆) 조직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은 상당히 이치에 맞는다.

명(明)나라의 양계주(楊繼洲)가 쓴 《침구대성(鍼灸大成)》(1601)에, ‘침은 반드시 삶은 침으로써 모서리에 출혈 시켜야 한다’ 고 하였다. 이는 소독하여 감염을 방지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가치있고 개발된 진보이다.

청(淸)나라 고세징(顧世澄)의 《역의대전(易醫大全)》(1686)에, ‘언청이를 수술할 때 마취약을 바른 후, 피부를 절개하고 자수 바늘에 실을 엮어 봉합한다. 근육에 살이 가득하게 생기면 실을 뽑는다.’ 고 서술하였다.

1668년 유구국(琉球國; 오키나와, 沖繩, 충승)의 위사철(魏士哲)이 당시 38세 때 서쪽의 물을 건너 복주(福州)로 와서 명의 황금발(黃金發)에게 중국식 언청이 수술법을 배웠다. 그리고 귀국하여 유구국(琉球國) 왕의 손자와 다른 환자 6명을 시술하였는데 흉터도 남지 않고 완쾌되었다. 이것은 당시 언청이 수술에 상당히 높은 기술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

건륭(乾隆)시대 량옥승(梁玉繩)이 쓴 저서 《백사집(白土集)》 27권에서 말했다. ‘지금 시대의 상점엔 치아를 해박는 집[補齒鋪, 보치포]이 있다. 걸린 간판에는 의치를 하니 진짜와 같다.’ 고 쓰여 있고 이런 일은 송(宋) 이래로 계속 있다.’ 고 하였다. 《칠수류고(七修類稿)》에 치아에 관한 말이 있

다. 오늘날 이를 보철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얼마 후 치아재식술과 안장치(按裝義齒)를 구별하게 되었다. 이 설명은 중국의 수복 방법은 이미 상당히 선진적 수준이었음을 말해준다.

18세기 이후, 서양의학 기술이 중국에 들어옴에 따라, 중국 구강의학은 크게 발전하였다. 신중국 성립 이후, 그 발전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현재 구강의학 방면은 구강내과학(아체병·아수병·아주병·구강점막병 등 학과), 구강외과학(아조골·합면·종류·정형 등 학과), 구강교형과학(총의치·국부의치·관교 등 학과), 구강정기과학, 구강예방보건과학, 구강의사학 등 다방면의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미 일군의 구강의학 전공인원을 양성했고 그 중 또 한 무리의 전문가가 출현하였다. 구강질환치료에 침구와 중약치료를 응용하여 중의학(中醫學)과 서양의학(西洋醫學)이 결합하여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대성(周大成)박사는 끝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신중국 성립후의 구강의학 발전 상황은 누부시었다. 그러나 문제점과 특성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구강의학은 세계 선진국가에 비교한다면 낙후 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은 10억(1986년 현재)의 인구인 대국인데 단지 일만 명 정도의 구강과외사가 전국 인민 구강

질환을 치료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구강의학원(치과대학)의 부족이다. 중국이 해방 전에는 5개소의 구강의학원이 있었고, 1984년에는 22개소로 증가하였고 1986년에는 모두해야 간신히 30개소가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와서는 33개소로 증가하였다. 교사(교수), 교사(학교)설비 등이 아직도 비교적 부족할 뿐더러 모집 학생의 수도 또한 많지 않다. 구강의학 교육 발전에 아직 많은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중국 해방전의 구강의학 서간(書刊)이 아주 적은 것이다. 바로 구강의학의 과학 보급도서가 많지 않았다.

건국후 출판된 구강과 교과서와 참고서가 단지 200여 종이였다. 구강의학 정기간행물을 말하면 각종 서적 안의 것을 포괄하여 단지 15종이었다. 마지막 하나를 말하면 비정기 발행의 내부 간행 <아치보건지우(牙齒保健之友)>인데, 자금 출처는 전부 구강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기부로 그 생명을 유지하였다.

기타 구강과잡지는 모두 계간이고, 오직 <중화 구강과잡지(中華口腔科雜誌)>만이 1986년에 비로소 격월간을 시작했다. 잡지는 연기되어 출판되는 것이 자주 있는 사정이었다. 구강의학 출판물 방면에서 보면 구강의학이 발달한 미국, 일본 기타 여러 나라에 비하면 아주 부족한 형편이다.

綜 說

짧은 中國齒學史

日本에서의 周大成의 特講要旨

Summary of Chinese Dental History

李 漢 水¹⁾ 譯

중국의 방대한 치과의학사를 간결하게 그 요점만 집약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작업의 첫 단계로 우선 중국인 학자 주대성(周大成)의 보고를 번역하였다. 주대성은 최초(?)로, 「중국구강의학과고(考)」(북경인민위생출판사, 1991)를 저술하였다. 그의 이 글은, 1981년 「일본치과의학사 학회 회지 8권 2호, p.47~48에 게재된 전기한 학회 총회에서 특별강연 ‘중국구강의학발전간사(簡史)’요지의 전문(全文)이다. 중국인이 쓴 일본어이기에 다소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음은 양해되어야 하리라.

본고는 또 중국 치과사만을 대상으로 연구하려는 한국에서의 첫 의도이며 착수이기도 하다.

특강의 요지 전역(全譯)

구강질환은 인류가 조기에 이환하는 질환의 1종이어서, 북경 부근의 주구점(周口店)에서 발견된 약 50만년전의 북경원인 및 약 1만년여 전의 산정동인(山頂洞人) 악골에는 이미 치주병을 앓은 흔적이 보였다.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가 하남성(河南省)에서 발굴한 신석기시대 말기의 묘소의 15체(體)의 인골 구강에는 7체가 우치를 가지며, 10체가 치주병을 갖고 있다. 치아 마모에 의해 치수가 괴사하고, 근단질환을 갖는 개체가 5예나 있고, 지치주위염의 증례도 보였다. 이들 소견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구석기시대 및 신석기시대에는 구강질환이 상당히 존재했던 것이 인지되었다.

구강질환에 관한 가장 옛적 기록은 은대(殷代)의 수도이던 하남성 안양현의 은허(殷墟)에서 발굴된 지금부터 3천년여 전의 갑골문의 복사(卜辭)에서 볼 수 있으며, 치아에 관한 것만도 50편 이상에 달하고 있다.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가 하남성 안양(安陽)에서 은대의 노예와 자유평면 및 노예주인의 작은 묘장(墓葬)을 발굴하여, 그 발굴한 인체의 우치 및 치주병을 조사하니, 치주병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우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음이 판명되었다.

중국 최고(最古)의 의서인 「내경」(黃帝內經)에는 구치방면에 관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었다. 이를테면 유치 및 영구치의 맹출기와 교환기는 그것이 매우 근대적 통계와 부합되고 있다. 옛사람은 치아를 깨끗이 하며 아름답게 하여 용모를 보기 좋게 함에 유의하였다. 「丹脣外郎, 皓齒內鮮」(洛神賦), 「明眸皓齒」(杜詩) 등은 인류의 아름다운 치열에 대해 찬미한 구(句)이며, 치열부정을 ‘주어’라 하고

* 본고는 이미 필자가 월간 「치과연구」(2000년 1~2월호, 47권 1~2호)에 발표한 내용이다. 동지(同誌)와 본지의 양해를 받아 전재한다.

¹⁾ 서울, 분회 중신명예회장

있다.

「주례」(周禮)에는 「계시명, 함과수」라는 기재가 있어, 함수함이 옛사람의 좋은 습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원전 2세기, 서한(西漢) 초의 의사 순우의(淳于意)가, 중국 최초로 우식증 증례를 보고했다. 당시는 병지(病誌)를 진적(診籍)이라 했다.

이 증례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기재되었다. 환자의 직업, 병명, 요법, 처방, 병중, 병인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당시의 구치질화 치료로는 침구와 함소제를 사용했다.

동한(東漢)시대의 장중경(張仲景)은 「구치론」(口齒論) 1권을 저술하였다. 이것이 중국 최초의 구강분야의 전문서이다.

이 책은 후세에 유실됐다. 장중경은 또 다른 저서인 「금궤요략」(金匱要略)에는 비소(砒素)로 치수실활을 시키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치수실활제이다. Spooner가 비소를 치수실활제로 사용한 때는 1836년이라, 중국보다는 약 1천년이나 뒤의 일이다.

이른바 지방병성(地方病性) 반상치(斑狀齒)에 관한 기록도 상당히 옛적이다. 한말(漢末)의 위(魏)의 시대 혜강(嵇康)이 저술한 「양생론」(養生論)에는 “치거진이황”(齒居晉而黃)이라 했다. 그는 이른바 반상치의 원인이 불소에 의한 것임을 아직은 몰랐으나, 산서성(山西省)에 거주하면 치아가 황색으로 변색된다는, 생활환경과 지방병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Eager가 반상치를 발견한 때는 1901년이나, 그도 당시에는 불소에 의한 것임을 몰랐다.

진(晉)시대에는 이미 토순(순렬)의 수술을 할 수 있었다. 수술후에는 유동성(流動性) 음식을 들며 담화함을 금했다.

수(隋)의 대업(大業) 6년, 소원방(巢元方)이 「소씨 제병원후총론」(巢氏諸病源候總論)을 저술하였다. 이 책에는 구강병에 관한 것만도 18론(論)이라는 많은 분량이고, 그 발치손후(拔齒損候)에는 발치후의 출혈에 관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 최초의 발치에 관한 문헌이다.

당(唐) 고종(高宗) 현경(顯慶) 4년(659), 소경(蘇敬)의 「당본초」(唐本草)에는, Amalgam으로 치아충전을 함이 적혀 있다. 당시는 그것을 ‘은고’(銀膏)라 했다. 그것은 은박, 수은, 백석 등으로 처방한 합금이다. 영국의 Bell이 처음으로 Amalgam으로 치아충전을 시행한 것은 이보다 1천년여 후인 1819이다.

당시대(唐時代)에는 방양지(房楊枝)로 치아청소를 했다. 치마제로는 주로 소금을 사용코, 소금과 몇 종류의 약을 섞어 닦는 사람도 있었다.

북송(北宋) 말년에 송(宋)의 휘종(徽宗) 등의 편집한 「성제총록」(聖濟總錄)에, 구치병을 논한 것이 5권이나 있다. 이것은 송(宋)대 이전의 여러 구치질환 요법을 종합한 것으로 치아재이식술(復安)을 포함시켜 그 내용이 상당히 풍부하다.

1953년에 전(前) 열하성(熱河省) 대여자촌(大營子村)에서, 요(遼)시대의 부마(附馬)인 위(衛)의 국왕 묘혈(墓穴)의 부장품 중에서 2개의 잇솔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요의 응력(應歷) 9년인, 959년의 것이다. 이것을 보면 송(宋)의 이전인 요시대에 벌써 잇솔을 발명했다.

명(明)의 만력(萬曆) 49년(1617) 진실공(陳實功)의 저서 「외과정종」(外科正宗)에는 구강외과질환의 요법과 그림을 그려, 순암(脣癌), 외골저(外骨疽·골수염), 주마감(走馬疔·수암), 순저(脣疽), 협정(頰涎), 아감(牙疳)등에 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完)

綜 說

실크로드의 起點에 관해서

西安市 西門說의 訂正과 解説

About the Starting Point of the Silk Road in China

李 漢 水¹⁾

1.

필자는 이른바 Silk Road의 동쪽 기점에 관해서 2회 언급한 바 있다. 즉 그것은,

- 1) 서역에 관한 의사학적 기초조사(제1보), 「대한 치과의사학회지」, 10권 1호, p.47~79, 1989
- 2) 출저, 「서역 치과의학 전래사」, p.2, 1993.

이상의 2회다. 상기한 1)과 2)에서 는 각기 “장안은 일찍이 당왕조(618~907)의 수도로서 그 시내에는 중심지에 위치한 중루를 기점으로 삼으면서 동서남북으로 뻗는 4개의 대로가 있는데, 그 서쪽으로 끝에는 서문이 있다. 이 서문이 바로 비단길의 기점이다”라 했다.

그런데 필자는 그 후, 자신의 이 서문설(西門說)에 관해 정정·보완의 필요성을 알게 됐다.

2.

- 1. 엄격한 의미에서, 실크로드의 지리적 동쪽끝, 다시 말해 중국에서의 시발점은 서안(장안)의 성곽 서쪽에 있는 서문(西門)이 아니라, 서문보다 약 1키로 북쪽에 위치한 성곽의 옥상문(玉祥門)부터 다시 성외곽(城外廓)으로 뻗는 대로를 약 2.5키로 나간 지점이다. 그 지점은 서안시의 성곽밖을 에워싼 대로(洋惠南·北路)와 교차하는

지점으로, 이 사거리의 남변(南邊)에는 당대(唐代)에 세워졌던 개원문(개원門)의 유적지가 있는데, 바로 이 지점이 그 기점이다.

- 2. 옛이름 개원문이란 ‘먼 길을 시작하는 문’이라는 뜻이다.
- 3. 현재, 전기한 이 지점에는, 실크로드가 개척된지 2100주년을 기념해 제작·건립한 아치형에 유사한 근대적 미술작품으로서의 ‘문’과, 또 중국 최대인 옛적 상인들 혹은 사신들의 조소작품이 있다.
- 4. 전기한 3의 아치형에 유사한 미술작품으로서의 ‘문’의 이름은 따로 없다.
- 5. 옛적 실크로드를 왕래하던 외국인과 중국인 대상(隊商)들은, 직접 서안시 성내를 통과할 수 없었다. 그들 상인은 전기한 지점에서 성문을 통해 성내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밖밖을 우회, 중국 각처로 다시 갔다. 그들이 성내로 들어가야 될 때에도 그 지점에서 일단 짐을 풀었다. 상인들의 사회적 신분이 얹었던 점도 자유롭게 성내로 직행하지 못했던 이유의 하나다. 외국인일 경우는 중국인의 자존(自尊)도 거기에 크게 작용되고 있었으리라. 성곽의 총 길이는 17km이다. 성벽의 높이는 10m, 폭은 넓은 곳이 13m이다.
- 6. 전기한 3의 실크로드 개척 2100년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와 다른 견해도 있다. 중국 사가(史家)는, 그 시작은 한 대(漢代)의 무제(武帝) 때부

¹⁾ 서울, 본회 종신명예회장

터라 주장한다.

7. 전기한 3의 조소작품은, 서방측의 외국인 상인 그리고 중국인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속국(屬國) 상인(내지는 사신)의 연립군상(連立群像)이다. 그 고유호칭은 알려져 있지 않다.

8. 게재한 사진은 2000년 8월초 촬영한 것이다. 그 실물의 크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촬영된 사진이다. 대륙인다운 큰 규모이다.

다음의 글은 참고로 보는 옛 개원문의 유적지 현 지에서의 안내문 내용이다.

“丝绸之路”石雕群位于西安大庆路绿色林带西端，(古唐代开远门遗址)，是为纪念“丝绸之路”开创2100周年而建立的，是全国最大的雕塑作品之一。

“丝绸之路”是古代横贯亚洲的交通道路。自西汉开始我国大量的丝织品以长安为起点，经甘肃、新疆，运往西亚、欧洲各国。这条商旅大道被称为“丝绸之路”。它促进了中国同亚、欧、非、各国的经济、文化交流，加深了各国人民之间历史悠久的友谊。

漢文설명문



당나라 시절의 개원문 유적지의 기념 조소작품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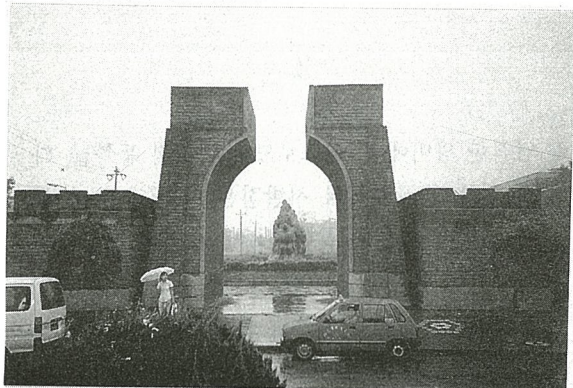
‘실크로드’라는 이름은 최초로, 1877년 독일인 Richt’hofen, F. F. von(1833~1905)이 그의 저서 china에서 명명한 것이다.

실크로드의 서쪽끝(서쪽의 기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의 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로 본다. 그 총 길이는 그 통로가 하나가 아니기에 또 실크로드는 어디서 어디까지 지나 하는 견해에 따라 아직은 정설이 없으나, 대체로 8천~1만2천키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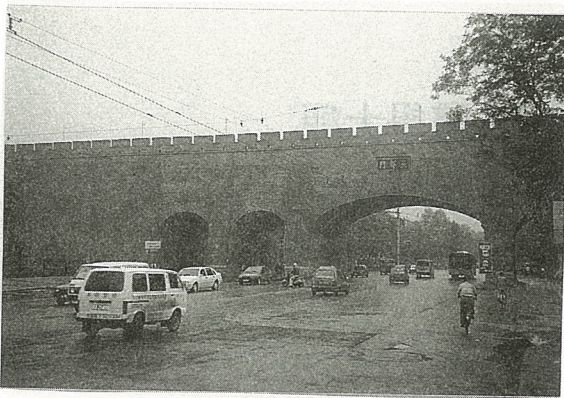
실크로드의 왕래가 흥성한 때는, 북위(北魏), 서위, 수, 당의 시대다. 당말부터 불교가 탄압되면서 이 길도 쇠퇴되기 시작했다. 명대에는 거의 완전히 쇠퇴되고, 이어 청대인 17세기말부터 18세기에는 다시 그 옛적 흥성을 되찾고자 했으나, 당시는 이미 해로가 잘 개척되어 여의치 못했다.

참고 1 : 개원문 유적지에 새로 세워진 근대적 미술 기념작품. 촬영자는 이 평식(李平植, 中國人民大學 法博, 중국정치사 전공). 촬영 2000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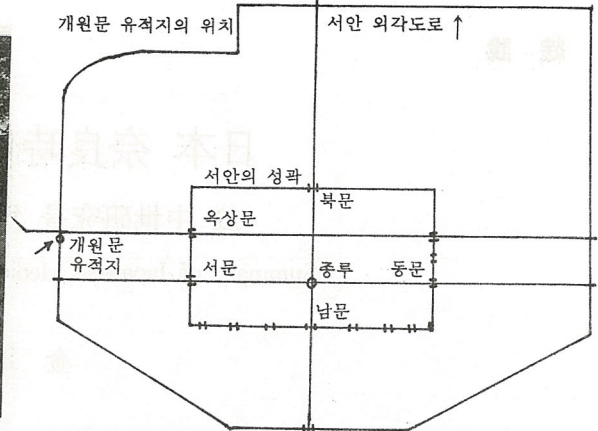
참고 2 : 세계 열강은 대략 1960년대부터 실크로드에 크게 주목하고, 아시아대륙 내륙의 경제적 진출을 목표로 경쟁하고 있다.



개원문 기념물, 각국 상인상의 조소작품



현 성안시 성곽의 옥상문



옛 개원문의 유적지 위치도

참고 3 : 실크로드에서는 수많은 이민족들이 서로 살고 있다. 그들의 언어도 갖가지이다. 실크로드에는 대략 200키로마다 촌락이 있다 그들과의 의사소통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과 2시간 가량 대좌하면 대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전한다. 이 지역으로의 한국의 다각적인 진출은 이제 대단히 늦은 감을 부인할 수 없다.

참고 4 : 실크로드 연변 주민들의 식량 및 경제사정은 예상보다 좋은 것으로 전한다. '풍족하다'는 표현까지 써여진다.

참고 5 : 유네스코의 인공위성을 통한 실크로드의

조사는 경이적 사실들을 발견코 있다. 그 내용에 관해서도 '학술적 시선'을 쏘아야만 한다. 英·佛·美·日·中 5개국의 실지답사와 학술연구는 지극히 활발하다.

참고 6 : 지금까지 중국인들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옛 왕도로서의 서안에 대한 자부능 대단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수도 결정 당시에 서안을 지지하는 여론은 매우 우세했다. 투표결과 단 2표 차이로 북경이 수도로 정해졌다. 서안일대는 중국대륙 중에서도 풍수가 가장 좋은 곳으로 이론(異論)이 없다.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ABSTRACT

About the Starting Point of the Silk Road in China

RHEE Han-soo DDS, Ph.D

It has been said that the eastern starting point of the Silk Road is western gate of Shian(西安). But in fact the starting point is the hitoric relics region of Gaewonmun(개원문)2.5Km westward away from Oksangmun(玉祥門) in Shian.

Key Words : Silk Road, Starting Point in China

綜 說

日本 奈良時代の 醫學大觀

그 中世研究를 爲한 基礎調查資料

Summary of Japanese Medicine in Nara-Epoch(奈良時代)

金正均¹⁾

序 文

본고는 일본의 의치약(醫齒學)의 발달사를 알기 위한 첫단계로서, 일본인 학자의 나라시대(奈良時代 710~784)의 그것을 번역한 것이다. 나라시대에는 유명한 고지끼(古事記)와 니혼쇼끼(日本書記)와 만요오슈(万葉集) 등이 만들어졌던 일본문화의 첫 개화기이다. 이 번역작업은 곧 이것을 통해서 한국 치과의학사를 연구하는 하나의 간접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는 뜻이기도 하다. 이 번역은 「의학사」(9판), 나가오 에이이찌(長尾榮一), 의치학 출판사, 1969, p.66~67의 전문(全文)이다.

本 文

나라시대(奈良時代)는 대륙의 문물을 수입함과 동시에 그것을 적극 실행으로 옮겨 점차 일본화시키려고 시도한 시대로서 중국의 당시대에 해당된다. 따라서 일본의 제도와 학문은 당(唐)의 방식을 우선 거의 그대로 배웠다. 이 때에는 견당사(遣唐使)를 비롯하여 당나라로 가는 사람 또는 당으로부터 와서 사는 사람의 수도 많았다. 나라시대에 앞서 552년에 들어온 불교는 번창되어 황실과 상류 계급과 밀착되어 그 세력은 크게 확대되었다. 불교는 당시에, 국가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국민감정과 잘 합치되는 국가안녕과 개인적 죄의 소멸을 목적

으로 삼은 정신적 의지처인 것이었다.

의학제도는 당나라 예에 따랐으며, 치료방침의 기본으로도 당의학이 채택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승의(僧醫)의 사회적 진출과 승려들이 가져온 경전에 기재된 인도의학사상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나중에 언급한다.

승의로서는 법장(法藏), 법련(法蓮), 감진(鑿眞) 등이 유명하다. 감진은 당부터 귀화한 맹인인 승려로서 본초(本草)에 능통했다. 그는 후일 세이무(聖武) 천황의 와병 때에 초청을 받았다고 한다. 역사상 유명한 활(弓)의 제조전문가인 도오교오(道鏡)는 황실의 간병승(看病僧)의 한 사람이기도 했다.

국가평강의 목적으로 역병의 유행과 천지이변을 다스리기 위해 임혀졌던 불전으로는 법화경, 인왕경, 최승왕금광명경 등이 있고, 이들 중에는 질병론이나 치료법, 양생법(養生法)이 서술되어 있다. 즉, 질병의 원인으로 4대(地·水·火·風)와 4시(時), 6절(節), 음식을 들고, 4대의 변화에 따라 4시(春夏秋冬)가 있게 되며, 또 6개의 계절을 구분해, 그 기후 변화에 즉응(卽應)해 음식을 조절하지 않으면 발병된다고 했다. 그리고 병은 풍병(風病)과 열병과 총집(總集)과 담음(痰飲)으로 크게 나누었다. 병의 총수를 흔히 4백4종이라 본 것은 4시(四時)에 각기 101개의 병이 날 수 있다는 것에서 온 말이다. 요법에는 8술(八術)이 있다고 하면서 소독법과 양생법이 거기에서는 추가돼 있었고 요법은 다시 내과와 외과요법으로 나누고 있었다.

¹⁾ 김정균 치과의원, 본회 명예회장

당시 일본에서는 인도의 의설과 함께 중국의설도 채택하고 있었다. 즉, 병의 원인으로서는 내인(內因)과 외인이 있다. 내인에는 피로와 희(喜)와 노(怒)와 비탄(悲嘆) 그리고 음양과 2개의 기(氣)의 부조화가 있고, 외인에는 풍(風)과 한(寒)과 서(暑)와 그리고 습(濕)이 있다고 보았다.

치료법으로는 정기(正氣)를 보충하면서 사기(邪氣)를 제거시키는 사혈법이 많이 응용되었다.

약제는 병이 내(內)에 발생된 때에 복용되었다.

승의(僧醫)들도 초기에는 일반 의사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었으나 점차 기도에 의한 치료법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으로 흘렀다.

의사(醫事)제도는 의질령(醫疾令)에 따랐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717~723년에 여의박사(女醫博士)의 제도가 생겨 그들에게는 7년간의 연수기간을 갖게 한 것이다. 이 제도는 후에 폐지되었다.

사회의료사업이 있게 되었다. 680년에는 노병(老病)의 승려를 위한 시설이 있게 되며, 723년에는 시약원, 비전원(悲田院)이 설치되어 빈민의 병자들을 수용시켜 치료했고, 730년에 시약원(施藥院)이 설립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시설들은 불교의 박애주의에 의한 것이고, 순수한 의료의 목적만은 아니었다.

나라시대 의학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제병원후론」(諸病源候論)과 「천금방」(千金方)이다. 모두 이것은 당나라시대의 것이다.

전자는 소원방(巢元方)의 것으로 50권이다. 후자는 손사막(孫思邈)의 것으로서 30권이다. 전자인 의서의 특징은 1200종의 병증을 임상적으로 상세히 관찰한 후에 갖가지 치료법을 소개한 내용이며, 후자는 전자보다는 약의 효용과 사용법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확실히 할 것은, 이와같은 의서가 즉, 수와 당의 의서가 나라시대에 수입은 되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이 사용된 때는 그 다음 시대인 헤이안(平安)시대라는 사실이다.

結 文

일본의 중세의 나라(奈良)와 헤이안(平安)과 가마쿠라(鎌倉) 및 무로마찌(室町)시대의 첫 번째인 나라시대 의학의 발달과 내용의 개요를 일본인이 집필한대로 번역 소개했다.

일본 나라시대의 치과 역사는 아직 자세히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나라시대 의학사를 우선 번역 보고함은 이 방면 연구의 기초작업으로서 필요한 것이리라. 이 부분은 현재까지 한국에 소개된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다.

ABSTRACT

Summary of Japanese Medicine in Nara-Epoch

Kim Jung-Kyun DDS, MSD, Ph.D

This article translates the Japanese medical history in Nara-Epoch into Korean that was written by Japanese in the Japanese language. The object of this translation is for serving as a mediate guidance to Korean researches on dental history.

Key Words : Japanese Medicine in Nara-Epoch

치아와 관련된 각 민족의 관습들*

邊 榮 男¹⁾

1. 머리말

人類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傳統이나 관습에 따라 민족특유의 독특한 文化를 形成하고 있다. 그러한 관습이 때로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쁜 것일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惡習이나 奇習이라 할지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유래와 의미가 있기 마련이고 그들은 별 거부반응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치아와 관련된 각 민족들의 관습을 고찰 정리하고 비교 음미해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 중국인 · 일본인 · 월남인등을 중심으로 이들의 관습이 어떠한가를 수집정리하여 독특한 풍습등을 엮어 보았다.

2. 우리나라의 치아관련 관습들

우리 조상들은 튼튼한 치아를 五福의 하나로 여겨왔다. 이와 관련된 풍습으로 “상치세전(常齒歲典)”이라는 행사가 있었다. 東國歲時記(동국세시기)¹⁾에 따르면 조정에서는 매년 정초(正初)에 나이가 70세 이상인 모든 관리와 그 부인들에게 쌀과 고기와 소금을 하사하여 그들의 치아건강을 축하하는 관습이 있었다. 치아의 건강과 長壽와 年上者에 대한 축하와 존경의 의미가 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옛적 우리나라에서는 치아를 貞操의 상징으로 여겼다는 사실이다. 李朝때의 이일로 당시 妓女들은 자기를 스쳐간 남자, 자

기에게 사랑을 주고가는 잊지 못할 사나이가 있을 경우 그 치아를 뽑아 간직하는습관이 있었다. 이를 수 없던 사랑을 달래는 방편으로 그들은 사나이의 치아를 뽑아달라하고 이별의 표시로 간직했던 동시에 애정의 징표로 삼았다. 李朝末期의 소설 “褻婢將傳(배비장전)”엔 妓女가 떠나가는 사나이에게 이별의 표시로 여러 가지를 요구하다 나중에는 발치까지 요구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은 “褻婢將傳”에 일관된 妓女 “애란”의 탐욕에서 빚어진 소설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妓女들 세계의 하나의 풍습이었다.

유교를 숭상했던 우리 민족은 몸의 일부를 부모에게서 물려 받은 것으로 귀히 여겨 손상시키는 것을 크게 욕되게 생각했다. 또 이 새가 뜬 것은 福이 달아난다고 아주 싫어했으며 해방전부터 6·25전 후로는 이 틈새를 복숭아모양이나 하트모양으로 “모리슨” 크라운을 해서 메꾸었던 시점도 있었다. 어린 아이들이 이같이 할 때 빠진 젓니를 지붕에 던지며 경건한 마음으로 좋은 새 이가 나오길 기대했던 풍속도 있었다.

이때 입에서 전래된 口傳동요로는 “까치야 까치야 헌집 줄 게 새집다오”하고 외치면서 지붕위에 던졌고 함경북도 지방에서는 똑바로 서서 양발도 나란하게 맞춰섰다 한다. 이것은 다음에 나올 새 이가 가지런하게 나오길 바라는 경건한 마음에서였으리라. 전라도 지방에서는 “까치야 까치야 헌이 줄게 새이다오”라고 약간 다른 표현을 썼다. 앞니 빠진 개구쟁이를 놀려대는 민요도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다. 안동, 김천 지방에서는 “앞니 빠진 갈가지 거랑가에 가지말라. 봉어새끼 놀린다”라고 외치

¹⁾ 성신치과의원

* 이조 23대 순조때(19세기초) 洪錫謨 積은 것

면서 놀려댔고 서울지방에서는 “앞니빠진 중강새 우물앞에 가지마라 붕어새끼 놀란다”라고 했고 전라도 지방에서는 “장구 장구 노장구 이빨빠진 노장구 시암가에 가지마라 붕어한테 뺨맞는다”라고 놀려댔고 또 따른 전라도 어떤 지역에서는 “앞니 빠진 개호랭이 시냇가에 가지마라 붕어한테 뺨맞고 새비한테 침맞는다”라고 했다. 또 이것은 이 교환시기 개구쟁이 아이들의 동네우물가에서의 부잡스런 행동을 자제시키는 의미도 있었고 아이들이 귀여워서 놀려대는 어른들의 마음도 담겨있었다. 아무튼 이를 잃은 허전함과 소중함도 함께 내포해 있었으리라 생각되며 다양한 표현이 흥미롭기도 하다.

3. 중국인의 치아관련 관습들

옛 중국인들은 결혼을 앞두고 신부의 성한 위앞니를 한 개 내지는 두 개씩 뽑는 습관이 있었다. 이것을 그들은 打牙 혹은 折牙라 했는데 신부가 출가하기 전에 할머니가 뽑아주는 것이었다. 그 목적은 확실치 않으나 口腔交接을 의식한 것이라 추측되는데 유부녀의 夫唱婦隨의 사상도 곁들여져 있는 것이다.

“貴川通志”에서도 시집가서 소박을 받지않게 미리 이를 뽑아 준비한다는 구절이 있고 谿蠻叢笑(계만총소)에도 여자가 성숙하면 그 표시로써 이를 뽑는다는 기록이 있다. “峒谿織志(동계섬지)와 田汝成의 炎激紀聞(엄격기문)”에는 有打牙狔狔, 父母死, 子婦各打二齒, 投之棺中, 以贈永訣也.라고 기록되어 있어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에도 앞니를 뽑았던 풍습이 있었다.

육친의 상을 당하면 며느리가 2개의 이를 뽑아서 관속에 넣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꿈에 앞니가 빠지면 부모상을 당한다는 풀이도 이런 연유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중국 남부의 소수민족 가운데는 남자의 경우 十四·五세기 되면 앞니 두 개를 뽑는 관습이 있었

다. 성인이 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즉 “雲南志略(운남지략)”에는 敍南烏蒙北 皆是男子及十四·五則左右擊去兩齒, 然後婚娶라고 했다.

張華의 博物志에도 耕州極西南界至屬諸民 日獠子…既長皆拭去上齒牙各一以爲身節라고 했다. 오스트렐리아인 사이에서도 성인식으로 “치린치리”라는 행사가 치러지고 소년소녀의 앞니 2개를 뽑는 습관이 있었다.

4. 越南人の 치아관련 풍습

安南민족의 역사는 기원전 333년전에 중국 浙江省에 살던 越足이 초(楚)나라에 밀려 南下하여 지금의 하노이와 하이퐁 지방에 판란왕국을 세운 것이 시작이다.

이와 관련된 풍습으로 지금부터 백여년전만 해도 부녀자들은 「까우」라는 것을 즐겨 씹었다. 현재는 월남 사람들조차 「까우」는 할머니들만이 씹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사실은 옛적엔 부녀자들 모두가 즐겨씹었던 것이고 시대변천으로 요즘에는 젊은 여자들이 씹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약혼식이나 결혼 혹은 제사가 있을 때는 이것을 내놓는다 「까우」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옛날에 어느 젊은이가 형수를 짝사랑했다. 그러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그는 멀고먼 타향으로 떠나고 말았다. 형수도 형님도 그가 어디로 왜 갔는지를 몰랐다. 그래서 밤낮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형님은 죽고 얼마후 그 무덤에서는 檳榔樹(빈랑수)나무 한포기가 나왔다. 그 후 세월이 흘러 형수마저 죽었다. 그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형수의 무덤위에도 역시 檳榔樹(빈랑수)나무 하나가 나왔다. 그때서야 젊은이는 홀연히 돌아왔고 그가 형님과 형수의 무덤을 찾자 거기에는 檳榔樹만이 곱게 자라 꽃이 피었고 빈랑수 열매는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순결한 사랑-젊은이는 그때서야 자신의 짝사랑

을 용서한 형님과 수의 뜻을 알았고 그때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부녀자들은 그 젊은이의 순결한 사랑을 되새기면서 「까우(빈랑수열매)」를 씹게 되었다. 「까우」는 빈랑수 나무의 열매를 베끼고 그 씨를 잘라 말린다음 거기에 석회류를 물로 반죽하여 붙이고 그것을 칩나무 비슷한 나뭇잎으로 싸서 만든 것이다. 이것을 씹으면 침이 빨갛게 되고 입에는 약간 쓴맛이 들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준다. 이것을 많이 씹으면 술같이 취한다. 빈랑수 열매는 치아를 갈색내지 옅갈색으로 착색시킨다.

5.. 日本人의 습관

치아는 눈에 띄게 하얀 것이 좋다는 생각이 많은 문명민족에게 공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지에 대해 일본인만이 최근까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日本의 옛 여인들은 결혼을 하면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습관이 있었다. 이것은 장식의 의미가 아니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남자를 필연적으로 성가시게 구는 일을 하고 있는 공창에서도 치아를 검게 물들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도꾸가와시대 그려진 그림중 치아시술 장면을 보면 기혼여성의 표시 혹은 일류기생의 미적 상징으로 이를 검게 칠하고 있는 그림이 등장한다. 일본속담에 흑치는 영원불멸이며 부부화합을 뜻한다고 하여 신부는 신랑집에 가기전에 흑치염색을 받는 예식을 거처야 한다. 이 흑치의 진정한 의미는 남편에게 영원한 순종과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이다. 물감은 주로 탄닌제2철이고 칠하는 도구는 작은 나뭇가지끝을 압박하거나 가닥을 잘게 부수어 붓처럼 만들어 치아에 칠하였고 부유층은 꿩이나 원앙깃털로 만든 솔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흑치풍습은 1700년까지 기생들간에 이어지고 있었다.

6. 기타 민족들의 관습

동부 뉴기니아와 멜라네시아 원주민들의 풍습으로 산돼지 혹은 들돼지의 치아를 뽑아 목걸이와 발걸이를 만들어 걸었다. 적도부근의 원주민들 중에는 초췌으로 남자가 성인이 되면 앞니를 뽑는 습관이 있었다. 이것은 원시사상에 기인한 심리로 치아를 애정이나 정력의 상징적 근원으로 여기고 呪術적인 견지에서 그로부터 오는 어떤 신비력에 힘입으려 했던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카리브섬의 종족과 남아프리카 민족도 오늘날 치아를 물들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다윈」의 마카사 여인들에 대한 보고에는 이곳의 여인들이 치아를 서로 빨강과 노랑으로 물들인다고 한다. 미개민족들은 치아를 물들이면 육체미가 고양된다고 생각했고 “니코바레젠”인 사이에서는 여인들이 돼지나 개처럼 하얀 이를 갖고 있는 남자에게서 사랑받는 것을 싫어해 회피했다.

스마트라의 “바다크”인들은 치아모양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관습, 즉 치아를 뾰족하게 만드는 관습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일종의 사춘기 성년의식으로 결혼식 풍습으로 행해지고 있고 신부는 이 풍습에 따라 치아를 뾰족하게 해야만 했다. 치아를 줄로 가는 것이 기혼여성의 심벌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치아가 깎여나간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유럽인들이 보기에 추함이 심할수록 남편에게는 매혹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여인들은 외부인에게 뺨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아프리카 여러지방과 말레지아 제도의 각지에서 원주민이 앞니를 톱모양으로 뾰족하게 하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 공모양의 금속을 넣는 기이한 관습을 가지고 있다.

7. 뺨음말

人類가 자신의 몸 일부를 變形시키거나 장식한

역사는 꽤 오래다. 9-15만년전 구석기시대 네안데탈인의 신체 彩色습관 기록이 있다. 그들은 赤色과 黃色인 흙을 資料로 신체를 화장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우리민족은 비교적치아를 소중히 여기는 풍습이 전해 내려왔었고 치아를 이용해 여인네들의 정조를 지키려는 기이한 풍습을 가진 민족도 있다. 현재는 미백제를 사용해 이를 희게 하려는 것이 유행처럼 되고 있다.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李漢水 선생님의 “치학박물기”와 東西齒學 見聞

記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좋은 책을 많이 내신 李漢水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李漢水, 齒學博物記 昔岩社, 1976.

李漢水, 東西齒學見聞記 昔岩社, 1977.

李丙台, 李漢水, 일본치의학간사.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8권1호 1999.

성학사전, 강중위번역 강천사 1996.

ABSTRACT

Each Nation's Customs Related with Teeth

Byun, Young-Nam D.D.S., M.S.D., Ph.D.

Mankind has formed a nation's unique culture according to the traditions or customs which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Such a custom may be a good one and a bad one at the same time. However it may be a bad or strange custom, it should possess its own origin and meaning and it has been accepted with little rejection symptoms.

In this respect, it is interesting to investigate and define each nation's customs related with teeth in order to compare and scrutinize the relationship.

Thus, I collected and compiled the data about peculiar customs centering around Chinese, Japanese, Vietnamese, and our nation Korean.

綜 說

서양치의학 도입기의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

허 정 구¹⁾

청은 조선은 壬午軍亂 후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등으로 실질적인 조선지배를 하게 되었다. 1885년 10월에 조선에 온 총리교섭통상사의 袁世凱는 약 10년간(1885~1894) 청의 대조선적극책에 편승하여 이홍장이 입안한 정책을 충실히 실행하며 조선의 국정을 간섭하였다.

일본도 1882년의 임오군란 후 정치, 군사적 침략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보다 발전한 자본주의적 경제력을 바탕으로 조선에 적극적으로 침투하였다.

한편 조선은 식민지, 반식민지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세계자본주의체제에서 국민국가로서 형성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첫째는 조선정부 자신이 움직임이었고 둘째는 개화파 정치세력의 움직임이었으며, 셋째는 아래로부터의 농민층의 움직임이었다.

청·일전쟁(1894~1895) 후 조선조정 내부에는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대두하였다. 이에 일본은 1895년 음력 8월 20일(양력 10월 8일) 민비를 시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민비시해사건과 단발령으로 유럽들의 선봉으로 의병운동을 일으키자 궁궐 호위의 중앙군을 전국에 파견하게 됨으로 왕실 호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 틈을 이용하여 1896년 2월 11일에 아관파천으로 친러수구파 정부를 구성하였다. 서양열강 '이권획득의 경쟁외교' 로 양질의 금광이권 등의 할양되었다.

정치적 격변속에서도 갑오경장과 을미개혁을

추진하던 한국왕조는 1897년 10월에 '大韓民國'을 선포하여 본격적인 근대국가로의 전환을 기도하였다. 불과 14년에 걸친 단명제국으로 대내외적 '獨立國家의 自主權' 은 1904년 러일전쟁 이전의 전반기에 유지되었다. 1897년 10월 12일부터 한국왕조는 광무개혁을 추진하였다.

한국인들은 자주독립을 강화해야 할 과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徐載弼과 온건개혁파가 합작해서 1896년 4월 7일《독립신문》을 창간하고, 주체세력을 결집하였다.

1898년 4월에는 로젠-니시협정(Rosen-西 Convention)을 맺어져 세력균형이 러일전쟁이 일어난 1904년 1월까지 만 6년간 지속되었다.

1898년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혁파정부와 독립협회가 주도하는 요구로 고종은 개혁파정부의 수립으로 '하나의 평화적 혁명(a peaceful Revolution)' 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종은 놀라 독립협회 해산령을 내리고 개혁파정부를 22일만에 붕괴시켰다.

'大韓民國' 후반기 7년 도안은 일제에 의해 자주권이 잠식되다가 한국 식민지화를 추진하던 일제 통감부의 괴뢰정부로 전락된 모습마저 보였다. 영일동맹의 체결과 미국의 지지를 배경삼아 일제는 1904~1905년의 러일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되어 한국을 식민화하기 위한 '합병'에 착수하였다. 군사력을 앞세워 한국의 외교와 재정권을 탈취하고 1905년 11월까지 그들의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한국의 통치권을 행사하며 식민지체제를 아래와 같이 구축하였다. 첫째, 국 주요도시와 요새지를 완전 장악하고 군사적

¹⁾ 중앙치과의원

으로 한국 영유를 완결시켰다. 3,400명 이상으로 알려진 그들 헌병과 4천명의 헌병보조원, 그리고 경찰 등을 일본군 헌병대로 지휘체제를 일원화시켜 ‘치안’ 경찰의 임무까지 담임시켰다. 셋째, 통감부는 한국정부를 괴뢰정부로 개편하여 식민지체제 확립의 압잡이로 만들었다. 군대를 재정상의 구실로 해산시켜 위협요소를 제거하였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에 관한 조약’은 한국의 일제 식민지 전략을 명문화한 것이다.

일본인 중에는 한국침략·한국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한국에 대한 우월감·경멸감을 가진 자가 있었다. 일본은 明治維新(1867~1868) 이후 아시아 침략정책으로 나타난 것이 征韓論이다. 정한론과 불평 무사 무리의 눈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전쟁론이 결합된 것이 海外雄飛論이다. 1874년 4월 정부는 대만에 출병했다. 이러한 해외웅비론을 대만을 향해서 실행한 것이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4~1901)은 서구 문명을 至高한 목표로 삼아 아시아의 후진국과 손을 끊고 나아가는 것이 일본의 살길이라고 생

각하였다. 일본은 열강의 압력하에서 동양의 기운을 만회하는 데는 실로 일본·중국·한국 세 나라의 교제 여하에 달려 있다는 연대론이 주장되었다. 橋井 吉(1850~1922)의 『大東合邦論』은 한국 병합의 과념적 무기로 쓰이게 되었다. 福田德三도 한국은 봉건제도 성립 이전의 극히 유치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근대사회의 自主的발전은 바랄 수 없으므로, 그 임무를 일본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라 하였다. 露日戰爭·한일합병 뒤에는 ‘滿鮮史’라는 이름으로 ‘日鮮同祖論’은 일본과 한국과의 근친성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 지배의 정책으로 삼은 同化政策·內地延長政策으로,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민족독립운동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본래 대륙 奧地에 살던 天孫民族이 사방으로 이주·번식하여 滿蒙에서 한국·일본까지 퍼졌다는 大아시아주의의 이론적 근거로도 된다.

隨 想

어제와 내일을 앞뒤에 두며

학회 창립 40주년의 자축과 성찰

金 官 興¹⁾

세기가 바뀌는 바로 이 시점에 삶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곧 내가 엄청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두려움이 아닐 수 없다. 이 두려움은 해마다 세모와 신춘에 품게 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다.

‘역사’는 우리들 선현들에 대한 경애심이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이다. 경애심 없이 ‘역사’를 공부하며 말하고 전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틀린 태도이다. 만약 그러한 기본적 태도없이 ‘역사’를 다룬다면 이미 그 사람은 철로를 탈선한 기관차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

역사를 공부하는 혹은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어쩐지 그리고 어딘지 보수주의로 일관하든가 묘한 국수주의적 경향을 고집하는 태도는 깊이 자성할 그리고 매우 경계해야 될 것이라. 그리고 또 이와 반대로, 역사를 말하는 사람이 이른바 진보적 깃발을 앞세운 나머지, 선현을 욕되게 하는 태도 역시 옳은 태도는 아니겠다. 개인의 감상이나 기호로써 역사를 다루어서는 미흡한 것이다.

역사를 기록하는 데에는, 어떤 뚜렷한 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학문의 분야의 경우는 거기에 어느 하나의 격식이 엄격할만큼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며 필요불가결인 용어가 있다. 따라서 그것에 따라야 되나, 역사의 기록의 경우는 다소 이와는 다른 일면을 지녔다. 바로 이 점은 자유로운 듯하면서도 크게 조심스러운 점이다.

이른바 동양치과의학은 이제는 고스란히 꺾

속에 넣어둬야 할 그러한 존재는 결코 아니라 생각된다. 도리어 그것은 한국인과 모든 동양인이 중심이 되어 활발히 이제 다시 연구되어야 할 분야라 생각한다. 역사 연구자는 선두에서 이 분야를 새로운 시야와 방법으로, 그것이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만인에게 버려진 존재이었음을 깨우쳐야 한다. 한국의 전통치과의학은 계속 금고에 내팽개쳐 둘 것이 아니라, 역시 연구자에 의해 그것은 새 지식이 되고 새 진실로서 살아날 존재로 돼야 한다.

우리 학회는 올해로 창립 40주년이다. 40이라 하면 한자(漢字)로 볼 적에 이만큼 경하할 숫자도 없다. 四는 우리 말로는 사(死)라 하여 험기돼나, 실은 한자로는 매우 길(吉)한 숫자이다. 또 十이라는 글자도 상하 좌우의 두 획은 우주의 동서남북을 가르키는 것으로 곧 온전한 것을 뜻한다.

40이란 완전을 뜻하는 것이다. 인생 40이면 불혹(不惑)이 아닌가. 이제 우리 학회도 그 앞길은 환히 뚫렸다. 기술과 돈만이 만인의 이목을 끄는 들뜬 세기일수록 역사 연구자의 바른 시선의 선도적 책무는 크다.

구하면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스스로 찾으려 하지 않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뭇인가를 찾고 얻으려 한다면 필요한 방법을 쓰고 인내심 깊은 계속적 행동이 따라야 한다. 이러한 뜻에서 창립 40주년을 맞은 우리 학회와 새삼 새로운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이 사람은 이 세기의 마지막, 아니 새 세기를 앞에 두면서 자축과 성찰을 한다. (2000년 11월)

¹⁾ 김관흥 치과의원

그때 그 時節

創氏改名

金 熙 耿¹⁾

歷史속의 眞實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차 잊혀져가는 것이 자연현상일 것이며, 源泉地인 上流에서 흐르는 물은 바닷물과 합류되어 海水로 변하듯이 過去之事로 우리들이 처해온 모든 歷史는 날이 갈수록 忘却되어지는 現實속에서 한없이 시간의 흐름은 이를 외면하고 흘러가고 있다.

過去之事인 韓日合併과 日帝36년간의 植民地統治下에서 일어난 3.1운동(1919), 五族協和, 內鮮一體를 강조하며 創氏改名을 強要하던 그때 그 時節, 筆者는 중학생이었다. 이때에 발생한 過去之事를 回想한다는 것은 人間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著名人士들은 그 追憶을 남기기 위하여 回顧錄을 執筆하는 것이 아닐까? 筆者 역시 自身이 체험한 것을 土臺로 또는 微弱한 점은 文獻 등을 참조해 가며, 「創氏改名」라는 제목으로 記述하고자 한다.

우리민족은 先祖로부터 代를 이어 물려받은 귀중한 本貫을 가진 姓이 있으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祖上으로부터 아름다운 이름을 받게 된다. 그 전통을 무시한채 소위 日本式 創名으로 改名하라는 것이었다.

즉, 이것이 內鮮一體라는 것이며, 여기서 「內」란 日本을 稱하며, 「鮮」은 朝鮮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植民地化된 朝鮮人을 創氏改名으로 朝鮮民族을 완전히 埋葬해버리고 日本人으로 改造하자는 日本帝國主義의 野心취인 政策인 것이다.

鮮과 臺灣에서 施行하게 된 것이다.

그 時代의 家長으로서의 立場은 여간 難處한 것이 아니었다. 創氏改名을 하자니 祖上을 대할 면목이 없고 反對立場을 취하자니 倭人들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人間差別과 壓迫을 당할 일이 매우 어려운 것이 었음을 念頭에 두어야 했다.

살기 위해서 衣食住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進退兩難이지만 결국은 살기 위해 創氏改名을 選擇하여야만 된다는 弱小民族이 당해야 하는 悲劇인 것이다.

創氏制度上으로 볼 때 日本人들의 경우는 한 男性이 結婚을 하게 되면 男便에게로 오는 女性의 경우 女性은 자동적으로 自己의 姓을 버리고 男便의 姓을 따라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니 아무런 불편과 지장이 초래되지 않으나 朝鮮人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朝鮮의 관례로는 結婚을 하더라도 女性은 자기의 姓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日本과 같이 男便의 姓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子息이 태어나면 그 자식은 반드시 아버지의 姓을 이어받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創氏란 日本의 家族制度를 본받아 家門의 稱號인 「氏」를 만들게하는 것이 創氏인 것이다.

日帝는 朝鮮民族抹殺을 위하여 日本式姓名改名이란 強制政策을 하면서 뒤로는 그것은 法令上 強制는 아니고 任意屈出하면 된다는 宣傳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總督府에서는 과연 총인구에 몇割程도가 創氏改名에 대한 贊反屈出結果가 나

¹⁾ 서울齒大 第2回卒(1948)

을 것인가 하면서 신경을 매우 곤두세웠으나 그 결과는 찬성이 8할, 반대가 2할로 나타났다.

1910년 8월 29일 朝鮮은 日本의 植民地가 되었다.

당시 明治天皇은 소위 抄書라는 것으로 朝鮮人은 「天皇의 赤子」가 되었다고 하였다.

日本軍 憲兵과 警察에 의한 暗黒같은 獨裁無斷 統治時代였다. 이러한 日本帝國主義者들에게 壓迫의인 植民地政策下에서 苦難을 당하면서 韓日 合併 10년이 지난 1919년 3월 1일 나의 祖國을 돌려다오 朝鮮獨立萬歲를 絶叫하며 全世界에 宣言하면서 전국 坊坊曲曲에서 태극기를 들고 남녀노소가 궤기하였으며, 「파리」 平和會義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이것이 3.1獨立運動이다.

이로 인하여 당시 日本大正天皇은 1919년 8월 19일 詔書를 통하여 朝鮮人도 日本人과 共히 「天皇의 赤子」임으로 전혀 차별하지 않는 대우를 할것이라고 言明하여 同化政策을 썼다.

즉 明治, 大正 두 天皇에 詔書가 36년간 일제가 조선지배의 기본방침이된 것이다. 그 결과 1937년 中,日戰爭의 발생을 契機로 「內鮮一體」를 提唱하였다. 그 당시에 조선총독부는 육군대장 南 次郎이었다.

이 인물은 1931년 9월 18일 滿洲事變時 陸軍大臣(長官) 1934년 關東軍司令官 등 약 15년간 전쟁최전선 최고책임요직에만 종사한 경험자로 1936년 8월 5일 제7대 조선총독으로 임명되었다. 南總督의 朝鮮統治의 最大目標로는

- 1) 조선에 陛下(일본천황)을 꼭 한번 行幸(오시게하는것)시켜야 한다.
- 2) 朝鮮人에게도 日本人과 동일하게 徵兵制道를 실시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즉 朝鮮人을 완전무결하게 皇民化(천황의적자)해야 된다는 철두철미한 정책을 펴 나갔다.

그 당시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독일 베르린 올림픽에 일본마라톤 선수로 출전한 孫基禎선수가 2시간 29분 19초의 기록으로 우수한 쾌거를 보도한 東亞日報가 孫선수의 가슴에 불

어 있는 日章旗부분을 말소해버린 사진을 게재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日章旗抹消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總督府에서는 동아일보에 무기정간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反日의인 공기는 지배적이였다.

이를 계기로 조선민중의 동향을 깊이 憂慮한 나머지 조선에 일본군 제19사단을 함경북도 羅南에 그리고 제20사단은 서울(당시京城)용산에 주둔시켜 朝鮮人을 日本帝國臣民化 즉 皇國臣民化로 개조하는 정책이 착착 진행되었다.

먼저 정신교육으로 神社參拜를 강조, 1937년 10월 總督府學務局長 鹽原이 만든 皇國臣民의 誓詞라는 것을 아동용과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매일 아침 朝禮時에 낭독하는 것을 義務化하였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는 宮城遙拜(천황이 거거하고 있는 궁성방향에 큰절을 하는 것) 國旗掲揚式 日本國歌普及, 志願兵制度가 1938년 2월에 공포되었으며, 이어서 3월에는 朝鮮教育令, 1940년에는 前記한바 있는 創氏改名을 강요하게된 것이다. 이 創氏改名은 歷史的背景으로 총독부에서 조선인은 帝國臣民化가될 수 있는 소질을 보유하고 있는 민족이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元來 大和民族(일본을칭함)과 半島民族(朝鮮)은 同祖同根의 血緣의 必要性으로 堅固하게 結策 되어있다고 주장하면서 創氏改名의 근원을 歷史觀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創氏改名은 조선인들에 절대적인 요망에 의하여 制定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 발언인 것이다.

일부 在日朝鮮人과 親日派를 제외하고 이를 원하는 민족은 없을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創氏改名은 內鮮一體의 完成品이라는 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創氏改名으로 內地人(일본인)과 朝鮮人間에 氏名區別을할 수 없음이 그 목적일 것이다.

지금까지 記述한 주장들이 총독부의 創氏改名을 制度化한 理由라고 말할 수 있다.

解放後(1945년 8.15) 자연적으로 創氏改名은 廢

棄되었다. 創氏届出職業別現況을 보면, 1位, 水産業, 2位, 交通業, 3位, 金鑛業, 4位, 公務員, 自由業, 5位, 商業, 6位, 工業, 7位, 無業, 8位, 農業, 9位, 有業者 및 其他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시 朝鮮近代文學의 아버지로 불리우던 李光洙, 그는 香山光郎으로 創氏改名을 하였다. 李光洙 에세이 중 가장 그가 강조한대목은 創氏하므로서 다소라도 民族差別에서 脫出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創氏改名에 대한 웃지못할 에피소트도 여러 가지가 있다.

당시 日本天皇의 이름은 裕仁이었다. 이 이름을 빈자하여 裕川 仁이라고 創氏한 者. 또는 日本皇을 稱하여 天皇陛下(덴노헤이가)라고 하였기에 이音を 따서 漢子로 田農丙下(덴노헤이가)라고도 하였으며, 당시 朝鮮총독부 南次郎(미나미지로)을 빗자하여 南太郎(미나미다로)라고 改名한 者도 있었다. 太郎(다로)란 이름은 次郎보다는 兄님별이 되므로 總督 南次郎의 兄이 된다는 意味로 해석이 된다.

日本戰國時代 우리나라를 2번씩이나 침략한 豊臣秀吉(도요도미히데요시)의 이름을 그대로 본 따서 한국발음은 풍신수길(豊臣秀吉)로 創氏한 者도 있다. 鐵 甚平이라는 創氏 참으로 재미가 있는 이름이다. 「鐵」 돈은 잃었지만 「甚」 그까 깃것썸이야 「平」 이겨낼 수 있는 平安한 몸이다 라고 하석이 된다.

創氏中에 제일 甚한 욕설은 犬糞食衛이라는 創氏改名이다. 일본 발음으로느 이노꾸소구라에라 한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개똥이나 먹어라」 라는 의미가 된다. 이러하듯이 우리 先祖들은 日本帝國主義者들에게 암암리에 이러한 식으로 創氏改名壓迫에 직접 간접으로 對抗하였다는 것을 역역히 증명할 수 있다.

끝으로 犬糞食衛로 創氏改名을 한 사람은 당시 총독부에 對抗者, 評論家인 金文輯氏라는 說이 있다. 그러나 그는 日本 創氏名을 大江龍之助로 하였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자기는 대구가 출생지임으로 「大」를 東京 즉 江戶에서 成長하여 「江」을 京城龍驛頭에서 나라에 報國하다 白骨

로 돌아오는 數 많은 英靈을 보면서 痛哭하며 男子의 意志를 決心한 것이 龍山驛頭이므로 「龍」을 붙여 大江龍之助라고 改名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悲劇에 試鍊을 대하면서도 우리 祖上들은 半 조각인 國土이나마 나의 祖國 大韓民國이란 國土에서 安益을 누리고 있는 것을 感謝하고 있다. 다음 機會에 다시 執筆할 惠澤이 주어진다 면 志願兵, 學徒兵, 徵集制 등에 대하여 寄稿코저 考慮中이다.

韓國出身者 創氏 및 道·年·回別分類

生存會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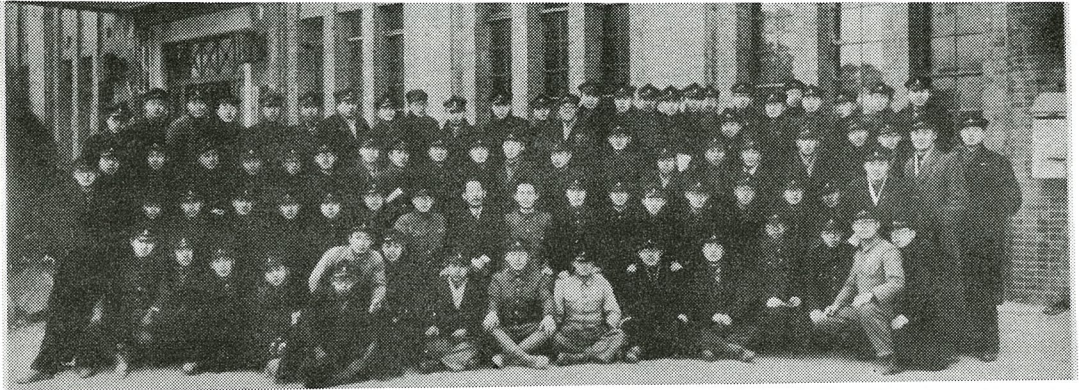
鮮于良國 (箕原)	平安北道	1947年	第1回
池 憲 澤 (中原)	忠清北道	"	"
白 董 濟 (水原)	서 울	"	"
柳 瓚 浩 (柳田)	黃 海 道	"	"
鄭 樂 淵 (松本)	"	"	"
吳 應 瑞 (吳條)	平安南道	"	"
朴 相 模 (平海)	"	"	"
金 周 煥 (金澤)	京 畿 道	"	"
韓 澤 善 (淸本)	咸鏡北道	"	"
柳 吉 馨 (柳田)	"	"	"
黃 鐘 燮 (共田)	在 美	"	"
金 裕 善 (金谷)	平安南道	1948年	第2回
金 熙 耿 (金海)	"	"	"
金 英 海 (松本)	平安北道	"	"
鄭 淸 奎 (靑山)	서 울	"	"
裴 澤 (星岡)	慶尙北道	"	"
崔 淳 德 (石山)	平安南道	1950年	第4回

作故會員

金 相 燦 (金村)	平安南道	1947年	第1回
孟 柱 煥 (武內)	서 울	"	"
文 乃 模 (文平)	全羅北道	"	"
安 炯 珪 (安本)	서 울	"	"

崔亨坤 (山田) 平安南道	" "	金允植 (金山) 平安南道	中退
崔尙烈 (高山) 京畿道	" "	廉世根 (松原) 江原道	"
車文豪 (安田) 平安北道	" "	<u>行方不明會員(北韓居住推算)</u>	
河聖秀 (河村) 平安南道	" "	金翔圭 (金光)	1947年 第1回
金容瑄 (金光) 江原道	" "	徐洪錫 ()	" "
卞鐘秀 (德山) 慶尙北道	" "	郭甲植 (岩谷)	" "
李鐘燮	1948年 第2回	尹哲洙 (平沼)	" "
金榮淳 (清水) 平安北道	1949年 第3回	姜稀豹 (米田)	?
金學聖 (金本) 忠清北道	" "		
玄定健 () 서 울	" "		以上
金一坤 (金田) 慶尙南道	1950年 第4回		

그때 그時節 追憶의 寫眞



사 진 1.



사 진 2.



사 진 3.

사진 1. 서울 小公洞所在(1943年 入學生)

1944年 1月 10日頃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校庭에서 撮影 : 現 서울大學校 齒科大學 第1期 卒業生들이다. 入學當時에는 146名으로 調査되었으나 當時는 83名만이 撮影되었다. 不參者는 原因不明이며, 撮影된 學生數는 日本人이 2倍 以上 더 많았다.

사진 2. 1943年 4月 15日에 入學하여 5월에 江原道 平康에 있었던 陸軍野外演習場兵 舎에서 1週日間 宿泊하고, 學校教官과 日本陸軍現役見習士官 2名, 上等兵 2名 등이 特別配屬되어 軍隊와 同一하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內務班訓練을 받았다. 특히 韓國學生에 대한 上級生의 氣合은 想像을 超越하였다.

(이 사진은 日本野外訓練場(平康) 一本松(한개의 소나무)을 背景으로 撮影한 것이며, 學生들이 教練服에다 各者 背囊과 3,8式 小銃으로 完全武裝한 상태이다. 1943年 5월에 撮影)

사진 3. 場所만 다르지 日本野外軍事訓練演習場 (平康에서 1943年 5月 撮影)

以上の 寫眞 3枚는 齒科大學 第1期 卒業生으로서 매우 貴重하고도 追憶에 남는 寫眞들이 며, 2000年 11月 6일부터 3泊 4日間 日本京都, 鳩尾湖, 奈良 등 日本側에서 開催한 慶友 會에서 松尾弘씨와 함께 京都호텔房에서 同宿하면서 밤 3時까지 2日間 擴大鏡으로 同期生의 모습을 探究하며, 名單作成에 힘을 기우렸다. 松尾弘씨가 提供한 寫眞이 大韓齒科醫史 學會誌에 掲載되어 幸으로 여기며, 그간의 努力이 보람을 찾아 두고 두고 記憶에 남을 수 있게 되었다. 參考로 1943년도 入學者 및 在籍者로 밝혀진 사람은 韓國 41名, 日本 70名, 台灣 2名, 不明 33名(入學當時 146名)

調査擔當 : 金 熙 耿 · 松 尾 弘

會 員 動 靜

회원 여러분의 동정·소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본회 학술지 편집 위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란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本會會員 奇昌德박사님께서 2000년 3월 20일 영면하셨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으로 격려해주시며 본 학회의 활동과 치과醫史學의 발달을 위해 큰 공덕을 남기신 박사님의 서거에 大韓齒科醫史學會 회원 일동은 머리숙여 명복을 빕니다. 저희들은 학회를 보다 발전시키는 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本會會員 陳海允박사님께서 2000년 11월 5일 영면하셨습니다. 일찍이 본 학회에 힘이 되어주셨던 뜻을 어찌 잊겠습니까. 더욱이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에 쏟으신 열정은 후학들에게 크나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大韓齒科醫史學會 회원 일동

▷李漢水(終身名譽會長):2000년 4월 은퇴하셨다. 2000년 12월 3일 先親 李順鐸(독립유공자·경제학자)氏를 기념하는 延世大 經商大學 및 經濟研究所 공동주최 제3회 이순탁紀念學術講演會가 있었다.

▷金官興(前 副會長):자제 基範君이 연세대 工大 大學院 석사과정을 마치고, 英國 옥스퍼드大 박사과정에 입학되어 2000년 가을 新學期에 出國하였다. 同校의 博士課程에 입학되기는 드문 일이라 주위의 큰 축망을 받고 있다.

▷金正均(名譽會長·前 齒協會長):李漢水著 《李漢水東西齒見聞記》(1976년) 20권을 본학회에 기증. 2000년 11월 서울치대 산악회원과 네팔트레킹을 다녀왔다.

▷李丙台(名譽會長):2000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 제정인 功勞大賞(8회)을 수상하고, 이어 9월 28일~10월 2일 中國延邊 제2인민병원 구강외과의 진료용 각종 장비의 기증 추진사업 협의차 渡中訪問했으며, 다시 12월 2일 韓國山書會(山岳人·出版人·愛書

家·一般人的 모임)의 會長으로서의 그동안의 공로에 대해 韓國大學山岳聯盟으로부터 山岳文化賞을 받았다.

▷任慶彬(直前會長):2000년 4월 서초구의사회에서 모범회원상을 수상, 서울JC 특우회 2001년도 회장에 피선되었다.

▷辛在義(會長):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에 입학 2001년 1학기부터 수학한다.

▷邊榮男(副會長):2000년 4월 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49차 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료문화상을 수상. 서울 가톨릭 치과의사회장에 피선되어 성가복지병원 치과무료진료팀과 장애자진료운영에 힘쓰고있다.

▷金在勳(監査):장기간 癌으로 고생하신 유순희女史께서 수술후의 경과가 대단히 좋으시어 이제는 完快로 판정되었으며, 長女 영주嬢의 得男 그리고 次女 영소嬢의 結婚式도 지난해 해 10월 15일에 있었다.